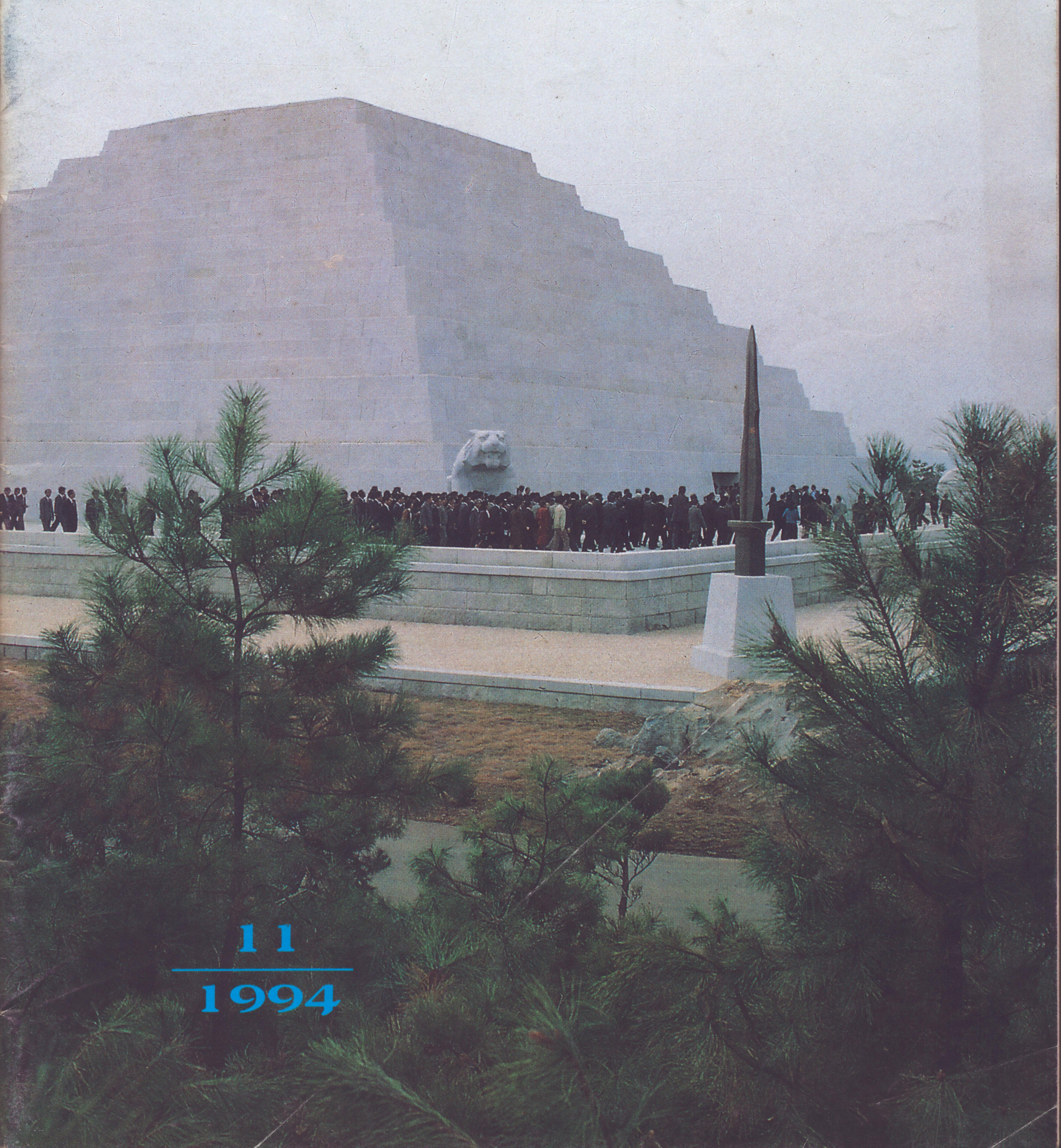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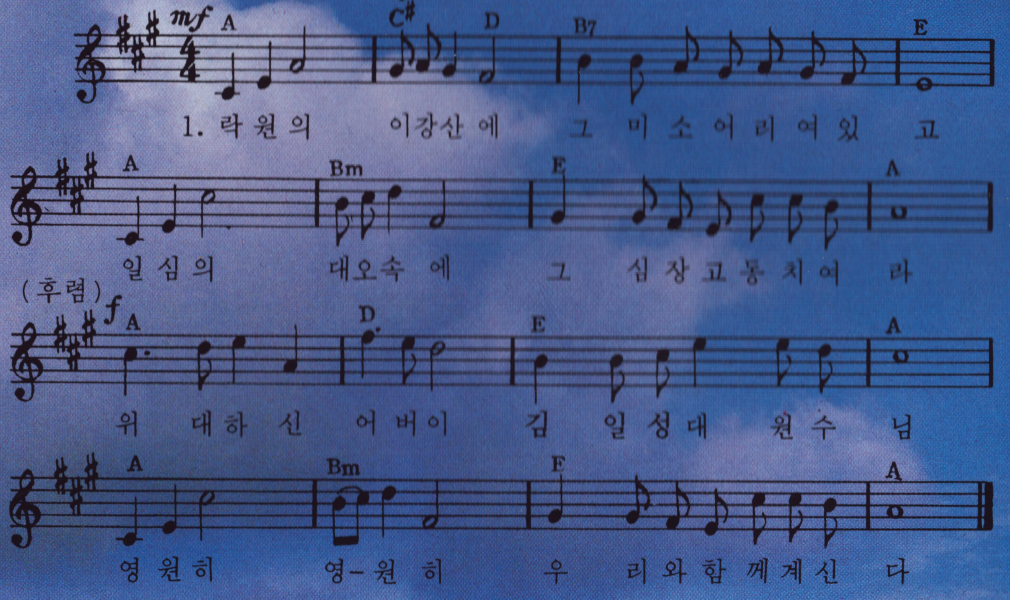
금수강산



11
1994

김일성대원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흠모의 정으로 (♩=96) 작사 신운호, 작곡 리민호



2. 베푸신 그 사랑은 노래로 울려 끝없고
쌓으신 그 업적은 하늘에 닿아 빛나네
(후렴)

3. 그 영상 해와 같이 누리를 밝게 비치고
그 이름 기발같이 승리로 인도해주네
(후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생의 모습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중앙추모회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00일에 즈음하여

민족의 태양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100일이 되는 날에 즈음하여 고국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추모하는 여러 의식들이 거행되였다.

지난 10월 16일 오후 금수산의사당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00일 중앙추모회가 진행되였다.

추모회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들을 비롯한 10여만명의 각계층 군중들이 참가하였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추모회장에 나오시자 추모회시작이 선언되고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이어 묵도곡이 울리는가운데 전체 추모회참가자들은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국청사에 빛날 위대한 공적을 이룩하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추모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최광동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병식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류미영선생,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최룡해위원장의 연설들이 있었다.

추모회참가자들은 력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기어이 실현하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지키고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나라의 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 심장의 맹세들을 가다듬었다.

중앙추모회는 《인터나쇼날》의 노래 주악으로 끝났다.

이날 각 도, 시, 군들에서와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부대들에서도 추모회가 진행되였다.

같은날 만수대언덕에 세워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에서도 청년학생들의 추모회가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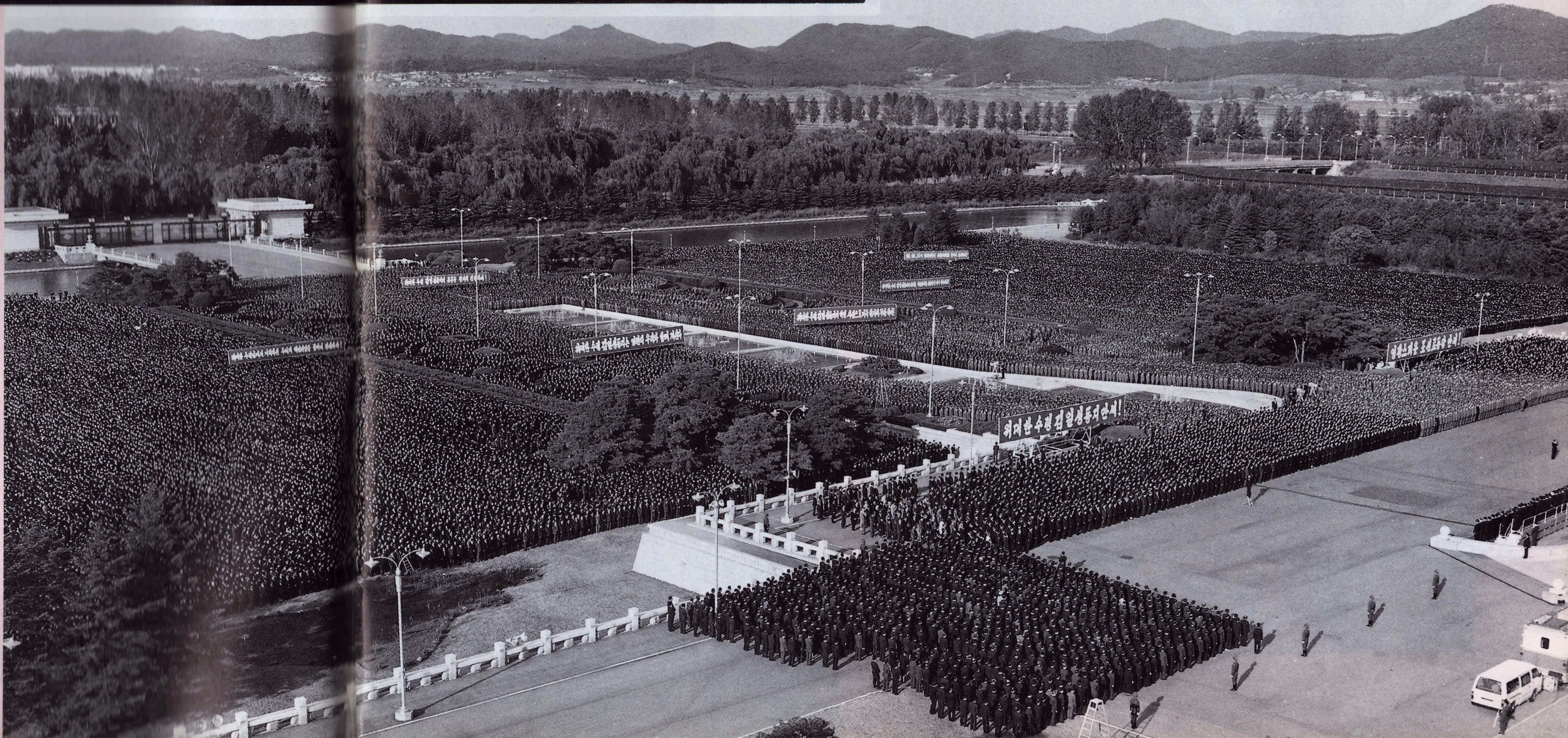
이날 아침에는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에 당과 정부 간부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 청소년학생들, 남과 해외동포들, 외국손님들이 화환을 진정하는 의식이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앞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놓여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주위에는 조선인민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륙해공군명예위병대가 엄숙히 정렬해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이 만수대언덕에 뜨겁게 굽이치는 가운데 수령님의 동상을 향하여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 대장이 보고를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100일 중앙추모회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에 보내신 화환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주위에 엄숙히 정렬해있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에 각계각층 근로자들이 화환을 진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추모하여 각계층 근로자들이 진정한 화환들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을 찾는 근로자들





《**김일성**대원수님…》 목놓아부르는 어린이들



따사로운 그 품을 그리며(재일교포들)



《못견디게 그립습니다. 어버이수령님…》(재중교포들)



경건한 마음안고 수령님의 동상에 화환을 진정하는 남과 해외교포들



끝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재미, 재오스트랄리아 교포들)



애국가가 주악되고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항일혁명투사일동, 인민무력부, 사회안전부,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부대들, 정무원 위원회 및 부, 조선소년단련합단체, 정당, 사회단체,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 기관,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또한 《한민전》중앙위원회, 《한총련》,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범민련 해외본부 의장일행,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범민련 구라파지역본부, 재미교포들, 재로씨야동포조국방문단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 주재 외교단, 무관단, 경제 및 무역참사단 명의로 된 화환들, 중국공산당친선참관단, 벨라루씨공산주의자당대표단의명의로 된 화환들을 비롯하여 세계각국에서 온 대표단과 인사들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수령님의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숭엄한 마음으로 되새겨보면서 그이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한편 이날 전국각지의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청소년학생들의 화환과 꽃다발들이 지방들에 모셔진 수령님의 동상에 진정되였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100일에 즈음하여 고국인민들은 누리에 태양으로 빛나는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며 영원히 수령님과 함께 살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수도 평양과 전국각지의 시, 군들의 거리중심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과 함께 환히 웃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상을 모시였다.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한 영상을 온 나라에 모심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상을 영원불멸할 위대한 태양의 모습으로 심장마다에 더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서거 100일에 즈음하여 진행된 모든 의식들은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산천이 아무리 변한다해도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우리 인민은 영원히 떨래야 뗄수 없는 혈연일체를 이루고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의식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필승의 신념과 의지의 힘있는 과시로 되였다.



외국인들도 끊없이 수령님의 동상을 찾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그리는 마음
화환에 담아(재카나다교포들)





만수대언덕에 신념의 맹세가 차넘친다. (우, 아래)



금수강산

월 간

1994년11호(루계 제63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조국사

차 례

선조들의 슬기와 넋이 깃든 유적유물……10

시
동방의 태양(외2건)……12

김일성동지의 회고록《세기와 더불어》(4)중에서
기이한 인연(2)……13

한장의 전보문에서……15

인민의 지도자
전사의 곁으로……16

백두광명성전설
지동이 일다……17

민족대단결과 《범민련》……18

렬사의 자손들이 들려준 이야기……19

주체사상학습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9)……21

인상기묶음
조국을 잊지 않겠어요(외3건)……22

단일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24

두개의 금메달수훈자……29

수기
넋……31

옛이야기
봉변당한 닭장사군……32

기행—동해기슭을 따라
함주, 금야 지구……33

묘비가 전하는 이야기……34

도시소개
해 주 시 (2)……36

명승의 나라
학 사 대……39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실태와 전망(1)……42

편지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44

《동백꽃》을 부르는 마음……45

통일과 이름……46

유구한 민족사의 갈피를 더듬다
을 파 소……47

고향소식
밤꽃 피는 계절이 오면……49

독자란
판문점에서……50

념 원……51

1995년과 조국통일……53

1995년 통일원년 향한 워싱톤선언……54

유훈이 꽃핀 연백벌……55

고국방문……61

고국에서 야영생활……63

표지 1면 개건준공된 단군릉
사진 김휘률

표지 4면 연백벌의 해남리
사진 남용일

주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45236

좌담회

선조들의 슬기와 넋이 깃든 유적유물

참가자：

△리주백－문화예술부 문화보존총국 부총국장

△김길현－조선중앙력사박물관 부관장

△박동진－문화보존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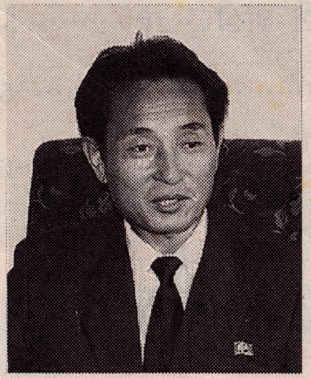
△사회－본사기자

민족문화유산

△기자：최근 우리 《금수강산》잡지 편집부앞으로는 해외동포들로부터 선조들이 이룩한 유구한 력사와 문화, 그를 꽃피우는 민족문화유산 보존정책에 대하여 알고싶어하는 편지가 수많이 오고있습니다.

이역에 사는분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오늘 문화유물보존사업에 이바지하고있는 여러분들과 자리를 같이하였는데 먼저 우리 나라에 보존되여있는 력사유적유물들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리주백：우리 인민이 창조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실물로 보여주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들중에는 조선사람의 기원문제, 민족사의 시원에 빛나는 해명을 준 귀중한 유적유물들이 많습니다.



매우 희귀한 인류화석인 구석기시대의 《고인》, 《신인》 화석들이 우리 나라의 도처에서 발굴됨으로써 조선반도가 인류발상지의 하나이며 조선사람은 명실공히 본토기원의 단혈성민족이라는것이 여지없이 확증되였습니다.

△박동진：지난해에 평양시 강동군에서는 단군릉이 발굴되고 최신형의 년대측정기구들에 의하여 단군의 유골이 5,011년전의것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때를 같이하여 고조선의 신지글자가 발견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였습니다.

△김길현：최근에는 특히 방대한 개건복구사업을 통하여 단군릉, 고구려의 건국시조 동명왕릉과 고려태조 왕건왕릉이 솟아나 오늘의 후손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묘향산에 가면 보현사, 금강산에 가면 표훈사, 강계에 가면 인풍루, 개성에 가면 고려성균관 등 유명한 건축유산들이 곳곳에서 옛모습을 자랑하고있지요. 또한 고국원왕릉이며 강서세무덤, 덕흥리고분 등 고구려의 우수한 벽화무덤들이 있어 아득한 세월을 거슬러보게 하고 대성산성, 정방산성을 비롯한 수많은 산성들은 슬기롭고 용감한 옛장수들과 인민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줍니다.

△리주백：지금 번역복각되여있는 《리조실록》, 《팔만대장경》은 참으로 귀중한 민족고전유산입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고려사》의 전문이 번역복각되고 실학자들을 비롯한 이름난 학자, 문인들의 문집들과 고전문학작품, 《동의보감》을 비롯한 고려의학도서들도 수많이 수집, 정리 되였습니다. 음악, 무용, 미술, 공예 분야에 남긴 선조들의 재능도 빠짐없이 빛을 내고있지요.

△김길현：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비롯한 각 도력사박물관, 민속박물관에는 원시사회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의 력사유물과 풍부한 력



사자료들이 전시되여있습니다.

△박동진：우리 공화국에서 발굴되고 원상대로 복원보존되여있는 조선민족의 기원과 원시사회사를 보여주는 원시유적들, 첫 노예소유자국가의 건립과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보여주는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와 고려, 리조의 력사유적들 그리고 수십만점의 유물들에 대하여 다 이야기하자면 실로 끝이 없습니다.

△리주백：우리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은 세계적인 관심으로 되고있는데 일본에서는 《고구려문화전》이, 구라파의 여러 나라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유물전시회》가 열렸었습니다.

이역땅 우리 조선동포들이 살고있는곳에서도 우리 나라의 유물전시회가 진행되였구요.

실로 헤아려볼수록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끝없이 안겨주는 민족문화유산들입니다.

민족문화유물 보존정책

△기자：각이한 시대, 각이한 사회발전단계에서 선조들이 이룩해놓은 민족문화유산이 아무리 우수하고 풍부하다 해도 저절로 빛을 뿌리는것이 아닙니다.

그를 실증해주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박동진：우리 나라에서 선조들이 남긴 민족문화유산은 철저히 국가의 법적보호를 받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1993. 12)에서는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라는 결정이 채택되였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1994. 4)에서는 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평가와 등록, 보존관리, 복구개건, 문화유물보호에 대한 지도통제의 조항들이 밝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이 채택되였습니다.

△리주백：문화유물보호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직후인 1946년에 벌써 《보물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이 공포되였고 1949년에는 내각결정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이 채택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에는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한 조항으로 규정되여있으며 토지법에도 문화유적지를 특수토지로 규정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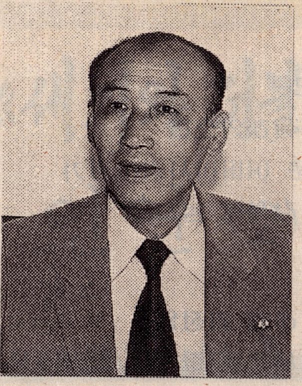
△김길현：우리 나라에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문화유물보존사업을 잘할수 있는 정연한 체계가 세워져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각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민족문화유산을 조사발굴하고 복원정리하며 보존계승하기 위한 사업체계가 서있습니다.

과학연구기관과 박물관들은 유능한 일군들로 꾸려졌고 연구사업을 현대화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가지고있으며 과학후비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고있습니다.

묘향산의 상원암에 가보면 그 높은곳에 자리잡은 절간에서 유적관리원을 만날수 있는데요. 온 나라 방방곡곡의 수많은 유적들마다에는 이처럼 그를 관리하는 일군들이 다 있답니다.

△박동진： 문화유물보존사업은 몇몇 전문일군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광범한 대중의 열의와 지혜에 의거하여 전사회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4월과 11월이 《문화유적애호월간》으로 정해져 보수관리사업이 집중적으로 벌어지고있습니다.

민족문화유산을 발굴, 보존, 관리 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이 있음으로 하여 문화보존사업에서는 빛나는 결실이 이룩되였습니다.

△김길현：우리 나라를 방문했던 일본의 한 력사학자는 묘향산의 유적들이 원상대로 보존되여있는것을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옛 절간들이 그대로 남아있을뿐아니라 잘 보존되여있다. 지어 전쟁시기 파괴되였던 절간까지 훌륭히 복구해놓고 불상과 불기까지 갖추어놓았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는 이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귀국의 문화보존정책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잘 알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실례들은 얼마든지 들수있습니다.

해외동포들이 보내온 문화유물들

△기자：오늘 우리 나라에 보존되여있는 민족문화유산들가운데는 이역만리에 있는 해외동포들이 보내온 문화유물들도 많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김길현：지금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조국의 력사를 빛내이려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지난날 외세에 의하여 해외로 류출되여 빛을 잃고있던 수많은 문화유산을 되찾아 조국에 계속 보내여오고있습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보내온 세나라시기, 고려시기의 유물들, 일본에서 신홍식교포가 보내온 장수배와 마상배, 일본 고베에서 송태선, 송창선, 송히자 3형제가 보내온 《금동여래립상》 2상, 일본에 사는 박말룡동포가 보내온 《룡푸른무늬흰자기병》, 정두현재미교포가 보내온 《고려동경》(놋거울), 정두현교포의 어머니가 보내온 《국화무늬박이푸른자기바리》 등 해외동포들이 보내온 유물들은 수백점이나 됩니다.

서예작품에는 애국명장 리순신, 갑신정변을 지도했던 김옥균, 추사 김정희가 쓴 글씨도 있습니다.

김정희가 쓴 글씨는 1960년대에 한 재중조선동포가 보내온것입니다. 당시 그 김우정동포가 이미 고령기의 나이였으니 현재 생존여부는 알수 없으나 그가 보내온 유물과 함께 그의 이름은 우리 박물관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있습니다.

△리주백：일본에서 4억엔에 달하는 돈으로 귀중한 문화유물을 되찾아 조국에 보내온 동포를 비롯하여 해외동포들의 애국충정은 실로 가슴뜨거운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해외동포들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평가하시고 우리 인민들이 이 유물을 다 볼수 있도록 유물전시회를 조직하도록 해주시였습니다.

평양의학대학병원 신재천, 안주시의 리경행을 비롯한 귀국동포들도 오랜 세월 가보로 전하여오던 문화유물들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김길현：이 유물들은 모두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해당한 력사적시대의 위치를 차지하고 기증자의 이름과 함께 전시되여있습니다.

△기자：참으로 좋은 말씀들을 해주어 감사합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아래 우리 겨레가 하나되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세계만방에 빛내일 그날을 위해 여러분의 사업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 동방의 태양

중국 료녕성 료양시미술학원
부원장 왕역건

파도소리
소나무 설레임소리
자애로운 어버이사랑이런가
고요히 강산에 넘치네

동방의 태양 **김정일**
그이는 세계를 한품에 안아
사랑과 진정을 펼쳐가시네

파도소리 소나무 설레임소리
소년들을 부르네
세계의 어린이들을 부르네

원산의 해변가엔
뜨거운 정 넘치고
백두산마루엔
붉은 노을 비꼈네

중조친선의 노래

중국공민 설덕강

그 누가 우리 멀리 떨어져있다 하랴
친선의 뉴대 우리를 굳게 련결시켰다
그 누가 우리 서로 초면이라 하랴
친선은 우리를 친근한 벗으로 되게 했다
그 누가 우리를 서로 낯모르는 사이라 하랴
우리는 한전호에서 싸웠고
하나의 강물을 마시며 살아간다
새 아세아를 건설한다

전화의 불속에서 우리의 우정 맺어졌고
세월과 함께 친선은 더욱 깊어졌다
베이징 평양
장강 압록강
산과 물은 잇닿아있고
만수천산 하나로 이어져
우정은 바다같이 깊고
친선의 꽃은 영원히 곱게 피리

시 봄빛

봄빛이 따스해도
조국에 비할소냐
하늘이 높다한들
바다가 깊다한들
대지가 넓다한들
조국에 못비기리

봄빛이 따스해도
조국에 비할소냐
날마다 고대하고
달마다 고대하고
수십년 고대해온
아 통일은 언제 오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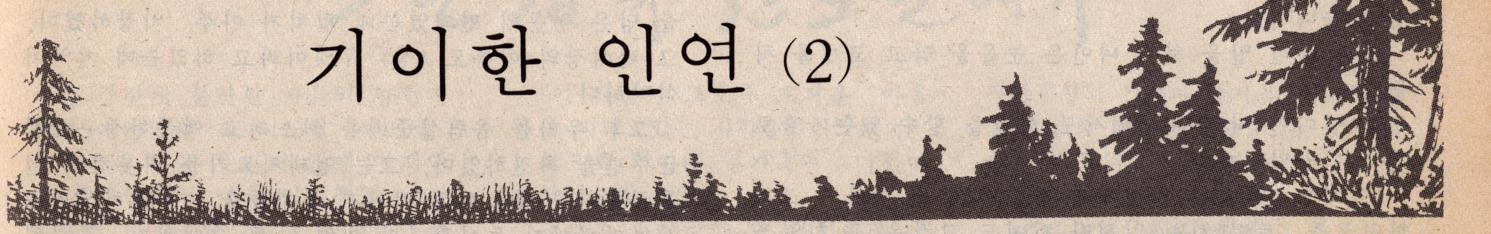
봄빛이 따스해도
모국에 비할소냐
겨울은 지나가고
봄날은 다가와도
꿈마다 불러보네
통일만세 만만세

봄빛이 따스해도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비할소냐
이팔은 멀리가고
여든이 앞에 와도
꿈마다 불러보네
수령님 만만세
조국통일 만만세
아 그리운 내 사랑
조국이 내 사랑

중국 길림성 화룡현
서성진 2도촌 2조
강창룡

김일성동지의 회고록《세기와 더불어》(4)중에서

기이한 인연 (2)



(전호에서 계속)

련대장이라면 간단한 자리가 아니였다. 위만군의 군사등급으로서는 우로부터 네번째이고 밑으로부터는 13개나 되는 사닥다리를 톺아올라야 따낼수 있는 벼슬이였다. 위만군 1개 련대의 관할구역이 몇개 현을 포괄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그것을 총찰하는 지휘관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가 하는것은 더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을것이다. 그 당시 액목현에는 교하에 본부를 둔 위만군 혼성 제9려단산하의 12보병련대가 주둔하고있었다.

적군와해를 하나의 중요한 전략적과제로 내세우고있던 당시의 환경에서 위만군련대장의 부인을 만나게 된 것은 흥미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물론 련대장의 안해라고 하여 조금도 낯색을 달리하지 않았다.

《그러니 부인, 위만군련대장의 안해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큰 형벌이라도 내릴줄 알았습니까?》

녀인은 몹시 민망스러워하는 낯빛으로 손을 비비였다.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잘못보지 않았는지…대장님, 실례이지만 성함을 김성주라고 하지 않는지?…》

이 뜻밖의 질문을 받고 이번에는 내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간도에서 수백리 떨어진 북만땅에서 우연히 만난 위만군련대장의 안해가 내 아명을 알고있다면 그것은 벌써 무심히 스쳐지날수 없는 비상사건이다. 어데서 본적도 없고 만난적도 없는 생면부지의 귀부인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수 있단 말인가. 놀라움과 동시에 그 수수께끼를 파헤치고싶은 호기심이 부쩍 동하였다.

《참, 액목땅에 와서 아명을 들으니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김성주이기도 하고 **김일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어떻게 나를 압니까?》

련대장의 안해는 모닥불이라도 뒤집어쓴것처럼 얼굴을 붉히였다. 나는 부인의 얼굴에서 말하고는싶어하면서도 터놓기 주저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성주선생님이 길림에서 청년학생운동을 지도할 때 저는 거기서 녀자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선생님을 알고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반갑습니다.》

얼굴을 쳐들고 처음으로 나를 쳐다볼 때 녀인의 눈동자에 비끼던 그 생동한 열정의 빛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였는지 나는 비로소 리해하였다. 어쨌든 액목과 같은 백사지에서 길림시절의 녀자중학교 학생을 만난다는것은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길림이라는 그 한마디의 말은 불현듯 내 가슴속에서 향수에 가까운 짜릿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나는 나를 몇해동안 비끄러매두었던 그 도시에 깊은 정을 두고있었다.

부인은 내 얼굴에 피여오르는 옛시절의 추억을 읽자 한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성주선생님도 길회선철도부설반대 깜빠니야가 벌어지던 1928년 가을을 잊지 않으셨겠지요? 그 가을에 길림은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잘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저도 그때는 학생시위운동에 참가했습니다. 성의회마당에서 성주선생님의 연설을 듣던 일이 눈앞에 선합니다.…》

지난날 시위대렬에서 구호를 웨치던 길림녀자중학교 학생, 그러나 오늘은 여우털외투로 몸을 감싸고 호송병의 호위를 받으며 친정집나들이를 다니는 련대장부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리였다.

나는 심한 격세의 느낌을 받으며 련대장의 안해를 새삼스럽게 뜯어보았다. 어제까지 반일을 하던 녀성이 오늘은 친일의 렬차에 오른것이다. 무엇이 이 녀자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였다. 자기 민족의 운명에 대한 절망으로 하여 생겨난 타락이겠는가. 그러나 나는 길림시절을 회고하는 그 녀성의 절절한 표정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반일을 하던 그전날에 대한 미련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그는 우리앞에서 눈물로 자신을 회개했고 수치를 무릅쓰고 녀학생시절을 추억하였다. 이 녀자가 무엇때문에 나를 보는 순간 그리도 놀라고 전률을 일으켰겠는가. 그것은 량심앞에서 느낀 공포였을것이다.

《성주선생님, 왜 말씀이 없으세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선생님이 연설을 하실 때 주먹을 들고 호응했던 그 소녀가 글쎄… 이렇게 군복을 입고 고생하는 성주선생님을 보니… 감개무량하고… 저는 부끄럽습니다.》

부인의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였다.

《부인, 진정하시오. 자기를 너무 비하하면 안됩니

다. 그런 절망, 그런 자포자기의 세계에 빠지기에는 시국이 너무도 준엄합니다. 안팎의 정세는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중화의 모든 아들딸들과 지성인들을 항일구국의 광장으로 부르고있습니다. 련대장의 안해가 되였다고 해서 항일을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자 녀인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쳐들었다.

《그렇다면 저의 처지에서도 항일을 할수 있는 출로가 있단말입니까?》

《있지요. 부인이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그가 혁명군을 〈토벌〉하지 않게만 하여도 그것은 곧 항일을 위해 공헌하는것으로 됩니다. 털어놓고 말해서 위만군련대장이면 작지 않은 벼슬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벼슬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자기가 중국사람이라는것을 잊지 않는데 있습니다.》

《저의 남편도 련대장이기는 하지만 그 노릇을 하고싶어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이도 민족적량심만은 깊이 간직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성주선생님 말씀대로 남편을 잘 설복해서 유격대〈토벌〉에 부하들을 내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련대장이 친일로부터 반일로 방향전환을 한다는것은 그 수하의 부하들도 애국의 길을 걷는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 부인과 부인 남편되는분의 재생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날 간도에서 위만군장교로 복무하던 사람들이 친일로부터 항일로 방향전환을 한 사실들에 대하여 이것저것 소개하면서 녀인에게 신심을 주었다.

녀인은 오늘 성주선생을 만나게 된것은 하늘이 나에게 준 복이다, 선생의 말을 듣고보니 생각되는바가 많다, 선생이 오늘 나에게 길림시절의 넋을 되찾아주고 우리 부부를 재생의 길로 인도해준셈이다, 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중화민족의 딸답게 살겠다는 결의를 다지였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만든 선전물과 송경령, 장내기 등이 상해에서 발표한 항일구국 6대강령도 보여주었다. 1차 북만원정때 녕안에 있던 주보중의 산막에서 오평이 보여준 바로 그 6대강령이였다.

련대장의 안해는 시계를 들여다보고 품속을 뒤지더니 흰종이에 싼 물건을 내앞에 내놓았다. 그것은 중국지폐였다. 아편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면서 군자금으로 써달라고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그의 성의가 고마왔으나 받을수가 없었다.

《그 돈은 도로 간수하시오. 나는 오늘 잃었던 반일학우를 다시 얻었으니 그것만 해도 큰 재산을 받은것 같습니다.》

련대장의 안해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다.

우리는 헤여지기전에 저녁상을 푸짐히 차리여 위만군련대장의 부인에게 대접하였다. 그 녀인이 지주집을 떠나가면서 나에게 대준 성명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요행 남아있는것은 《지》라는 성뿐이다. 아쉽게도 나는 그 녀자의 이름을 잊어버리였다.

얼마후 우리는 위만군련대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당신들은 세상에 더없이 고귀한 사람들이다, 나의 안해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여 애국의 길을 걷게 한 당신들을 나는 결초보은의 각오를 가지고 도와줄 결심이다, 이러루한 내용을 담은 장문의 편지였는데 필치가 아주 비장하였다. 그 련대장의 이름도 《장》 무엇이라고 하였는데 기억이 삭막하다.

그후 우리는 음력설준비를 하느라고 액목현성근처에 군수관을 파견하였다. 그는 언돼지고기를 비롯하여 설음식준비에 필요한 여러가지 물자들을 구입하느라고 시가지에까지 들어갔다가 과업을 채 수행하지 못한채 현경찰에 붙잡히였다. 이 소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위만군련대장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련대장은 경찰서에 인민혁명군은 군대가 관계하는것만큼 군수관을 넘겨달라고 하였다.

처음에 군수관은 위만군련대장이 자기를 데리고 가서 죽일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련대장은 안해를 시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군수관을 귀빈으로 환대해주었다. 그는 김사령부대가 자기 안해를 잘 도와주어 감사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어떤 정황에 놓이든지 당신들을 《토벌》하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담보하는것이니 내 말을 믿어도 좋다, 당신네 부대를 만나면 공중에 대고 총을 세방 쏘겠으니 그럴 때에는 우리 부대인줄 알고 못본척하고 지나가라, 내 죽더라도 김사령의 은혜만은 잊을수 없다, 김사령한테 충심으로 되는 나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였다.

군수관에게 말한대로 위만군련대장은 그후 우리와의 약속을 잘 지켰다.

☆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친교관계가 깊어지게 되자 장련대장은 원정대앞으로 돼지고기와 교즈를 비롯한 많은 후방물자를 보내주었으며 나중에는 무기도 보내주고 정보자료까지 제공해주었다.

얼마후 화전으로 이동된 련대장은 위중민과 련계를 가지다가 그가 전사하게 되자 1941년에 린접부대인 13련대장과 함께 항일혁명군에 편입할 의사를 표명하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열하지방으로 다시 조동되게 되자 거사를 이루지 못하고 후임련대장을 잘 교양하여 반일의 길을 걷도록 하였다.

대일작전시의 위만군의 붕괴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그 부대들이 결정적인 시기에 일제에 대한 반기를 들고 나섰다고 한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장련대장에 대한 회고의 마지막부분을 이렇게 맺으시였다.

《나는 액목에서 사귄 위만군련대장의 생사안위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고있다. 그러나 련대장자신은 물론이요, 그의 부인이나 후손들도 어디엔가 살아있다면 자기 조국과 중화민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으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수필

한장의 전보문에서

온 강산에 풍만한 가을의 향취가 한껏 어려있던 지난 10월 어느날, 길가에서 나는 뜻하지 않게 언제인가 취재길에서 낯을 익힌적있는 서성구역 하신동에 사는 김보비아주머니를 만났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그는 같이 가던 일행을 나에게 소개해주었다.

늙으신 시어머니와 아들 혁이, 인민반장이 그와 동행하고있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무슨 경사라도 있는듯 기쁨이 한껏 실려있었다.

나는 무슨 일로 어디로 가기에 이렇게들 거리에 나섰는가고 물었다.

《혁이 아버지한테서 전보를 받고 평양역엘…》

수집은 미소를 지으며 하는 혁이 어머니의 대답이였다.

(무슨 전보이기에 늙으신 어머니와 인민반장까지 따라나섰을가?)

이런 생각에 잠기는데 《아저씨…》하며 혁이가 전보문을 내보이는것이였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다.

《15일 충혁, 효혁, 일혁, 심혁이를 데리고 평양역 도착. 마중요함》

그 전보문은 나로 하여금 많은것을 생각케 하였다.

(이 집에는 아들딸 둘뿐인데 웬 아이를 넷씩이나 데리고 온단말인가? 혹시 일가친척들중…)

리해가 되지 않아 나는 의혹의 눈길을 그들에게 던지였다.

그런 나의 심정을 헤아려본듯 인민반장이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주는것이였다.

부모없이 애육원에서 자라는 네 아이를 집에 데려다 친부모의 사랑을 부어주며 나라의 충성동이, 효자동이로 키우자고 가정에서 토론하고 혁이 아버지가 아이들 이름까지 새로 지어가지고 그애들을 데려온다는것이였다.

순간 나의 가슴은 후더워지였다.

(이 가정이 그토록 뜨거운 마음들을 지니고있는 사람들이란말인가?)

참으로 혁이네 일가족이 더없이 돋보이는것이였다.

그것은 화상당한 한 어린이를 구원하기 위해 수백명의 낯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살점을 떼여주고 피를 나누어주며 얼음구멍에 빠진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그런 거룩한 희생성이 평범한 도덕으로 간주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그들이 또 인간사랑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들의 아름다운 소행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나는 진심으로 그들을 축하해주고 헤여졌다.

하지만 전보문의 내용은 나의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충혁, 효혁, 일혁, 심혁》

전보문의 내용을 다시한번 음미해보니 거기에는 실로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상 싶었다.

그 이름들의 첫 글자를 따서 모아보니 《충효일심》이라는 단어가 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인민을 하늘처럼 믿으시고 끝없이 아끼시며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고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우러러 받들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사는 우리 인민의 충효일심과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빛내여나가려는 이 가정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들이 그대로 응집된것이 아니겠는가.

《충효일심》

전보문의 내용은 비록 짧아도 거기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새 세대들이 양로원의 늙은이들(그들은 물론 국가적혜택을 받으며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을 모르고 여생을 보내고있다.)을 자기네 집에 데려다 단란한 가정생활의 기쁨과 즐거움, 혈육의 살틀한 정을 함께 나누는것이 하나의 사회적 도덕으로, 기풍으로 되고있다.

대성구역 룡흥2동에 살고있는 최혜숙아주머니는 76살의 최용녀할머니와 71살의 김옥식할머니를 데려다 친정어머니처럼 잘 모시고 살며 안주시 동흥리 42인민반에 살고있는 리승해, 김인숙부부는 3명의 늙은이를 양로원에서 데려다가 친자식된 심정으로 돌보고있다.

그런가 하면 한 기업소의 방송원처녀는 부모잃은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였고 개성의 한 젊은 부부는 여러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되였다.

의지가지할데 없는 아이들과 늙은이들을 데려다가 친혈육의 정을 나누며 화목하게 사는것이 하나의 사회적도덕으로 활짝 꽃펴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이것은 늙은 부모가 짐이 된다고 자루속에 넣어 외진곳에 버리거나 몇푼의 딸라를 위해서 그리고 생활에 재미가 없다고 자기 자식을 팔거나 내버리는 비인간적인 행위가 판을 치는 사회와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최근 남조선의 한 방송은 괴뢰륙군 대령이 자기 어머니를 자루속에 넣어 외진곳에 버린 사실을 전했고 남조선의 한 신문은 《자식이 자기를 낳은 부모를 귀찮다고 하여 마구 버리게까지 되였으니 이 사회에 과연 즙이 있는가…》라고 개탄하였다.

상온체인 사람은 얼음보다 불을 좋아하고 불을 떠나서는 살지 못한다.

사람에게 불못지 않게 귀중한것은 인정이다. 불은 사람의 몸을 덥혀주고 인정은 사람의 마음을 덥혀주기때문이다.

불같은 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덥혀주고 뜨겁게 달구어주는 그런 사회야말로 인간이 사는 참사회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리 갑 송

인민의 지도자

전사의 곁으로

혁명렬사의 아들인 심창완은 만경대혁명학원을 다니던 소년시절부터 줄곧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있으면서 그이의 따뜻한 손길속에 사회안전부 책임일군으로까지 성장한 사람이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가 불의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였다. 그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묘향산지구를 현지지도하고계시였다.

가슴에이는 비보를 안고 한 일군이 묘향산으로 달려갔다.

《뭐요?! 심창완동무가 잘못되였다고? 그게 무슨 소리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비보를 가지고 집무실에 들어선 일군에게 추궁하듯 반문하시였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시는듯, 아니면 일군의 보고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몇번이고 되물어보시는 그이의 안색은 순간에 깊은 수심과 비애 속에 잠기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오늘은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평양으로 갑시다.》

가슴속에 고인 슬픔의 눈물처럼 창밖에선 비가 사정없이 내리붓고있었다.

일군들이 평양으로 가는 길을 알아보고 그이께 말씀올렸다.

번개때문에 직승기도 뜰수 없고 기본도로까지 큰물에 잠기여 자동차로도 갈수 없다는것이였다. 그리고 우회길이 하나 있는데 철교를 건너야 한다는것이였다.

《철교? 철교라도 건너갑시다. 우리에게 그처럼 충실했던 전사가 쓰러져 누워있는데 살아있는 우리들이 철교야 못건너가겠습니까, 갑시다. 평양에서 자동차를 오라고 하시오. 자동차가 올수 있는데까지 와서 기다리라고 하시오.…》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폭우속으로 선뜻 나서시였다.

도보행군이 시작되였다.

한 5리가량 지나서 높이 20메터, 길이 100메터 정도되는 협궤철교가 나타났다. 아찔하게 내려다보이는 강바닥에는 불어난 시뻘건 흙탕물이 타래를 치며 사정없이 흘러가고있었다.

전사들은 모두다 돌아가자고 애원하듯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일없습니다. 모두 내 뒤를 따라 덤비지 말고 침착하게 건너오시오.…》**라고 하시며 철교에 들어서시였다.

수원들은 가슴을 조이며 그이의 앞뒤에 서서 한발자국한발자국 걸음을 옮기였다.

드디여 그이께서 강건너 대안에 이르시였을 때 일군들의 입속에서는 긴 숨소리가 새여나왔다.

도보행군은 계속되였다.

북현마을이 나타났다.

마을을 벗어나니 길이 없어졌다. 패이고 물에 잠긴것이다.

그이께서는 앞에서 길이 없어 머뭇거리는 일군들을 보시고 **《할수 없지, 강냉이밭으로라도 가야지.》**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발목이 빠지는 강냉이밭을 한고랑한고랑씩 저겨디디며 걸어가시였다.

강냉이밭을 지나니 사품치는 강물이 앞을 막았다. 벌써 날은 어두워져 사위는 사품치는 강물소리밖에 들리는것이 없었다.

어느 길로 갈것인가? 일군들이 모두 망설이고있는데 그이께서는 **《철길로 갑시다. 이 철길이 평양으로 가는 철길이니 계속 가느라면 어쨌든 길이 나설게 아닙니까! 실망하지들 말고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하시며 철길뚝에 올라서시였다.

대낮도 아닌 한밤중에 침목을 밟으시며 걸으시자니 불편인들 오죽하시랴! 하지만 그이께서는 그 걸으시는 고생보다 사랑하는 전사를 잃은 슬픔이 더욱 크시여 괴로와하시는것이였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단말이요? 사람의 운명이란 정말 모르겠구만!》

그이께서 걸으시면서 벌써 몇번째 외우시는 말씀이였다.

당이 의도하는것이라면 밤이 열이라도 해내고야마는 절대성과 무조건성의 정신이 투철한 그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언제나 《척후》가 되여 안전을 보장한 그였다.

그이께서는 사랑하는 전사에 대한 생각으로 침목 하나를 밟고 넘으시고 다시 넘으실 때마다 그의 지나온 나날들을 한가지씩 회고하시였다.

이윽고 자동차가 와서 대기하고있다는 신호가 왔다. 그이께서 수십리 험한 길을 걸어오시는것을 알고 운전사들이 정신없이 달려왔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운전사들이 자동차를 몰아서는 성차지 않으시다고 자신께서 직접 운전대를 쥐시고 최대시속으로 평양에 도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사의 령구앞에 서시여 고이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시였다.

더이상 비통한 심정을 누르기 괴로우신듯 그이께서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시며 돌아서시였다.

추도곡이 가슴을 허비듯 울렸다. 전사들의 얼굴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충직한 전사는 비록 숨졌지만 그는 죽어서도 평소의 소원대로 그이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으며 그이의 바다같이 넓은 추억의 세계속에 영원히 살아있는것이다.

백두광명성전설

지동이 일다

소화 19년이라고 하면 1944년이다.

강남갔던 제비가 해묵은 제 둥지로 날아오고 꽃이 만발하게 피여나는 봄은 찾아왔다.

그러나 이해 봄 일본의 124대 천황 히로히토는 마음이 졸갑지 못했으니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자주 한숨이 새여나왔다.

일본은 지금 날이 갈수록 더욱더 궁지에 빠지고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수 있을가? 천황은 줄곧 이 생각뿐이였다.

아마데라스 오미까미(천조대신)도 기울어져가는 《대일본제국》의 운명을 어쩌지 못하는 모양이였다.

천황은 일본에 닥친 불행의 화근이 조선에 있는것이 아닐가 생각하였다.

조선총독부와 관동군사령부에서 보내온 밀보(비밀보고)들을 보면 모두 기상천외한것들이기때문이였다.

《대일본제국》에 선전포고를 한 백두산대장수 **김일성**장군의 항일유격대는 천지조화를 일으키고 천변만화하는 술법을 써서 100만관동군이 고양이앞의 쥐처럼 꼼짝 못한다는것이였다. 항일유격대를 추격하던 《황군》이 갑자기 땅이 갈라지는 바람에 몇천명씩 그속에 빠져 무리죽음 당하는가 하면 바위돌로 굳어지게 한다고도 하였다. 또 어느날 밤에는 멀쩡하던 놈들이 백두산에 새로 솟은 새별에서 내뿜는 빛을 보자 모두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되여버렸다는것이였다.

조선총독과 관동군사령관은 우는 소리를 했다. 축지법을 쓰고 풍운조화를 부리는 **김일성**장군 항일유격대는 오직 《하늘의 아들》인 천황만이 맞서볼수 있다고 하였다.

보고를 읽고난 천황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한번 가보고싶은 생각이 불쑥 들었다. 천황이라는 거룩한 체면도 건사할 겨를이 없었던것이다.

궁내부대신은 천황이 조선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듣더니 깜짝 놀라며 만류하였다.

그래도 굳이 다녀오겠다는 천황의 말에 그는 《조선에 가신다는것은 실로 위험천만한 일이옵니다. 지금 조선에선 날마다 하오 4시가 되면 지동이 이는데 심상치 않은 일인줄로 아옵니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펄쩍 놀랐다.

《지동이 일다니? 조선에 지진이 인단말이냐?》

《지진은 아니옵니다. 그 지동은 조선의 성산 백두산에서부터 뻗어나오는데 반도인들은 국운이 열릴 조짐이라고 모두 기뻐하고있습니다.》

《국운이 열리다니? 좀 자상히 말해봐라.》

천황은 안달이 났다.

《예, 하오 4시이후엔 먼저 백두산이 있는 함북도땅에 지동이 일고 그 다음엔 함남도와 평북도 땅이 흔들리고 차례로 평남도와 황해도, 강원도 땅이 움직인다고 하옵니다. 그러니 폐하의 안녕을 어찌 담보할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들은 천황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누구든 조선에 보내여 사실을 알아오라고 하였다.

어지를 받은 천황의 동생은 다음날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그날 하오 4시가 좀 지나자 우르릉 하고 땅이 울리는 소리가 나더니 정말 경상도땅이 부르르 떨리였다. 지진은 아니였다.

더럭 겁이 난 그는 그길로 뺑소니를 쳐서 궁성으로 돌아오고말았다.

동생에게서 사실을 전해듣고 골머리를 앓던 천황은 그날밤 갑자기 붉은 기운이 궁성에 어리여 불이 타오르는것 같은것을 보자 상서롭지 못하게 생각되여 더 견딜수가 없었다.

몇명 안되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남모르게 궁성을 떠난 그는 백두산에서 제일 먼 제주도부터 가보자고 하였다.

제주도에 간 천황은 질겁하지 않을수 없었다. 바로 그 시간에 웅—하는 소리와 함께 드르릉 하고 지동이 일었던것이였다.

당황하여 그시로 돌아온 천황은 꾀많은 한 신하를 불러들여 지동이 이는 원인을 알아오라고 명령하였다.

로인으로, 아이로, 때로는 아낙네로까지 변장하고 다니며 귀를 기울이였으나 백두산장군별곁에 새로 모성과 자성이 나타나 그 삼태성이 광휘로운 빛을 뿌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지동이 일군한다는것밖에 더 알수가 없었다.

신하의 말을 들은 천황은 전률하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뭣이? 백두산에 삼태성이 떴다구?》

백두산에 장군별이 뜨자 궁성의 유리창이 깨지고 기와장이 날아나던 일이 삼삼히 떠올랐다.

실은 그때부터 《대일본제국》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것이다.

이제는 망했다는 생각을 하며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저멀리 백두산쪽 하늘에서 유난히 밝은 세개의 큰 별이 명멸하고있었다.

천황은 저도모르게 목을 움츠렸다. 그리고는 긴급 《어전회의》를 열어놓고 이른바 《2천년래의 국난을 타개》하기 위한 꿍꿍이를 하였다.

그러나 이놈도 어쩌는수가 없어 일제는 한해가 지나 망하고야말았다.

우리 인민들은 백두산밀영이 개영된후 고향집안에 있는 쪽무이지도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오래전부터 전해져내려오던 이 전설을 마무리하게 되였다.

일제말기 우리 나라 땅에 때없이 지동이 일군한것은 그때마다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쪽무이지도를 가지고 지도놀이를 하셨기때문이라는것이다.

함북도지도쪽을 쥐시면 함북도땅에 지동이 일고 평남도지도쪽을 만지시면 평남도땅이 움씰했다고 한다.

천하술법을 다 지니고 탄생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듯 어린 시절부터 천지조화를 부리시였다는것이다.

민족대단결과 《범민련》

단결은 인간고유의 생존방식이다.

단결된 민족은 흥하고 흩어진 민족은 쇠퇴와 지리멸렬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

우리가 이룩해야 할 단결은 그 어떤 부분적인 단결이 아니라 큰 단결, 민족의 대단결이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로 된다.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면 외세의 지배와 간섭책동을 물리칠수 있게 온 민족이 크게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안된다.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우리 민족의 위력은 다름아닌 단결의 위력인것이다.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자고 하여도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분렬이 대결을 낳고 대결이 긴장격화와 전쟁에로 줄달음치기 마련이라면 단결은 곧 화해이고 화해는 평화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다.

민족대단결은 또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본질적내용을 이루고 있다.

조국통일문제는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루는 문제이다.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는 문제가 아니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여 우세를 차지하는 승벽내기도 아니며 다같이 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북과 남이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화해하고 하나로 굳게 단결하는 문제라는데 통일문제의 본질적성격이 있는것이다.

지난 80년대말 90년대초에 이르러 통일운동은 온 겨레를 포괄하는 거족적운동으로 급격히 앙양되는 가운데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있었다.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이 하나로 모아져 대하를 이루는 가운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할 사명을 지닌 애국적인 통일운동련합조직으로서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이 출범한것은 거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통일애국에 뜻을 같이하는 해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조직들, 각계각층 동포들이 하나의 대오에 조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민족적단결을 공고히 할수 있게 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행동의 통일성과 일치성을 보장할수 있게 된것이야말로 민족대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사변적의의를 가지는것이다.

결성된지 4년밖에 안되지만 《범민련》은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 통일운동조직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고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으며 지역본부들간의 긴밀한 련계와 접촉, 대화를 발전시켜 통일운동을 명실공히 범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오늘 조성된 내외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범민련》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운동을 일층 강화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무엇보다도 《범민련》조직들은 동포대중을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지만 서로 다른 사상과 사회정치제도로 갈라져 살고있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결집시키자면 그들을 민족애와 민족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는 일을 앞세워야 한다.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사는 동포들은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역땅 어느곳에 문패를 걸고 살든지 다 하나된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범민련》조직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범민련》조직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북과 남, 해외로 갈라져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상과 리념, 신앙이 다르다고 하여 서로 배척하고 이단시한다면 민족을 사분오렬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민족이 사분오렬되면 우리 조국을 분단시킨 외세에게 리득을 주고 그 롱락물이 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할수 없으며 따라서 언제가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실현할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로막는 온갖 정치적,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범민련》조직들은 통일운동의 실천투쟁속에서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은 말로써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온 겨레가 사상의지적으로 보다 큰 하나로 되는것일뿐아니라 실천행동적이고 조직적인 큰 하나로 되는것인만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뜻을 합치고 힘을 합쳐 공동행동을 벌려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공고화되는것이다.

《범민련》조직들과 해내외의 모든 동포들은 북남합의문건리행의 강력한 추동자가 되여 그것이 전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훌륭히 실천되도록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야 할것이다.

이제 조국통일은 지평선우에 다가오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 서로 어깨겯고 발걸음을 맞추어나갈 때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은 더는 버티여내지 못할것이며 통일의 대문은 드디여 열릴것이다.

렬사의 자손들이 들려준 이야기

독자들은 본지 《금수강산》 1992년 6월호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남조선 지리산에서 싸우다가 희생된 공화국영웅들인 강규찬, 고진희 부부에 대하여 소개한 기사를 기억하고있을것이다.

렬사와 그 혈육들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어하는 해외동포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전 평양시 만경대구역 당상1동에서 살고있는 이들의 셋째아들 강석진의 집을 찾았다.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말하자 선박공업부 과장으로 일하는 석진이 자기 소개를 하며 반겨맞았다.

건장한 체구를 가진 50대의 일군, 그의 눈언저리는 사진에서 본 강규찬의 모습을 방불케 하였다.

마침 일요일이여서 집에는 석진의 안해 려금주도 있었고 보통강구역 서장동에서 살고있는 고진희의 동생 고영미도 와있었다. 옆방에서는 석진의 아들딸들인 평양 경공업대학 4학년생인 경희와 평양 광복거리고등중학교에 다니는 경옥, 철훈이들이 공부를 하고있었다.

아담한 방들과 가구들, 품위있게 꾸려진 장식들, 첫 인상에도 불편없이 단란하게 사는 가정적분위기가 느껴졌다.

우리의 대화는 석진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였다.

석진의 아버지 강규찬, 어머니 고진희는 조선남해의 제주도태생들이다. 그들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여나 소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생활고에 시달렸고 성장과정에 나라잃은 망국노의 설음을 뼈에 사무치게 느껴왔다. 하기에 해방후 그들은 고향땅에서 진정한 인민정권기관을 꾸리기 위해 애썼으며 1948년 남조선에서 강행된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투쟁의 앞장에서 동분서주하기도 하였다. 제주도인민항쟁은 원쑤들에게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다.

그후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온 그들부부는 1948년 8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그리고 강규찬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고진희는 평양시인민위원회에서 사업하였다.

남조선혁명가들인 그들부부에 대한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사랑은 각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 참가한 그들을 회의장 휴계실에서 친히 만나주시고 제주도의 부부대의원들이 장하다고 못내 대견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후 제주도에서 평양으로 올 때 데려오지 못한 자식들때문에 마음쓰는것을 헤아리시고는 고진희를 보내여 데려오게 하시였고 열병으로 앓고있던 둘째아들 희진은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도록 해주시였으며 대동강기슭에 아담한 살림집도 마련해주시였다.

장군님께 충실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희진의 병이 나았다는것을 아시고는 몸을 추세워주라고 하시면서 인삼과 닭을 보내주시고 새 집들이를 할 때에는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가장집물과 새 이부자리, 쌀과 부식물까지 보내주시였다. 그 며칠후 그들의 집을 찾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정황이 위급하여 제주도에서 데려오지 못하여 살벌한 땅에 홀로 남게 된 철부지 어린 딸을 두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마음쓰시였다. 그이께서는 그후에도 고진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새 과업도 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1950년 6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에 의하여 전쟁이 일어나자 그들은 손에 총을 잡았으며 남진하는 인민군대를 뒤따랐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대오와 떨어지게 된 그들은 지리산에 들어가 유격투쟁을 벌리였다. 그러던 강규찬은 1951년초 적들과의 격전끝에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간악한 원쑤들은 그의 시신에서 머리를 떼내여 차에 싣고다니면서 《반공》선전에 리용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로부터 한달후 변절자의 밀고로 고진희도 체포되였다. 자기의 깨끗한 몸이 원쑤들의 손에 더럽혀지는것을 바라지 않았던 그는 감방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들은 준엄한 전화의 나날 장군님과 김정숙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늘 가슴에 품고 싸웠으며 최후의 순간에도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며 신념과 의리를 지켜 싸운 혁명가들이였다.

강규찬, 고진희는 지금 우리 곁에



강규찬렬사의 자손들

없다. 그들의 한생은 너무도 짧았다.

하지만 렬사는 갔어도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석진의 부모들에게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강규찬, 고진히에게는 각각 공화국영웅칭호가 수여되고 강규찬에게는 《조국통일상》까지 수여되였다. 그리고 신미리애국렬사릉에는 그들의 합장묘와 묘비까지 세워졌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군의 야수적폭격으로 석진의 부모의 사진은 모조리 불타버렸다. 어느 한 출판물에 실린 기사에는 고진히의 사진이 없어 소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일본 오사까에 있는 한 해외동포가 보내준 강규찬의 사진만 실었다고 썼다. 그후 고진히의 사진을 보고싶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모아 화가들은 진지한 탐구와 노력으로 그의 생전의 모습도 초상으로 그리게 되였다.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와 오똑한 코, 꼭 다문 입…

단발의 머리카락을 날리며 싸우던 《제주도 녀걸》 고진히의 모습은 이렇게 재현되여 세상에 다시 나타나게 되였던것이다.

언니의 초상을 본 영미는 이렇게 말했다.

《이마와 눈, 코, 입은 언니의 모습과 신통합니다.》

렬사에 대한 사랑은 그 혈육들에게도 끝없이 이어졌다.

강규찬, 고진히가 희생된 그 시기 조국은 전쟁의 시련을 겪고있었지만 나라에서는 그들의 자식들인 희진과 석진을 다른 나라에 보내여 공부하게 하였고 전후 조국에 데려온후에도 체계적으로 배우도록 하였다. 그 나날에 희진은 장철구대학을, 석진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였다.

세월은 흘러 렬사의 자식들도 50대의 나이에 이르렀다. 희생된 부모의 사진조차도 없고 더구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란 말조차 모르고 자라온 렬사의 자손들!

하지만 그들에게는 친부모도 줄수 없는 따뜻한 사랑이 항상 포근히 감싸주고있었다.

1992년 가을 전국렬사가족대회에 참가하였던 석진은 대회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그 이듬해인 1993년 1월 어느날 수령님께서는 오찬회석상에 그들형제를 불러주시였다. 그들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신 그이께서는 오늘 이렇게 만나니 매우 반갑다고, 인차 음력설이 있고해서 불렀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우리는 미제와 싸워이긴 경험도 있다, 남의 눈치를 볼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혁명가유자녀들이 일을 더 잘할데 대한 뜻깊은 가르침을 주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였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시면서 그들형제에게 부모들이 혁명을 잘한것처럼 최고사령관동지를 잘 받들어모시고 손자, 그 다음 손자대에까지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지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언감자를 많이 먹었다고 하시면서 언감자국수를 많이 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자애깊으신 친어버이사랑에 접한 그들형제는 수령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량옆에 세우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선물까지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큰절을 올리고 떠나면서 그들형제는 아버지, 어머니가 **김일성**장군님께 충실했던것처럼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혁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불타는 맹세를 심장으로 다지였다.

현재 희진과 석진은 중앙기관들에서 나라에 애국충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용감히 싸웠던 석진의 맏형 강공진은 의학부문의 과학연구기관에서 일하다가 10여년전에 불치의 병으로 운명하였지만 형수 한경숙은 지금 큰 병원의 약국에서 일하고있고 네딸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뜻대로 맡은 초소를 잘 지켜가고있다.

석진에게는 해방후 《동아일보》 제주도지부 특파기자의 직분을 가지고 활동한 외삼촌 고봉효가 있었다. 그때 제주신보 4면에 까마귀그림이 그려지고 《까욱》하는 만평이 실렸는데 그 기사의 담당자가 바로 고봉효였다.

매부와 누님의 혁명투쟁을 적극 도와준 그는 변절자의 밀고로 적들에게 체포되여 야만적인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류창한 언변으로 완강히 저항하여 원쑤들을 전률케 하였다. 악에 받친 놈들은 그의 하악골을 강제로 비틀어 뽑았으며 배에 싣고 바다에 나가 총살한 다음 돌을 매달아 바다에 처넣는 귀축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최근 나라에서는 그에게도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었고 두 자식들에게도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었다.

18살때 언니를 따라 38선을 넘어왔던 고영미는 김정숙동지의 생전의 뜻대로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평안북도 구성시의 한 학교에서 오래동안 교원으로 일해왔다. 그가 년로보장을 받고있다는것을 아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평양에서 여생을 즐기도록 대책을 취해주시였다.

석진의 맏딸 경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추석날 애국렬사릉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소를 찾은 우리는 1951년 겨울 지리산에서 할아버지의 피에 젖은 시신을 언땅에 묻고 막걸리 한병을 부어드리던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술을 부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셨지만 친애하는 그이의 은정속에서 영생하고있습니다.》

다만 괴로운것은 남조선 제주도에 떨어진 석진이 누이의 소식을 모르는것이다. 혹시 살아있어 조국통일의 그날 만났으면 얼마나 좋으랴만 그런 행운을 과연 기대할수 있겠는지.

《위인의 품에 안겨야 렬사들도 영생하고 그 자손들의 삶도 빛나는것이다.》

렬사의 자손들은 자신의 체험을 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본사기자 로명준

[주체사상학습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9)

세계에는 200여개의 나라들이 있다. 그 모든 나라들은 자연지리적조건에서나 생활풍습, 사회발전수준에서 이러저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들에서 벌어지고있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도 다양한 형태로 민족적특성을 가지고 벌어지고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미 착취와 압박이 청산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으며 또 어떤 나라들에서는 식민지제도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이 진행되고있다.

그러면 서로 다른 구체적조건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벌어지고있는 자주성을 위한 매개 나라의 혁명투쟁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은 국제적성격을 띠고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민족국가단위로 여러가지 형태로 진행되지만 국제적성격을 띠고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국제적성격을 띠고있다는것은 매개 나라 혁명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면서도 세계혁명의 한 고리라는것 그리고 매개 나라 혁명은 서로 지지하며 보충하는 관계에 있다는것이다. 그래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인류공동의 위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왜 국제적성격을 띠게 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제국주의세력이 국제적으로 련합되여있기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 인민들을 지배하고 략탈하기 위해서 흔히 련합을 형성한다. 물론 제국주의자들은 더 많은 돈벌이를 위해서 경쟁하는만큼 그들사이에는 모순이 있고 때로는 서로 물고뜯기도 한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은 그래서 일어난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공통적인 리해관계를 가지는데서 특히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는데서 련합을 형성한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그것이 비단 그 나라를 지배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에게만 위협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다른 제국주의나라들에도 위협으로 되기때문이다.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은 때에 따라 저희들끼리 개싸움을 하지만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벌어질 때는 례외없이 련합한다.

로씨야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제국주의련합세력이 무력간섭을 한 사실, 에스빠냐의 합법적인 인민전선정부를 반대하여 프랑꼬도당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파쑈 독일과 이딸리아가 로골적인 무장간섭을 감행한 사실이 그를 실증해주고있다.

이처럼 제국주의자들이 국제적으로 련합되여있는 조건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도 국제적성격을 띠지 않을수 없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국제적성격을 띠게 되는것은 또한 어제날의 피압박 민족들과 인민들이 력사적처지와 리해관계에서 공통성을 가지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어제날의 피압박 민족들과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자주권을 빼앗긴것으로 하여 다같은 식민지노예의 처지에 놓여있었다. 때문에 그런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며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려는 공통된 지향과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은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위업으로 되게 된다.

사실 지금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반제자주를 위한 하나의 투쟁전선에 결합되여있으며 세계혁명이라는 하나의 거창한 흐름에 융합되여있다.

따라서 반제자주위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나라, 모든 인민들이 단결해야 한다.

단결이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라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오랜 투쟁에서 인민대중이 피로써 얻은 교훈이다.

로동계급의 투쟁의 무기로서의 단결의 구호는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창되였다.

그들이 제창한 단결의 구호는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국제적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세월의 그 흐름속에서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도 발전하였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전세계적범위로 확대되고 이 투쟁에는 로동계급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자주성을 유린당하고있는 모든 인민들이 망라되게 되였다. 그렇게 되자 제국주의자들은 분할통치의 수법으로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 모든 인민들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쐐기를 박고 분쟁을 일으키고있다. 따라서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술책에 넘어가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싸우지 말아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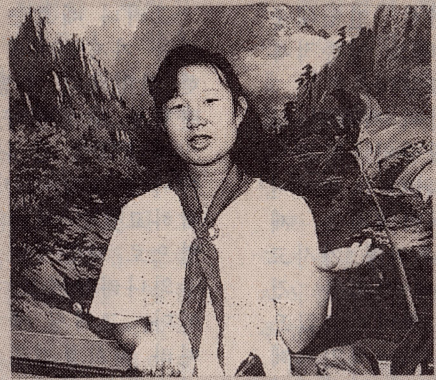
그러면 어떤 기치밑에 단결할것인가.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을 하나로 굳게 단결시킬수 있는 기치는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라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장본인은 예나 지금이나 제국주의자들이다. 따라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지 않고서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없다. 그러므로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추켜들어야 할 단결의 기치는 바로 반제자주의 기치로 된다.

인상기묶음

조국을 잊지 않겠어요



저는 이국땅에서 태여났어요. 그래서 조국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다만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우리 나라는 산좋고 물이 맑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는 말을 동화에서 나오는 옛말처럼 듣군했어요.

언제면 나도 아버지(남수남)처럼 조국에 한번 가볼수 있을가 하고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는 영광스럽게도 재중동포소년야영단 성원으로 뽑히여 조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지였어요.

우리들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조국의 동무들과 함께 로씨야, 기네, 인도, 유고슬라비아, 벨라루씨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어린이들과 피부와 언어는 달라도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며 재미나게 놀았어요.

웃음속에, 노래속에 흘러간 10여일간의 야영생활을 끝마치고 우리들은 조국의 수도 평양에서 만경대, 주체사상탑, 개선문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했어요.

평양은 우리 아버지가 늘 이야기하던것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우리들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했는데 여기에는 음악, 무용, 미술, 수예, 물리, 화학, 생물 소조실 등 어린이들의 과외활동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현대적으로 훌륭하게 꾸려져있었어요.

우리들은 여기서 여러가지 재미나는 조선 노래와 춤도 배웠어요. 그리고 궁전소조원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도 구경했어요.

조국의 소년단원들은 모두가 재간둥이들이였어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며 악기도 잘 다루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명랑하고 친절한 좋은 동무들이였어요.

저는 이제 중국에 돌아가면 조국에 와서 배운 노래와 춤을 우리 동무들에게 배워줄래요. 그리고 조국방문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이야기해주어 우리 동무들이 조국을 더 잘 알게 하겠어요.

이번에 저희 야영단성원들을 인솔하고왔던 채순자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조국이란 참말로 귀중한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어머니조국을 잊지말고 살아야 한다는것을 심장깊이 새겨주었어요.

저는 언제나 고국을 잊지않고 조선의 말과 글을 더 잘 배워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중국 연길시 제10중학교 3학년 남려화

큰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고국에서 야영기간에 명산으로 널리 알려진 금강산에도 가보았습니다. 《곰바위》, 《범바위》, 《장수바위》, 《초대바위》, 《락타바위》등 만물상의 바위들은 신통히도 그 이름들과 꼭 같아보였어요.

골안이 떠나갈듯 울리며 요란하게 떨어지는 구룡폭포는 정말 대단했어요. 아득히 높은곳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올려다보느라면 금방 머리우에 떨어질것 같고 막 온몸을 휘감아당길것만 같았어요.

금강산을 돌아본 우리는 옛날 어느 왕이 하루동안 놀러왔다가 경치가 하도 좋아 삼일동안 놀고갔다고 하여 삼일포라 부른다는 호수도 돌아보았어요. 그 경치가 아름답기란 정말 이를데가 없었어요.

뻐스를 타고 야영소로 돌아오느라니 야, 나는 참으로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싸할린에는 류바, 스웨따를 비롯한 동포소년단원들이 많은데 나만이 고국의 아름다움을 보는 이런 행운이 차례졌으니말이예요. 자연히 어깨가 으쓱 올라가면서 동무들에게 자랑하고싶었습니다.

저는 동포들과의 사업을 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동포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어머니로부터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고국땅이 그렇게도 아름답고 살기 좋으며 특히 나라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실지로 아낌없는 혜택을 베풀고있는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번 야영을 통해서 고국에서는 미래의 주인공들인 어린이들에게 참으로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준다는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저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훌륭히 건설해주시고 해외동포소년단원들에게도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고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께 소년단원의 이름으로 큰절을 드리고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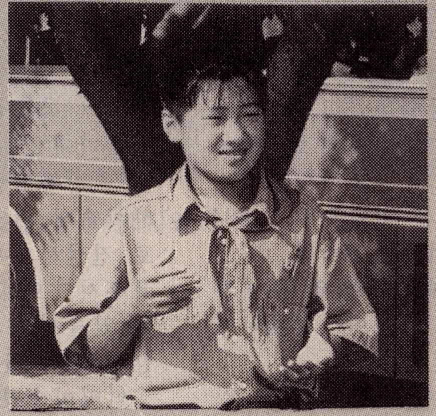
재로씨야동포소년야영단 리강순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는 고국의 경치좋은 바다가에 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해수욕과 등산도 하고 유희오락도 하면서 유쾌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싸할린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은 명승지로 이름난 고국의 송도원과 금강산에 몹시 와보고싶어한답니다. 그런데 14살밖에 안되는 제가 송도원과 금강산에서 열흘이상이나 야영생활을 하였으니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송도원은 저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소나무숲과 백사장, 맑고 푸른 바다며 야영소도 모두 멋있고 훌륭했습니다.

야영소의 선생님들은 멀리 해외에서 사는 동포소년들이 왔다고 몹시 반가와하며 우리를 잘 대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야영기간에 우리 또래의 고국소년들과 무척 친숙해졌습니다.

고국소년들은 모두가 마음이 착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생각해주었으며 좋은것은 우리에게 양보하군하였습니다.

처음엔 서먹서먹했던 우리들도 고국소년들의 명랑한 모습과 따뜻한 정에 끌리여 그들과 가까이 사귀였으며 함께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고국에 와서 이처럼 좋은 동무들을 알게 된것이 제일 기쁩니다.

선생님들은 우리는 서로 사는곳은 다르지만 피줄이 같은 조선사람이고 형제들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제집에 와있는 기분이였습니다.

야영기간이 끝나자 우리는 고국소년들과 헤여지기 싫어 부둥켜안고 막 울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잊지말자고,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며 붉은 넥타이를 서로 바꾸어 맸습니다.

다음해에도 여름방학을 꼭 고국에 와서 보내겠습니다.

재로씨야동포소년야영단 소래영

창창한 미래



저는 고국을 방문하여 학생을 가진 부모로서, 교육자로서 후대교육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습니다.

제가 사는 땅에서는 자본주의가 복귀되면서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없어져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구두닦이, 자동차청소, 장사 등을 하여 생활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데 낮을 돌리고있습니다.

그런데 평양의 가는곳마다에서 어린이들을 보니 모두가 하나같이 밝은 모습이였습니다.

단정한 학생옷차림에 씩씩하게 노래부르며 활기에 넘쳐 등교하는 학생들, 그들모두의 얼굴은 해빛같이 밝았고 그늘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방도시에 가보아도 길거리와 극장, 상점앞 그 어디에서나 생활전선에 나선 소년들과 집을 뛰쳐나와 빌어먹는 아이들을 볼래야 볼수 없었습니다.

그 연원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생각하던 저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보고 안개걷힌 가을날처럼 똑똑히 알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은 바로 나라에서 집과 쌀을 주고 무료로 건강을 보살펴주며 아이들을 공부시켜주는데다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후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고계시는데 그 연원이 있다는것을 말입니다.

그 사랑과 배려가 해빛이 되고 자양분이 되여 고국의 300만 소년단원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나라의 역군으로 자라나고있으니 고국의 미래야말로 얼마나 창창합니까. 그 창창한 고국의 미래를 본 저의 가슴은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끓어번지였습니다.

싸할린 고려학교 리정자

단일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

—단군릉을 개건—

국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우리 조선민족의 시조왕의 무덤인 단군릉이 력사적국보로 훌륭히 개건되였다.

수도 평양의 강동군 풍치수려한 대박산기슭의 명당자리에 45정보의 부지면적에 자리잡고있는 피라미드형돌무덤인 단군릉은 밑단 한변의 길이가 50m로서 정사각형을 이루고있으며 총높이가 22m이다.

올해에 세운것을 기념으로 1994개의 화강석을 다듬어 9개의 단으로 올려쌓은 릉에는 한짝의 무게가 1.2톤되는 2개의 돌문이 설치되여있다.

10여명이 동시에 들어가 볼수 있는 무덤칸에는 단군과 그 안해의 유골이 안치된 2개의 유리관이 대돌우에 놓여있다.

릉주위의 네귀에는 단군릉을 옹위하는듯 용맹스러운 조선범조각상이 서있으며 고조선의 상징적인 무기 비파형단검을 형상한 4개의 검탑과 그리고 단군의 아들들과 신하들의 조각상을 비롯하여 정교하게 가공된 돌조각품들이 세워져있다.

릉앞에는 우리 민족의 시조를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전하게 될 《단군릉개건기념비》가 건립되였으며 단군의 기적비가 세워져있다.

단군릉은 우리 민족의 5천년 력사의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되고있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단군릉을 발굴할데 대한 력사적인 교시를 주심으로써 우리 학자들은 신화적존재로 관심밖에 놓여있던 시조릉에 대한 발굴에 착수하게 되였으며 마침내 단군 유골과 유물을 발견하는 커다란 과학적결실을 이룩하게 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령도가 낳은 경이적인 발견이였으며 민족의 대경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단군을 찾게 된것은 우리 고고학의 대승리라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실재한 인물로서 단군이 확증된 조건에서 그에 맞게 고조선력사를 주체적으로 체계화할수 있도록 력사학자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팔순고령의 몸으로 몸소 강동땅을 찾으시여 이곳 대박산기슭에 시조릉을 최상의 수준으로 건설하도록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며 릉건설에서 미흡한점이 있을세라 무려 수십차례에 걸쳐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서거하시기 이틀전인 7월 6일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는 바쁜 속에서도 단군릉의 최종형성안을 보아주시면서 남조선과 해외동포들도 다 볼수 있도록 단군릉을 빨리 건설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주체의 력사관으로 민족사를 정립하는데서 나서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로잡아주신 사상리론의 거장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학자들의 발굴고증사업에 필요한 온갖 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해주시여 단군이 지금으로부터 5천년전에 출생한 실재인물이였다는것을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완전히 확증할수 있도록 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단군릉을 빠른 시일안에 손색없이 훌륭히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구상을 꽃피우시기 위하여 몸소 단군릉복구위원회를 무어주시고 릉건설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과 자재, 로력을 돌려주시였으며 릉건설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국가적조치까지 취해주시였다.

정녕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우리 민족사의 옳바른 연원을 찾아주시고 평양을 민족의 성지로, 우리 조국을 명실공히 5천년 력사국으로 만방에 빛내여주신 애국애족의 위대한 화신이시며 우리 민족의 정기를 한몸에 체현하신 걸출한 위인들이시다.

지난 1년간 건설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높은 애국심을 간직하고 릉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하였다.

건설자들은 비상한 로력적열성을 발휘하여 대발파로 산봉우리를 헐어버리고 무려 30여만m^3의 토량을 처리하였으며 7만 2,000여개의 돌을 가공하여 덮거나 깔았으며 범상을 비롯하여 다루기 힘든 중량의 조각물들을 훌륭히 설치하고 부지의 포장과 원림조성을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조각가들은 높은 창조적재능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개건기념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방대하고 정교한 조각물들을 최단기간에 완성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전의 뜻대로 단군릉이 동방의 강성대국 단군조선의 기상에 어울리게 웅장하게 개건됨으로써 릉은 조선민족의 유구성과 단일성을 증시하며 우리 인민에게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귀중한 문화재보로 후손만대에 길이 빛을 뿌리게 되였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겨레의 건국시조를 되찾고 시조왕릉을 웅장하게 개건하여 온 세상에 자랑할수 있게 된것을 민족의 일대 경사로, 커다란 기쁨으로 여기고있다.

지난 10월 11일 현지에서 단군릉개건준공식이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권오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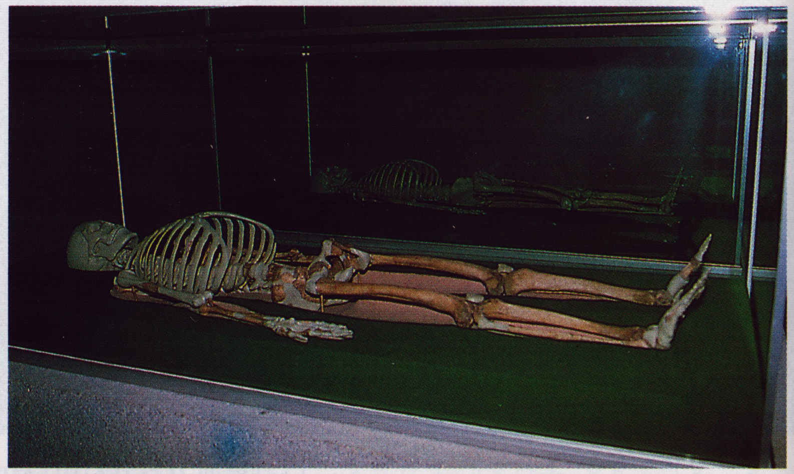
단군릉개건준공식이 성대히 거행되였다.



개 건 준 공 된　단 군 릉



단군의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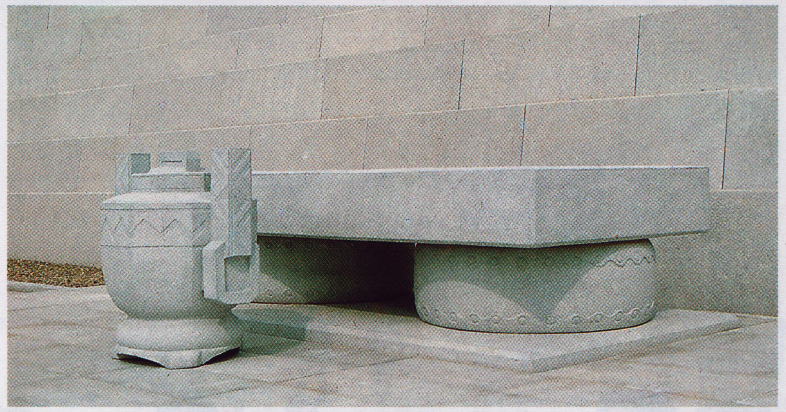
단군과 그의 안해의 유골



범상



청동검탑



상돌과 분향로



석등과 망두석



단군의 네 아들상



단군릉전경



측근신하상



범상을 돌아보는 근로자들



단군릉기적비를 돌아보는 해외동포들



단군릉을 참관하는 근로자들

사진 김휘률

두개의 금메달수훈자

로력영웅칭호, 그것은 조국에 고귀한 땀을 누구보다도 많이 바쳤다는 값높은 평가이다.

평양시 력포목장 류춘옥지배인은 이런 칭호를 두번이나 받았다.

그가 두개의 금메달을 받게 된것은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친 그의 성실한 로력과 함께 평범한 로동자의 딸을 내세워준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이 있기때문인것이다.

정열을 안겨준 불씨

류춘옥이 축산부문에서 일을 시작한곳은 강원도 평강에 있는 종합농장이였다. 돼지관리공이던 그는 벌써 처녀시절에 전국에 소문난 혁신자가 되였으며 1959년에는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그후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한 그는 목장지배인, 종축장지배인 등으로 사업하다가 10여년전부터 평양시 력포목장 지배인으로 일하고있다.

이곳에 와서 목장의 연혁을 더듬던 춘옥은 사뭇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인민들에게 고기를 풍족하게 먹이시려고 벌써 전후 1954년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이곳 목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여러차례나 현지지도하시며 고기생산을 늘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가슴뜨거운 내용을 알게 된 그는 자기의 책임이 자못 무겁다는것을 느끼였다.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내 모든것을 바치리라!)

그는 목장의 생산규모를 일약 2배 늘이기로 결심하였다.

《단번에 두배?!》

목장일군들은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타산도 없이 욕망만 가지고 일판을 벌려놓았다가 일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지배인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고 비단옷에 기와집을 쓰고 사는게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인데 우리 목장일군들의 책임이 무겁다는것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난관을 두려워말고 밀고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배인은 집짐승우리를 현대적으로 크게 짓고 돼지와 젖소의 마리수를 2배로 늘이며 집짐승들에게 영양가높은 먹이를 보장할 대책 등 목장을 꾸려나갈 방대한 계획을 내놓았다.

(그렇게 하자면 막대하게 요구되는 자재와 자금, 로력, 종축은 어떻게 해결하자고 하는가.)

너무도 방대한 계획앞에 신심을 못가진 일부 일군들은 지배인의 설계가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는 생각에 선뜻 대답을 못했다.

《무슨 일에서나 난관부터 생각하면 앞이 내다보이지 않습니다. 일을 할바엔 통이 크게 벌려야 일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지배인은 신심에 넘쳐 이렇게 설복하며 자재와 로력도 나라에 손을 내밀지 말고 자체로 해결하자고 하였다. 그 열정과 기백에는 모두가 탄복할뿐이였다.

지배인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나오는 광재를 가져다 소석회를 섞어 구워내여 블로크를 생산하면 얼마든지 집짐승우리를 건설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행생산을 내밀면서 그 많은 자재를 날라다 방대한 건설을 벌린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어느날 소석회를 해결하러 먼길을 떠났던 지배인은 밤이 깊어서 돌아왔다. 종일 돌아다녀서인지 몹시 피곤하였다.

그에게는 불현듯 1958년에 열렸던 전국생산혁신자대회때 수령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교시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가 풀과 고기를 바꾸라는 정책대로 풀로 돼지를 훌륭히 기른 경험이며 약초와 중간성독초를 풀죽에 섞어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 경험, 돼지를 방목하여 키운 경험에 대하여 토론했을 때였다. 회의에 참석하시였던 수령님께서는 저 동무처럼 이악하게 달라붙어 노력하면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고 치하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그때 그리도 기뻐하신것도 인민들에게 고기를 풍족하게 먹이시려는 숭고한 념원에서가 아닌가.)

그는 다시 용기를 얻고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었다.

《내가 일하는 시간은 동무가 쉬는 시간이고 동무가 일하는 시간은 내가 쉬는 시간이요.》

그는 운전사에게 이렇게 말하며 잠은 늘 차에서 자다싶이 하였다. 이렇게 밤낮이 없이 뛰여다녀서 6만 3,500평방메터의 돼지우리와 젖소우리를 현대적으로 번듯하게 지어놓았다.

지칠줄 모르는 열정의 산물

고기와 젖 생산을 2배로 높이는 것은 축사를 늘이는것만으로는 해결될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먹이문

제를 풀어야 했다. 춘옥은 영양가가 높은 먹이작물들을 구해다 심고 관수체계를 도입하면서 그의 수확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이악하게 밀고나갔다. 노력한 보람이 있어 먹이작물이 아주 잘되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사료보장은 불가능하였다.

그는 목장의 기술자들에게 보다 사료단위가 높은 작물을 자체로 만들어내자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면서 기술자들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마침내 그들은 종전의것보다 훨씬 영양가가 높은 먹이용작물을 육종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때부터 목장은 해마다 국가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되였다. 그러나 춘옥은 그것으로 성차지 않았다. 인민생활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만족이 있을수 없다는 생각이 언제나 가슴깊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새끼를 더 많이 낳고 빨리 크는 보다 좋은 집짐승종자들을 만들어내야만 고기생산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로 비약할수 있다는것을 포착하였다. 그는 새로운 종축종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집단을 무리였다. 연구집단은 짧은 기간에 증체속도가 빠르고 마리당 무게가 많이 나가는 우량종돼지를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해마다 400여톤의 고기를 더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젖소도 좋은 새 종자를 만들어내여 재래종보다 마리당 1톤의 젖을 더 생산하게 되였다.

그러나 고기생산을 늘이려는 지배인의 욕망에는 끝이 없었다.

그는 새끼돼지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그는 어미돼지의 영양조절을 잘하면서 새끼돼지젖떼기기일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2년3산으로부터 2년5산으로까지 끌어올릴수 있는 해결방도를 찾아냈다.

그런데 일찍 젖을 뗀 새끼돼지를 키워내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관리공, 기술자들과 함께 방도를 탐구하던 그는 끝내 영양가높은 인공젖과 보충적인 먹이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이리하여 새끼돼지의 젖떼기기일을 절반으로 줄여 모든 어미돼지들이 2년5산을 하게 하였다.

새끼돼지의 마리수가 늘어나니 어미돼지의 젖꼭지가 모자라는것이 또 문제였다. 이때에도 그는 관리공들과 함께 어미돼지의 생활습성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 걸린 문제를 기어이 해결하고야말았다.

그의 이런 성실한 노력으로 목장은 해마다 국가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고 고기와 젖 생산을 3배이상 높일수 있었다.

언제나 나라의 주인된 립장에서

력포목장의 돼지종자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각지 목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 종자돼지를 구하려고 찾아왔다. 목장에서 종자돼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목장의 일부 일군들은 종자돼지를 내주는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지배인 춘옥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의 요구대로 해결해줍시다. 우리 목장이 좀 손실을 보아도 고기를 더 생산하게 되니 국가적으로는 그만큼 리익이 아니겠소.》

그리하여 이곳 종자돼지들이 각지로 퍼지게 되였다.

《나라에서 의도하는것을 우리가 해결합시다.》

이것은 춘옥지배인에게서 자주 듣군하는 말이다.

최근 그는 현대적인 메탄가스생산기지도 남먼저 크게 건설하여 집짐승사양관리에 필요한 난방과 소독은 물론 륜전기재들에까지 리용하게 함으로써 석탄과 연유를 수많이 절약하게 하였다.

목장사람들은 춘옥을 가리켜 일밖에 모르는 지배인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그는 한 가정의 주부이면서도 목장종업원들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언젠가 그가 일보러 나갔다가 밤늦게 목장에 돌아왔을 때 한 종업원이 병원에 입원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지배인은 종일 쌓인 피로도 풀지 못한채 그 길로 병원에 찾아갔다. 밤 1시에 병문안을 온 지배인을 보고 종업원은 눈시울이 뜨거워옴을 금할수 없었다.

조국은 이처럼 자기의 모든 정력을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친 그를 잊지 않았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거듭 중임을 맡겨주고 1972년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하였으며 1992년에는 2중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였다. 그리고 인민들은 제4기부터 지금까지 그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였다.

본사기자 리운봉

강 서 약 수

평양에서 얼마 멀지 않은 남포시 강서구역에 약수리가 자리잡고있다.

현재 이곳에 있는 1호천, 5호천, 12호천, 14호천이 치료에 쓰이고있다. 1호천은 솟는 량은 많지 못하지만 탄산—철천으로 그 치료효과가 좋다. 5호천도 탄산—철천인데 온도가 다른 약수들보다 낮다. 12호천과 14호천은 수소탄산—나트리움—칼시움—철천(수소탄산염천)이며 솟는 량이 비교적 많다.

약수는 마시는시간, 마시는 량, 마시는 약수의 온도에 따라서 위의 산도가 낮을 때에는 높이고 높을 때는 낮추는 등으로 위의 기능을 좋게 하며 위와 장의 염증들을 없애고 소화가 잘되게 한다. 또한 간장, 열주머니 및 열물길 계통의 염증을 없애고 간장의 대사과정과 그 기능들을 좋게 하며 열물을 잘 나오게 한다. 이밖에도 이 약수는 오줌을 많이 누게 하여 콩팥의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동맥경화증때 피줄을 굳어지게 하는 콜레스테린이라는 물질을 낮추는 작용도 한다. 또한 약수에는 철이온이 많이 들어있어 피를 만드는 기능을 도와주므로 빈혈을 막는데도 좋다. 목욕치료방법으로 쓸 때에는 심장의 활동과 피돌기에 좋게 작용하므로 일부 심장—피줄 계통병치료에도 쓸수 있다. 그러므로 강서약수는 만성위염, 위 및 12지장패움병, 만성소대장염, 만성간염 및 담낭담도염, 담낭결석, 만성취장염, 결핵성이 아닌 만성신우신장염, 만성방광염, 심하지 않은 당뇨병, 동맥경화증, 만성기관지염, 만성 인후염 및 후두염, 일부 심장병, 고혈압병 치료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이곳에는 현대적인 의료설비들로 꾸려진 료양소가 있다.

수기

넋

사람들은 흔히 조국을 어머니에 비긴다. 한없이 넓고 인자한 품에 안아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조국을 두고 어머니란 말외에는 더이상 어울리는 표현을 찾지 못하는것이 아마도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인듯싶다. 나역시 같은 심정이다.

하지만 나는 조국을 어머니라 부르기에 앞서 나의 넋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오랜 이국살이를 통하여 내가 체험으로 습득한 진리라고 말할수 있다.

유년기에 나는 부모님들이 입버릇처럼 눈물속에 외우군하는 《고향》, 《조국》이란 낱말들에 담겨져 있는 뜻을 다는 알지 못하였다. 그저 이국땅에서 오래동안 살아오다나니 태를 묻은 고향이 몹시도 그리워질것이라는 정도의 리해가 고작이였다.

강원도 통천에서 태여난 나의 아버지는 해방전에 왜놈들의 강박에 못이겨 바다에 물고기잡이를 나갔던 두 동생이 돌아오지 못한 뒤로는 바다를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쳐 종시 고향을 등졌다고 한다. 어머니의 일가 역시 왜놈들의 성화를 피해 중국 동북지방으로 이주해왔었다.

설상가상으로 일제말기의 란리통에 형 넷은 행방불명되고말았는데 오늘까지도 그 종적을 알길이 없다. 그후에 태여난 나는 형들의 얼굴조차 모른다. 나라를 잃고 타향만리에 쫓겨와 사는것만도 통분한 일인데 생때같은 네자식을 한날한시에 잃었으니 부모님들의 아픈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내가 11살때인 1959년에 불치의 병을 앓고있던 아버지는 죽기전에 자식들의 행처를 꼭 알아야겠다며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조국으로 나갔다. 형들이 살아있었으면 해방직후에 조국에 나갔을수 있다는것이였다. 그때 나도 아버지를 따라나섰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조국의 현실은 놀랍기만 했다. 인민이 주인된 세상, 인민의 힘에 의해 약동하는 조국의 벅찬 숨결이 가슴가득 안겨왔다. 아, 이것이 바로 내 조국이로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조국에 온지 5달만에 나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조국땅에 묻히게 된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너무 슬퍼말아. 든든한 조국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젠 마음이 놓인다.》

아버지의 말대로 조국에서는 의지가지할데 없는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조국의 품은 한없이 넓고 따사롭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꿈같은 나날들이 흘러가던 어느날 어머니가 나를 데리러 조국에 찾아왔다. 이국땅에서 홀로 살아가실 어머니를 생각하여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는 나의 눈에서는


원재천(왼쪽)

눈물이 걷잡을수 없이 흘러내렸다. 이름할수 없는 상실감과 고독감이 페부를 아프게 찔렀다.

그때부터 나의 성미는 거칠어지기 시작하였다.

아무일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였고 걸핏하면 엄청난 행동을 저지르군하였다. 어머니는 물론 이웃들까지도 나의 장래를 몹시 걱정했다.

그러던 1973년 어느날 나는 베이징에 있는 조국재외대표부의 한 일군을 만나게 되였다. 이날 그 일군은 나에게 참으로 뜻깊은 말을 해주었다.

《재천이, 조국은 단순히 지리상의 개념이 아니야. 조국은 바로 우리의 넋이지. 마음속에 조국을 간직하고있으면 하늘끝에 가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은 법이야.》

나는 지금껏 조국을 생의 보금자리로만 여겨왔다. 때문에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던것이다. 조국은 우리의 요람이기전에 심장속 깊은곳에 간직해야 할 넋이였다.

그후 나는 공화국의 해외공민이 되였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있는 힘을 다했다.

조국에서는 해외에 살고있는 이름없는 한 공민의 성장을 걸음걸음 지켜주고 이끌어주었다.

큰 명절때이면 어김없이 나를 불러주고 분에 넘치는 치하도 해주었으며 높은 국가수훈도 안겨주었다. 1992년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까지 찍는 영광을 지니였다.

넋을 지키는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왜냐면 넋이 없는 인간은 동물과 조금도 다름이 없기때문이다.

1990년 겨울 심양에 갔던 나는 우연히 남조선에서 온 《실업가》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튀여나왔다. 《사람의 한생이라는게 무엇이겠소. 황금으로 이어지는 순간순간의 쾌락이 아니겠소. 그밖의 조국이요 뭐요 하는것들은 다 문장가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한것이요.》

순간 나는 피가 거꾸로 흐르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조국은 바로 인간의 넋이야! 그게 없으면 살아도 죽은 몸이다. 내 눈앞에서 썩 사라지라!》

비실거리며 꽁무니를 빼는 그자의 모습도 가련하였지만 그보다도 인간을 넋이 없는 속물로, 황금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자본주의사회가 더없이 혐오스러웠다.

언젠가 조국에 와서 이런 시구절을 보고 깊이 감동된적이 있다.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조국에 그대의 심장을 주기전에는…》

물론 나는 철학가도 문필가도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싶다.

조국을 어머니라 부르며 인생을 의탁하기전에 마땅히 자기의 넋으로, 운명의 전부로 여겨야 하며 귀중한 조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지어 목숨까지도 깡그리 바쳐야 할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여기에 인생의 참다운 의미가 있는것이다.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원 재 천

옛이야기

봉변당한 닭장사군

김선달이 젊어서 서울구경을 갔을 때였다.

어느 한 저자거리의 객주집에 들리였던 선달은 장을 보러왔던 농부들이 점심을 먹으며 서울장사치들은 모두 등치고 간빼먹을 놈들이라고 말하면서 그가운데서도 양주닭장사군이 더욱 간교한놈이라고 욕하는것을 듣게 되였다.

《그래 그 양주닭장사군이 어느 저자거리에 있소? 내 한번 단단히 버릇을 떼주리다.》

그러자 모든 농부들이 선달에게로 쏠리였다.

《아니, 어떻게 그 교활한 장사군의 버릇을 떼준다고 하시우?》

그러나 김선달은 히죽히 웃으면서 《념려마시우. 내 그대들이 닭장사군한테서 등치우고 털리운 값을 받아낼테니 어서 그 닭장사에게 안내나 하시우.》라고 하였다.

농부들과 함께 간 선달은 그들이 가리켜주는 양주닭장사군을 한동안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 닭장사군은 사람에 따라 값을 올리고 내리는 아주 간교한놈이였다.

한동안 그를 주시하던 김선달은 드디여 닭장사군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볏이 유별나게 크고 시뻘건 수탉을 보고 놀라는 시늉을 하면서 닭장사군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새요?》

닭장사군은 어이없이 웃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 이내 얼굴색을 달리하며 조용하고도 다정한듯한 어조로 말했다.

《자네 이 〈새〉를 첨 보나?》

《예, 그렇소.》

그러자 닭장사군은 분명 김선달이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보였던지 능청스럽게 구슬러대였다.

《이게 바루 봉황새라네.》

《봉황새요? 아니 그럼 나라가 태평할 때 나타나군한다던 그 새란 말이요?》

선달이도 닭장사군의 구슬림에 끌리워 들어가는척 했다.

《그렇네, 바루 그런 봉황새이지.》

《값이 얼마오이까?》

《스무냥일세.》

《아니, 그렇게 비싸우?》

《허, 세상에 나서 이런 새를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다구.》

《하긴 그렇게 보면 스무냥이 아깝지 않지요. 돈을 올릴터이니 나에게 주시우.》

김선달은 돈을 털어 스무냥을 꺼내주고서 수탉을 받아안고 누구에게 빼앗길가보아 겁나는듯이 급히 저자거리를 벗어났다.

《아니, 어쩌자구 수탉을 봉황새로 샀소?》

《닭장사군에게 버릇을 가르친다더니 도리여 장사군에게 속히워 서푼짜리 수탉을 스무냥이나 주고 사다니 어이된 일이요?》

농부들이 따라와서 저저마다 물었다.

선달은 그들의 말을 듣고나서 《허허, 일을 다 알고보면 재미가 없는것이지요. 나와 잠간 여기 앉아있으면 다 알게 되오리다.》라고 하였다.

김선달은 아침에 임금이 사냥을 떠나는것을 보았기에 임금의 행차가 돌아오는 그 순간을 노렸던것이였다.

얼마 안있어 《저리 가라, 이리 가라!》하는 벽제소리가 들리고 요란한 행렬을 갖춘 임금의 행차가 나타나자 선달은 수탉을 가슴에 안고 맞받아 달려나갔다.

긴 창을 쥔 라졸들이 선달을 밀어내려 하였으나 선달은 임금을 긴급히 만날 일이 있다면서 조금도 물러서려 하지 않아 싱갱이질이 벌어지고 그 바람에 임금의 행차가 멈춰서게 되였다.

선달을 만나본 한 신하가 임금에게 어떤 시골백성이 수탉 한마리를 안고 임금을 뵙겠다고 막무가내로 청원한다는것을 아뢰였다.

그리하여 임금앞에 불리워간 선달은 엎드리여 절을 하고나서 말했다.

《저의 소원을 아뢰기 황송하오나 이 봉황새를 임금님께 드리고저 하나이다.》

《봉황새라니?》

《예로부터 봉황새는 나라가 태평할 때에 나타난다고 일러왔사온데 오늘 서울장안에 봉황새가 나타난것은 임금님께서 태평성세를 펼쳐주신 덕인줄 아나이다. 그러하온즉 이 봉황새는 응당 임금님앞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옵니다.》

《이놈아, 이거야 수탉이 아니냐?》

《아니올시다. 저자거리 양주닭장사가 분명 봉황새라고 하였나이다.》

노한 임금은 당장 그놈을 잡아오라고 호통쳤다.

《네 이놈, 어찌하여 이 수탉을 봉황새라고 속여 팔았느냐?!》

임금이 엄하게 따지자 닭장사군은 죽을 죄를 졌다고 자백하였다.

《수탉을 보고 무슨 새냐고 묻는 사람이였기에 어리석게 보고 돈 몇잎 더 받아낼 생각으로 그만 봉황새라 속여 팔게 되였나이다.》

《그래 몇푼이나 더 받았느냐?》

《스무냥을 받았나이다.》

그러자 선달은 펄쩍 놀라는듯 기가 막혀하면서 임금에게 말하였다.

《아니올시다. 스무냥이 아니라 삼백냥을 주고 샀나이다.》

그러자 장사군도 넝큼 뛰며 스무냥이라고 우기였다.

《이놈, 뉘앞에서 또 속이려드느냐?! 세상이 아무리 어수룩하게 되여간다해도 수탉 한마리에 삼백냥을 주고 파는 고약한놈이 또 어디 있겠느냐. 당장 삼백냥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상을 어지럽힌 죄로 참형에 처할것이다.》

그러자 겁에 질린 닭장사군은 더 우기지 못하고 돈 삼백냥을 주고는 뺑소니쳤다.

이 꼴을 보고있던 농부들은 너무나 통쾌하여 어쩔줄을 몰라했다.

《자, 어떻습니까?! 아무리 간교한 장사군이라도 별놈이 아니지요. 미끼에 홀린 물고기가 낚시에 걸리듯이 돈에 미친놈은 돈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법이랍니다.》

그리고나서 선달은 돈 삼백냥을 농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이만하면 그놈에게 버릇도 가르쳐주고 등치운 값도 받아낸셈이라고 하면서 웃었다.

이런 일이 있은뒤에 김선달의 이름앞에 봉황새 《봉》자가 덧붙어 김선달은 《봉이 김선달》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였다고 한다.

기행—동해기슭을 따라

함주, 금야 지구

공업도시 함흥시의 서남쪽경계를 씻으며 조선동해로 흘러가는 성천강을 건너서면 함흥벌에 들어서게 된다.

아득히 펼쳐진 백리벌을 옆에 끼고 활처럼 미끈하게 굽어진 바다기슭을 따라 내려가니 꽃섬, 작은꽃섬 등의 경치좋은 섬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함흥, 함주, 정평 일대를 포괄하며 이곳 바다기슭까지 펼쳐진 함흥벌은 600평방키로메터의 넓이를 가진 동해안에서 손꼽히는 알곡생산기지의 하나이다. 함흥벌은 성천강, 원수천, 금진강 등의 쌓임작용과 해안의 솟음운동으로 하여 이루어진 쌓임벌로서 벌은 지금도 계속 바다쪽으로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우리와 만난 함주군농촌경영위원회 기사장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로부터 함흥벌은 동해안의 중요한 곡창지대였지만 해방전까지만 하여도 관개수리시설이 전혀 되여있지 않아 대부분의 부침땅이 천수답이나 수리불안전답이였다.

《…게다가 해마다 가물과 큰물피해, 짠물피해까지 겪고나니 벼를 심어도 이삭이 여물지 못하고 꿋꿋이 서있었다 하여 〈꾸꾸지벌〉로 불렀지요.》 기사장의 말이다.

《꾸꾸지벌》,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황페화된 함흥벌과 이곳 농민들의 비참하였던 과거에 대한 대명사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여러차례나 함흥벌을 찾으시여 치산치수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관개공사를 비롯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오늘 이 일대에는 추상저수지를 비롯한 4개의 큰 저수지가 건설되고 수많은 양수장을 비롯한 수리시설들이 건설되여 가물과 침수의 피해를 전혀 모르고 해마다 대풍을 안아오는 기름진 땅으로 전변되였다.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농촌기술혁명이 완성되고 농업의 현대화, 화학화의 추진으로 함흥벌 역시 천지개벽하였다.

논면적이 대대적으로 늘어나 들판마다 가을이면 황금나락 설레이며 벼수확기의 경쾌한 동음이 넓은 들에 울려퍼지고 언덕과 야산마다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져 풍요한 대지는 《꾸꾸지벌》에 대한 이야기를 먼 전설로 남기였다.

오늘 백리벌은 공업도시 함흥시를 비롯한 공업지구들에 알곡, 남새, 과일, 고기, 알 등을 생산공급하는 믿음직한 농업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풍년든 협동벌에서

우리는 기사장의 안내로 오리떼 넘쳐흐르는 광포를 에돌아 함흥의 위성도시의 하나인 함주읍과 주변 협동농장들도 돌아보았다.

아담한 다층살림집들과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 지방산업공장 등 공공건물들이 규모있게 들어앉은 군소재지 함주읍도 그렇지만 2~3층짜리 회백색의 씨리카트벽돌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선 동봉리, 향수리 등 협동농장마을들이 중앙난방화, 가스화까지 실현되여 모든 농장원들이 도시부럽지 않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있었다.

우리가 함흥벌을 떠나 정평을 거쳐 금야땅에 들어선것은 해가 퍼그나 기운 오후였다.

남으로 곧추 뻗어내린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니 마치 코끼리의 코처럼 바다로 쑥 내여민 호도반도의 신기한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반도의 끝에는 능도를 비롯한 자그마한 섬들이 기묘한 자태로 바다우에 떠있었다.

호도반도의 절묘한 풍치를 바라보며 서쪽으로 굽이돌면 금야만에 들어선다. 이 만으로 룡흥강이 흘러내리면서 무연한 금야쌓임벌을 펼쳐놓은것이다.

룡흥강어구에는 크고작은 여러개의 섬들이 강물에 밀려나온 산처럼 떠있었는데 강어구는 섬들만이 아니라 지형 또한 기묘하였다. 송전만, 서만, 풍전만 등 깊은 만들이 있는가 하면 곰호와 같은 큰 호수도 있어 그야말로 천태만상이였다.

이고장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룡흥강반에 봄빛이 짙어지면 황어, 농어 떼들이 알낳이를 위해 강을 거슬러 밀려드는데 한창 올라올 때면 강물이 와글와글 끓는것같이 보인다고 한다.

룡흥강이 굽이쳐흐르는 하류에 펼쳐진 금야벌은 함흥벌과 함께 역시 동해안의 이름난 곡창지대이다.

이 벌 또한 사회주의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생명수 흘러넘치고 기계화의 동음 울리는 풍요한 대지로 전변된것이다.

우리는 금야군의 동해바다가에 자리잡고있는 가진수산사업소며 반농반어를 하고있는 여러 바다가마을들도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권 철

묘비가 전하는 이야기

평안북도 운산군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24키로메터 떨어져있는 구읍리의 나지막한 언덕에는 《영웅적조선의 어머니 안옥희렬사의 묘. 중국인민지원군 완강부 세움. 1952년 12월 2일》이라고 중국글로 새긴 화강석비가 커다란 봉분앞에 세워져 있다.

그 화강석비는 어떤 사연을 안고 여기에 세워지게 되였는가.

조국해방전쟁시기인 1950년 10월 하순, 당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재진격의 길에 들어선 전선형편을 료해하시고 미제침략군의 주력을 포위섬멸할데 대한 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때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조선전선에 참가한 중국인민지원군의 한 부대는 전승리(당시 운산군 립석하리)일대에 기여든 미제침략군놈들을 족치기 위한 중요한 작전을 준비하고있었다.

이 작전보장을 위해 적구에 들어갔던 정찰병 리치황은 임무를 수행하고 부대로 돌아오고있었다.

그가 지친 몸으로 한치한치 산을 톺아오르는데 어데서인가 가느다란 신음소리 같은것이 들려왔다.

(?!)

바싹 긴장하여 주위를 살피며 전진하던 그는 가까운 다박솔밭에서 30대의 녀인과 사내애가 쓰러져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수척한 얼굴과 말라터진 입술, 해진 옷과 신발은 그들이 당한 불행과 고통을 그대로 말해주고있었다. 적을 피해다니다가 쓰러진것이 분명했다.

생명이 경각에 이른듯 맥박이 잦아들고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리치황은 고향에 있는 자기 혈육들이 생각났다.

흔들어깨우니 녀인의 입술이 약간 움직거렸다. 물을 찾는것이 분명했다.

자신도 쓰러질 지경이였지만 정찰병은 산아래 강가로 내려갔다. 하지만 물을 떠올 그릇이 없었다. 웃옷을 물에 적셔다가 수난자들의 목을 추겨주고는 그들을 번갈아 업어나르며 부대로 걸음을 다그쳤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 녀인은 렬차승무원으로 일하던 김승조의 안해인 평양방직공장(오늘의 평양종합방직공장) 로동자 안옥희였고 사내애는 8살난 그의 아들 김영수였다.

전쟁전에 그들은 평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미제가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자 남편은 전선으로 나갔고 안옥희녀성은 전선원호에 힘썼다.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에 군관이 된 그의 남편은 집에 잠시 들려 이렇게 말하였다.

《조국은 지금 시련을 겪고있소. 그러나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오. 그 믿음을 철석같이 간직하고 고난과 시련을 꼭 이겨내야 하오. 당신은 영수를 데리고 고향에 가있소.》

안옥희녀성은 언제 어디서나 조선의 딸답게 빛나게 살것을 다짐하고 평양을 떠나 북행길에 올랐다.

고향땅인 운산에 다달으니 거기에는 벌써 적들이 기여들어와있었다.

(장군님을 따라 북으로 더 가야한다.)

이렇게 생각한 안옥희녀성은 원쑤들의 눈을 피해 다시 산으로 올랐다. 그러나 만삭의 몸으로 먼길을 걸어온 그는 지칠대로 지쳐 뒤쫓는 적들을 보고도 미처 몸을 숨기지 못해 놈들에게 붙잡혀 갖은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었던것이다.

안옥희녀성이 정신을 차린곳은 중국인민지원군의 한 천막안이였다.

리치황을 비롯한 중국인민지원군들의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그들의 건강은 곧 회복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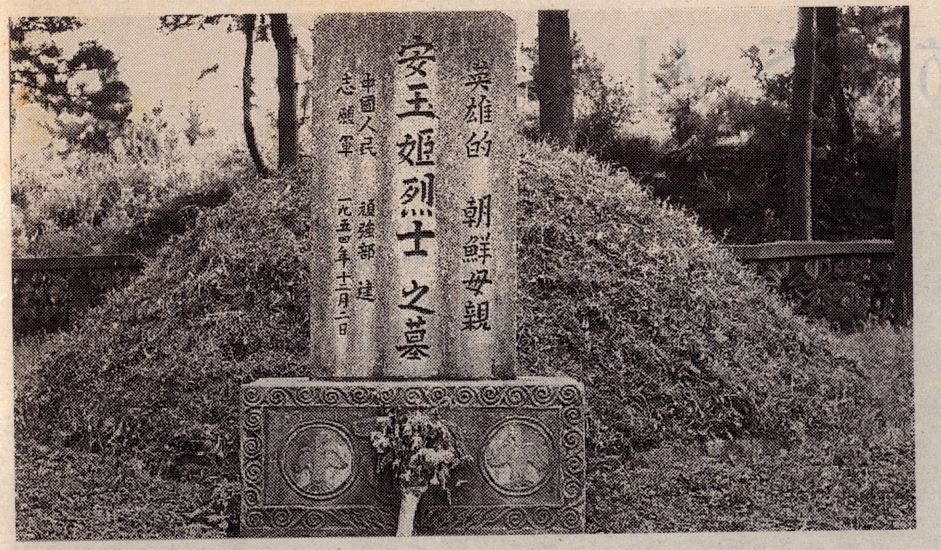
며칠이 지난후였다. 매일같이 찾아오던 리치황정찰병이 나타나질 않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알아보니 적진속에 들어갔던 리치황을 비롯한 정찰병들이 부상당한 몸으로 적들에게 체포되였다는것이다.

(그래서 그가 보이지 않았구나.)

안옥희녀성은 친형제나 다름없는 그들을 구원할 방도가 없겠는가고 모색하던끝에 지원군부대 지휘부를 찾아갔다.

지휘부에서도 정찰병들을 빼내올 방도를 토론하고있었다. 그런데 공격을 앞두고 정찰병들을 구원하기 위한 작전을 벌린다면 적들을 놀래울수 있고 그렇게 되면 포위속에 든 적들이 앞질러 발악할수 있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락착을 짓지 못하고있는데 안옥희녀성이 자기가 정찰병들을 구출해보겠다고 하며 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기발한 생각이기는 하였지만 대신 안옥희녀성의 신변이 우려되였다. 지휘부에서는 승낙하지 않았다.

《피흘리며 싸우고있는 지원군동무들을 돕는것은 우리들의 혁명적의리예요. 제한목숨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미국놈들을 때려잡을수 있겠나요. 더우기 그들은 저와 저의 아들의 생명의 은인들이 아닌가요.》



안옥희렬사의 묘

그래도 지원군지휘부에서는 거듭 만류하였다.

그러나 안옥희녀성은 정찰병들을 구원하는것이 생명의 은인에 대한 보답으로 될뿐아니라 곧 조국을 지키는 일이며 원쑤들에게 징벌을 안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날밤 아들 영수와 함께 적진속으로 들어갔다.

지원군정찰병들이 갇혀있는곳에 이르자 보초놈은 그를 멈춰세우고 어디로 가는가고 물었다.

안옥희녀성은 손시늉을 하며 아래마을에서 치안대를 하는 남편에게 간다고 하면서 밥보자기를 보이였다. 거기에는 밥과 찬은 물론 술과 삶은 통닭도 있었다. 그것을 본 보초놈은 소리쳐 보초소의 대기병들을 불렀다. 4명의 미군이 나오더니 먼저 술병을 들고 한모금씩 마시였다. 이때라 생각한 옥희녀성은 아들에게 눈짓을 해보이고 닭고기까지 내맡기였다. 놈들은 좋아라 히히덕거리며 술을 마시고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이때 영수는 어머니와의 약속대로 놈들의 눈을 피해 지원군정찰병들이 갇혀있는 창고를 찾아내여 그 안에 낫을 들여보내주었다.

구원의 손길을 느낀 정찰병들은 포승줄을 끊고 담벽에 구멍을 뚫기 시작하였다.

얼마후 작은 돌맹이가 옥희녀성의 발앞에 와 떨어졌다. 정찰병들이 창고에서 빠져나오면 보내기로 약속했던 영수의 신호였다.

(그들이 산에 오르자면 적어도 20분이 더 걸려야 할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옥희녀성은 적들을 붙잡아놓기 위해 구역질나는 적들의 희롱을 받아들이는척 하였다.

그런데 적들중의 한놈이 영수가 없어진것이 이상스러웠던지 창고쪽으로 가더니 놀라운 소리를 지르며 뛰여왔다.

삽시에 정황은 위급하게 되였다.

(놈들이 추격하면 부상당한 지원군들과 영수가 붙잡힐것이다. 이놈들을 내가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안옥희녀성은 품에 간직했던 수류탄을 두손에 버쩍 추겨들었다.

《꼼짝하지 말라! 나는 조선인민군 군관의 안해다. 네놈들은 지원군들과 사랑하는 내 아들을 절대로 붙잡지 못할것이다.》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 목숨바치는것을 최대의 영예로 간직한 안옥희녀성은 《조선로동당 만세!》, 《**김일성**원수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며 수류탄을 던지였다.

《쾅》, 《쾅》 수류탄 폭발소리가 차거운 10월의 밤공기를 가르며 멀리 메아리쳤다.

안옥희녀성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중국인민지원군 정찰병들을 구원하였다.

다음날 새벽, 적에 대한 공격명령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전승리벌판에 힘있게 울려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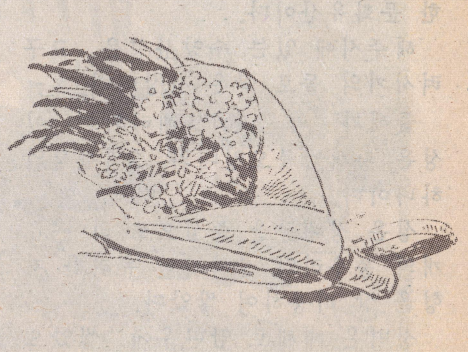
중국인민지원군용사들은 침략자들에게 드센 공격을 들이대여 수십대의 땅크와 장갑차 등 각종 전투기술기재를 파괴, 로획 하고 수천명의 적병을 살상포로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안옥희의 장렬한 최후에 대한 소식은 중국인민지원군용사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중국인민지원군부대는 미제침략자들을 38도선 이남으로 몰아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원군용사들은 전선이 고착상태에 들어서자 고상한 국제주의적혁명정신과 자기희생성을 발휘한 안옥희렬사를 잊을수 없어 그가 묻혀있는 운산땅을 찾아 그의 시신을 다시 잘 안장하고 봉분앞에 조중친선의 정이 담긴 흰 대리석비를 세웠다.

그때로부터 어언 4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그 묘비는 오래전부터 조중 두 나라 령도자들에 의하여 맺어지고 꽃펴나기 시작한 친선의 정은 지구가 영원하듯이 변함이 없다는것을 실증해주며 오늘도 거연히 솟아있다.

본사기자 리 송



도시소개

해 주 시 (2)

황해남도의 소재지인 해주시는 문화도시이기도 하다.

아담하게 꾸려진 시내거리의 곳곳에 각급 교육기관들과 병원들이 들어앉았고 경치아름다운 수양산과 옥계천 주변에 공원과 유원지가 조화롭게 잘 꾸려져있다.

해주시 양사동에는 해주력사박물관이 있다.

이 박물관에는 우리 나라의 원시공동체사회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의 여러가지 문화유물과 력사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100만년전의 원시유적인 검은모루유적과 돌도끼와 돌활촉, 돌호미, 돌낫 등과 원시인들의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그림들, 고조선을 비롯한 우리 나라 고대국가들의 사회경제형편을 보여주는 유물과 보존자료들은 참관자들에게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고대문화의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곳 박물관에서는 오늘까지도 그 색이 변하지 않고있는 고구려시기의 안악제3호무덤을 원형그대로 모형을 만들고 벽화들을 모사하여 전시함으로써 당시 사회상과 더불어 건축술, 미술 등의 발전모습을 잘 알수 있게 하고있다.

해주시 옥계동에 있는 해주석빙고는 고려시기의 얼음창고이다.

화강석을 다듬어 기차굴처럼 쌓고 그 우에 흙을 덮은 석빙고는 옛날 우리 선조들의 얼음창고와 식료품의 저장방법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해주시에 있는 수양산성은 고구려시기의 돌로 쌓은 산성이다.

둘레가 약 8키로메터되는 이 성은 황해남북도일대의 3대산성의 하나이다.

성은 장대봉을 중심으로 하여 6개의 봉우리와 골짜기의 유리한 지형을 잘 리용하여 쌓았다.

성벽은 대체로 암반우에 쌓았으며 성안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곳에 장대(전투지휘처로 하기 위해 쌓은 루정)가 있다.

수양산성에는 동, 서, 남, 북 쪽에 각각 대문이 있었다.

장대봉 동북쪽과 서쪽 골짜기에서 시작된 두줄기의 시내물은 합쳐져서 련못을 이루고 다시 동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여기 절벽과 잇닿은 곳에 수구문을 냈다.

바로 수구문바깥에 100메터의 절벽을 타고내리는것이 수양폭포이다.

수양산성에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운 우리 선조들의 투쟁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또한 수양산은 식물보호구로 지정되여있다.

넓이가 1,400정보에 이르는 수양산식물보호구는 수양산줄기에서 제일 높은 수양산일대를 차지하고있는데 이 보호구에는 보리수나무, 목란, 수유나무 등 여러종의 나무들이 자란다.

이 일대의 식물상은 온대북부식물과 온대남부식물 분포에서 점이적특성을 가지는 지대로서 식물분포에서 다종다양하다.

여기에는 산채와 약초도 많다.

해주시 근로자들이 제일 많이 찾아 즐기는곳이 수양산유원지이다.

숲속에 드러난 봉우리들과 릉선들에 기암들이 늘어선 산악미와 골짜기를 흐르는 맑은 물, 폭포와 여울은 그 일대를 뒤덮은 숲과 어울려 경치 또한 수려하다.

시중심으로 흐르고있는 옥계천기슭에 황해남도예술극장이 자리잡고있다.

이 극장에서 황해남도예술단은 지난 시기 연극《선구자들》, 《농민 김제원》, 가극《영원한 흐름》과《통일의 광장에서 다시 만나리》등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창작공연하였다.

가극《통일의 광장에서 다시 만나리》는 오래동안 헤여져 북과 남에서 살던 아버지와 아들, 딸의 뜻깊은 상봉과 또다시 갈라지지 않으면 안되는 민족수난의 현실을 예술적화폭으로 잘 펼쳐보임으로써 조국통일이 민족최대의 숙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해방전 해주에는 중학교와 소학교가 몇개밖에 없었다.

그러했던곳에 오늘은 김종태대학, 장수산대학, 김제원대학, 진명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이 수없이 많다.

해방후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분여받은 땅에서 첫해농사를 지어 나라에 바친 애국미헌납운동의 선구자 농민영웅 김제원의 이름을 단 김제원대학은 황해남도 농촌경리부문의 농업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대학이다.

이 대학에는 농학부, 수의축산학부, 과수학부, 농기계학부를 비롯하여 여러개의 학부가 있으며 단기양성반이 있다.

또한 이 대학에는 종합실습농목장과 농기계실습공장, 온실이 꾸려져있으며 현대적인 실험기구들을 갖춘 실험실이 있다.

해주시 수양산기슭에 있는 장수산대학은 황해남도내의 보건일군들을 키워내는 양성기지이다.

대학에는 림상의학부와 고려의학부를 비롯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학부가 있다.

또한 의학연구를 위한 연구원과 연구소가 있으며 제약공장이 있다.

최근 이 대학의 연구집단은 당뇨병을 비롯한 난치성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큰 약을 개발하여 환자치료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해주시에는 최신과학기술로 장비되고 전문화된 도인민병원과 의료기관들이 있다.

항구문화도시 해주.

해주시는 날을 따라 문화도시로서의 그 면모를 더욱 일신시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조광열



해주시광장 앞거리

황해남도인민병원에서 실습하고있는 장수산대학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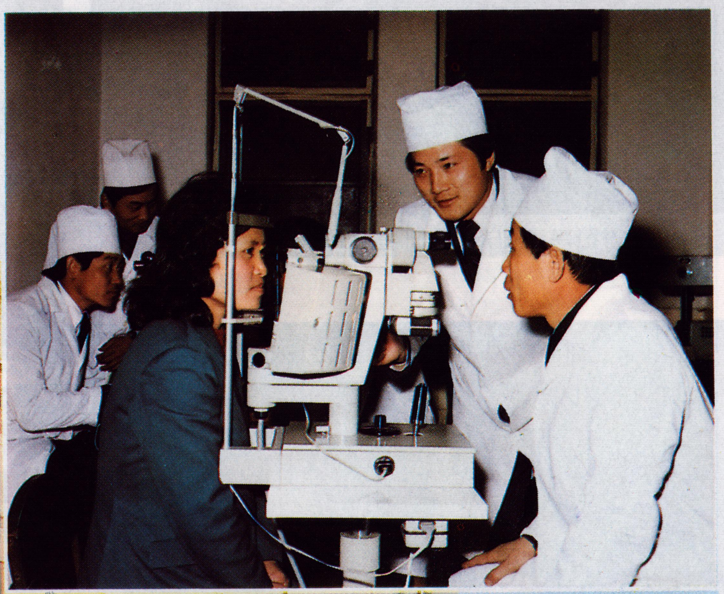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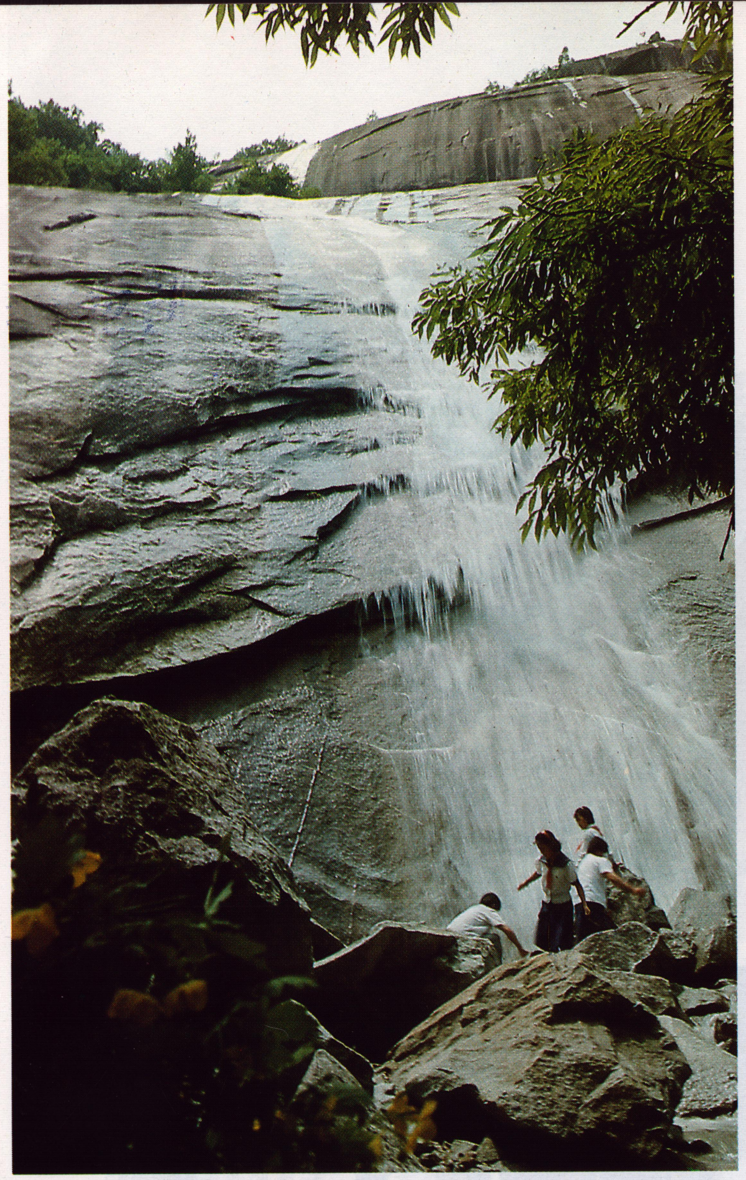




사진 남 영



수양산폭포에서 한때를 즐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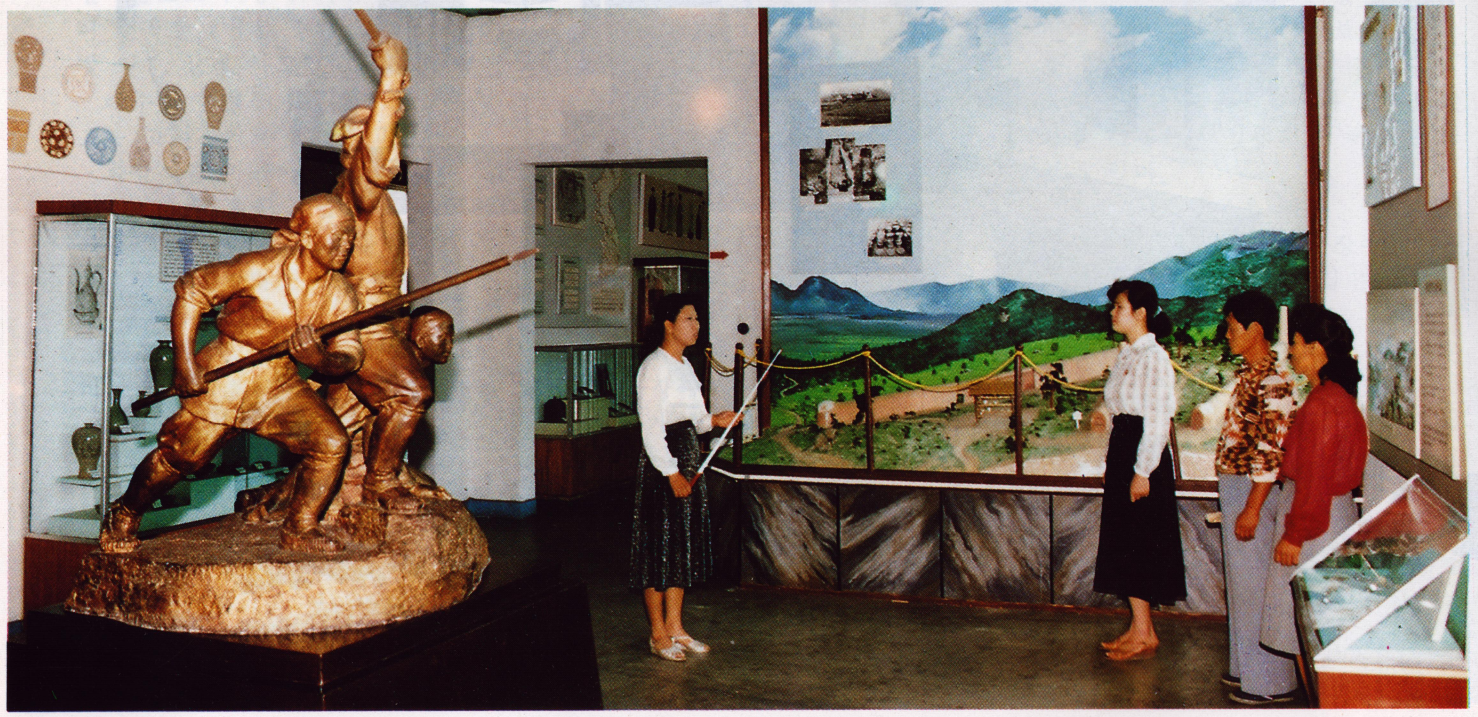


지한정을 찾은 근로자들



시내에 자리잡고있는 옥계각

해주력사박물관을 찾은 근로자들



명승의 나라 학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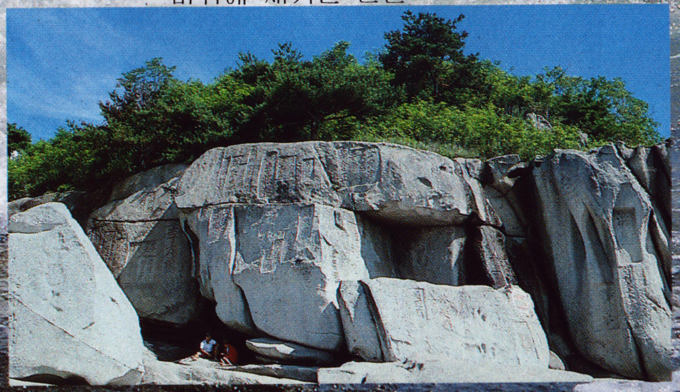


바다가에서 즐기는 휴양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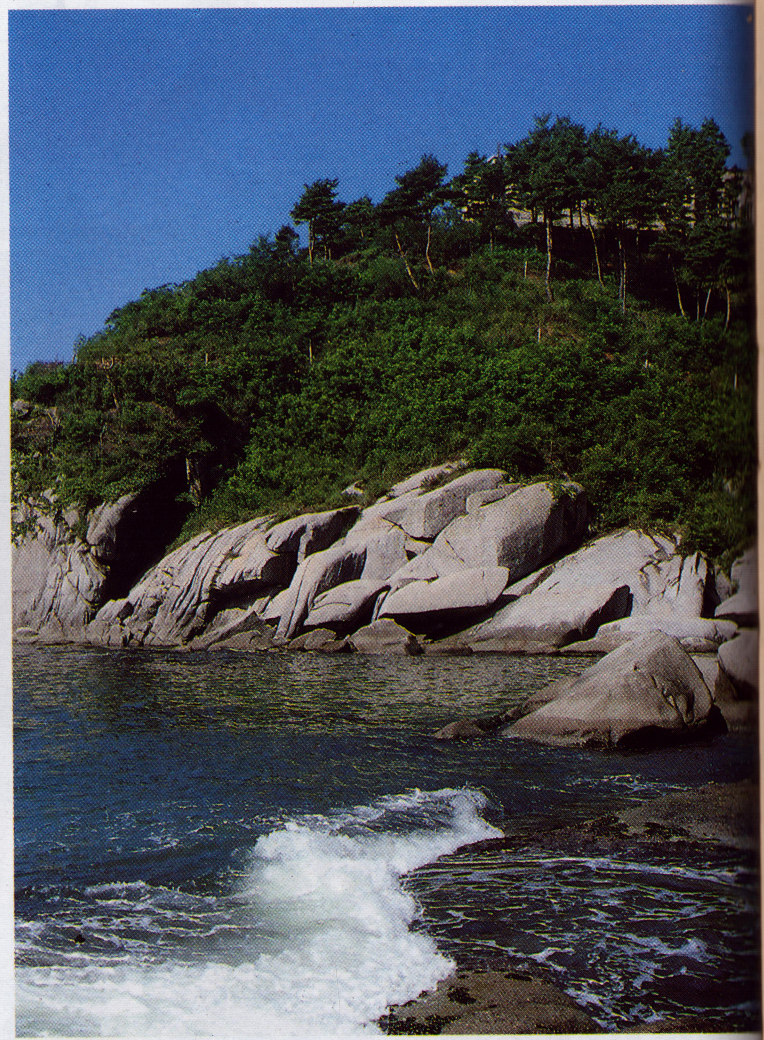


바위에 새겨진 글발





너럭바위에서



저 멀리 휴양각이 보인다.

그림같은 바다가풍경

사진 박 철



학사대는 함경남도 리원군의 바다가에 자리잡고있다.

이 군의 곡구역에서 약 1.5키로메터 떨어진곳에 있는 학사대는 기묘한 바위들과 이끼 푸른 벼랑들, 사철 푸른 소나무들이 검푸른 바다와 조화되여 금강산의 해금강을 련상케 하는 조선동해의 명승지의 하나이다.

이곳 바위와 벼랑은 화강암으로 되여있는데 오랜 세월 세찬 바다물에 깎이고 씻기워 오늘과 같은 천태만상을 이룬것이다.

이 명승지가 학사대로 불리우게 된것은 리조때부터라고 전해오고있다. 지금도 바위벼랑에는 《학사대》라는 세 글자가 한자로 큼직하게 새겨져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학사대에는 문성산기슭 북쪽 동대천어구로부터 남쪽 학사대리바다가에 이르기까지의 약 1키로메터구간에 4개의 도래굽이가 있다.

북쪽에 자리잡은 첫째 도래굽이는 먼데서 바라보면 마치 락타가 누워있는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이 섬을 락타바위섬이라고 부른다. 이 섬은 바다쪽으로 뻗어나갔는데 문성산과는 얕은 바다로 얼마간 떨어져있다. 이 섬에 오르느라면 큰 바위가 서로 겹싸여 이루어진 룡궁문을 지나 여러가지 기이한 형태의 바위들이 있어 그의 자연미가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문성산과 락타바위섬사이는 얕은 바다에 큰 바위들이 곳곳에 놓여있어 바위를 밟고 넘기 좋은곳인데 이곳은 자연적인 수족관과도 같다.

바다물에 잠긴 바위에는 미역, 다시마 등 바다나물들이 물깊이에 따라 각이하게 분포되여 파도에 너울거리고 물이 맑아 성게, 해삼, 게, 문어 같은것들도 환히 들여다 보인다.

이곳 만입부에는 큰 바위들이 무리지어 누워있는것이 특징적이다. 그것은 마치 총석정의 《와총》과도 같이 보인다.

학사대의 둘째 도래굽이는 사람들이 수많이 찾아오는곳이다. 《학사대》라고 바위벼랑에 새긴 글자도 이곳에 있다.

이곳에는 무게 100톤을 넘는 넓다란 큰 바위가 파도가 칠 때마다 밀려오는 물결에 움직이는것 같이 보이는 《움직이는 바위》와 이리저리 돌아가는것처럼 보이는 《돌아가는 닭알바위》가 있어 휴양객들을 더욱 즐겁게 하여준다.

셋째 도래굽이는 10메터높이의 바위벼랑밑 넓다란 암반우에 학사대의 유래를 말해주는듯 천만권의 책을 쌓아올린것 같은 바위들이 색다른 풍치를 이루고있다.

학사대의 넷째 도래굽이는 바다로 약간 내민 바위산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해돋이는 참으로 장쾌하다. 파도는 주홍빛으로 물들어 끓는듯 하고 수평선의 흰 구름도 보라빛으로 감도는데 타는듯 이글이글한 태양이 바다를 헤치고 불쑥 솟아오르면 학사대의 흰 화강암바위들은 황금으로 만든 진귀한 예술작품처럼 빛난다.

이 도래굽이의 남쪽 만입부에는 모래불이 있어 해수욕장으로 더없이 알맞춤한곳이다.

문성산소나무숲속에 우뚝 솟은 높이 10메터안팎의 범바위꼭대기에서 학사대를 바라보는 전망 또한 절경이다.

동쪽을 바라보면 바다가에서 약 10리 떨어져있는 갈매기살이터인 알섬과 그 오른쪽으로 멀지 않은곳에 까치섬이 보이고 수평선 저 멀리에는 풍어기 휘날리는 고기배들로 흥성거린다.

북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푸른 소나무 우거진 흰 모래불이 띠모양으로 바다가를 따라 그림처럼 펼쳐지고 남쪽으로는 가까이에 학사대와 고암수산협동조합 마을들이 바라보이며 멀리에는 반도마냥 바다로 쑥 내뻗은 산발이 한눈에 안겨온다.

그런가 하면 서쪽으로는 푸르른 부전령산줄기의 높낮은 산발들을 배경으로 무연히 펼쳐진 동대천벌의 황금파도 설레이는 풍요한 논판들이 안겨온다.

이렇듯 풍치아름다운 학사대는 지난날 권세있는 량반들과 지주들의 유흥터였는데 오늘은 이곳에 휴양소가 건설되여 인민들이 즐겨찾아오는 휴식터로 전변되였다.

학사대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

옛날 학사대 가까운 고을에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사는 효성이 지극한 리씨 성을 가진 세 형제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난한 살림에 쪼들리다가 숨을 거두면서 스물다섯살이 되도록 장가보내지 못한 맏아들 걱정을 하였다. 그리고는 막내아들 수관이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글을 배워 큰 사람이 되여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유언을 남기였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수관이는 마을에 있는 유식한 로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였다. 수관이는 문성산꼭대기에 있는 범바위우에 올라가 글공부에 모든 정열을 바치였다.

몇해동안 열심히 공부한 그는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학자가 되였다.

그후 그는 자기가 공부하던곳의 바위에 《학사대》라는 세 글자를 새겨놓았다. 그후부터 이고장 사람들은 이곳을 학사대라고 부르게 되였다.

본사기자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실태와 전망(1)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동북아세아지역의 국제적인 경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 기운이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공화국정부에서는 1991년말 라진—선봉시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데 이어 이 지대의 법적지위를 담보하는 여러가지 법과 규정들을 련이어 공포하였다.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 중국, 로씨야 세 나라가 접경하고있는 두만강삼각지대에 위치하고있다.

두만강삼각지대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세아의 중심에 놓여있으며 동북아세아지역의 개발과 경제발전에 유리한 자연경제적조건과 인적물적 잠재력을 가지고있어 《황금의 삼각지대》로 불리우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나가는 시종일관한 대외경제정책에 기초하여 라진—선봉지역을 21세기를 내다보는 종합적으로 발전된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꾸리기로 하였으며 이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고있다.

앞으로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 동북아세아지역에서 중요한 국제화물중계기지로, 현대적기술에 기초한 수출가공기지로, 국제적인 관광기지로 개발되게 될것이다.

잡지 《금수강산》은 본호부터 해외동포들이 이 지대의 개발전망과 투자환경을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련한 자료를 소개하려 한다.

※ ※ ※

1. 자연지리적조건

개발지대는 조선의 동북부 두만강하류의 서쪽연안, 북위 42° 05′ ~43°, 동경 130° 07′ ~130° 45′ 사이에 위치하며 조산만의 동북단인 우암으로부터 156키로메터의 해안선을 따라 조선동해와 련결되여있다.

백두산(해발 2,750메터)을 시원으로 516키로메터의 길이를 가진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로씨야와 접경해있다.

개발지대의 총면적은 746평방키로메터이며 지금 주민지구면적은 2%(13평방키로메터), 산업토지면적은 3%(19평방키로메터), 나머지 대부분은 농림, 수면, 토지 면적이다.

그 가운데서 20° 미만의 경사도를 가진 개발구역면적은 약 200평방키로메터이다.

이 지대의 년평균기온은 6.3°, 제일 추운 1월 평균기온은 령하 8.8°, 제일 더운 8월 평균기온은 20.9°이다.

년강수량은 770미리메터, 해비침률은 53%, 평균 상대습도는 70%이다.

지진과 토양학적측면에서 이 지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전에 약한 지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나 지진이 없는 지역으로 보고있다. 토양은 대부분 사토질퇴적토양으로 되여있다.

지대안의 인구는 약 13만명이며 그 대부분이 도시주민이다. 당면하게 라진지구를 먼저 약 30만명으로 꾸리면서 장차 개발지대의 총인구를 100만명으로 예견한다.

개발지대와 그 린접지역에는 철광석과 석탄, 마그네사이트, 도자기원료 등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지고있다.

2.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전략

(1) 기본목표

이 지대의 자연지리적특성과 동북아세아 및 세계경제발전의 추세에 맞게 종합적으로 발전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는것이다.

(2)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기능

①동북아세아나라들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의 화물을 대량적으로 중계하는 국제화물중계기지로 된다.

비행장, 항만, 철도, 도로 등 교통망들을 정비확장하고 교통수단들사이에 발달한 련대수송체계를 확립한다.

중국과 로씨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합리적인 국제교통망을 형성하여 국제화물을 제때에 안전하게 중계한다.

자유무역항의 기능을 높이고 이 지대를 통과하는 화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화물중계수송에서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②가공수출을 위주로 하는 제조업지대로 된다.

이 지대안에서는 경공업을 위주로 하면서 중공업을 배합하는 방향에서 산업을 전개한다.

다른 나라의 원자재, 부분품을 리용하여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가공수출산업기지로 꾸린다.

첨단기술산업을 비롯하여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지대로 꾸린다.

③국제적인 관광기지로 된다.

이 지대안에 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린접에 있는 백두산, 칠보산 지역의 관광자원들을 적극 개발하여 현대적이며 문화적인 관광기지를 꾸린다.

(3) 지대개발에서 린접나라들과의 협조

두만강지역의 린접나라들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개발한다.

동북아세아나라들과 자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두만강지역 개발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협의조정한다.

철도, 도로, 체신, 항만 등 공동의 리해관계를 가지는 하부구조대상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서 린접나라들과 협의조정사업을 강화한다.

(4) 개발단계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은 동북아세아지역의 경제발전전망과 투자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① 제1단계(1993~1995년)

이미 건설되여있는 철도, 도로, 항만 등 하부구조망을 개건현대화하여 국제화물중계수송기지로서의 역할을 높이면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단계이다.

제1단계에서는

• 주변나라들과 도로, 철도의 기본간선들을 련결하여 하나의 전일적인 중계수송망체계를 형성한다.

• 현존 도로, 철도, 항들을 개건확장하며 자유무역항들인 라진항, 선봉항, 청진항의 화물처리능력을 2천만톤이상에 달하게 한다.

• 라진지구를 집중적으로 투자개발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거점을 꾸린다.

② 제2단계(1996~2000년)

자유경제무역지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동북아세아의 교류거점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제2단계에서는

• 1단계개발과정에 마련된 하부구조망에 의거하여 국제중계물동을 대량적으로 취급한다.

• 항들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여 2000년까지 5천만톤의 화물처리능력을 조성한다.

• 1단계에 마련된 하부구조망을 리용하여 가공수출산업기지를 꾸리기 위한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 산업기지들을 지구별로 전문화하고 대규모의 투자를 받아들여 수출을 위주로 하는 경제지구를 형성한다.

• 국제적인 관광기지로 개발한다.

③ 제3단계(2001~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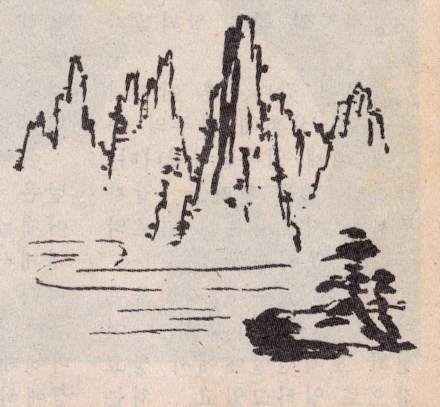
21세기에 상응한 종합적이고도 현대적인 국제교류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신설완비하는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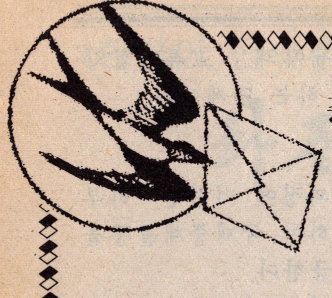
제3단계에서는

• 항들의 능력을 계속 높이여 1억톤이상의 국제화물을 중계할수 있도록 꾸린다.

• 중계무역, 수출가공, 제조업, 금융봉사, 관광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지의 면모를 갖추도록 한다.

• 21세기에 상응하게 시설, 산업구조, 봉사 등을 고도로 현대화, 지능화 한다.





중국 료녕성 심양시 가흥구역　　닭공장 김창해 앞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천리비린이라고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고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라는 격언이 있지만 거리가 멀다고하여 어찌 정도 멀어지겠나요?

아무리 먼곳에 있다고하여도 가를수 없는것이 혈육의 정인가봐요. 글쎄 기쁘고 즐거울 때마다 불쑥불쑥 삼촌의 모습이 떠오르니말입니다. 얼마전에 텔레비죤에서 방영된 한 해외동포의 고국방문소식을 시청하던 어머니는 《중국에 사는 너의 작은아버지네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있는지?》라고 하면서 저에게 편지라도 자주 하라고 당부하시더군요.

어머니는 한해두해 나이가 들고 머리가 희여지기 시작하니 친척들을 더 그리워하고 눈물도 헤퍼지는가봅니다. 12년전 철산군 행정경제위원회 과장을 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신후부터는 삼촌네 생각을 더 하는것 같습니다. 삼촌을 그리던 아버지를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가장을 잃은 공허한 마음때문인지 어떻든 어머니는 삼촌에 대한 말을 자주 하군합니다.

존경하는 삼촌, 그간 건강에는 별일 없겠지요?

양계장의 일도 잘되겠지요.

중국에 갔다온후 어머니는 노상 삼촌네 량주의 수고에 대해 외우군한답니다. 하지만 그곳 형편을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위로의 말밖에 못하는군요.

고국에 있는 저희들은 다 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도시건설대에서 창고장으로 일하고있고 처는 군인민위원회에서 지도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결혼후 저의 가정에는 두 자식이 출생했는데 여섯살난 딸 설향이는 미래의 손풍금독주가로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변 농촌마을로 순회공연하는 유치원예술소조의 노래반주를 담당하고있어요. 네살난 아들 진성이도 누나의 손풍금연주법을 신이 나서 배우고있답니다.

삼촌, 여기에 있는 우리 7남매들은 건강한 몸으로 맡은 일터마다에서 일을 잘하고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읍 산업유치원 원장사업을 하고 있어요. 환갑이 지난후에도 어머니는 유치원을 떠나지 못할거야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영예롭고 긍지높게 생각하는지는 아마 삼촌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참으로 각별하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키우는데서 생활의 락을 찾고 있어요. 조국의 미래이며 희망인 어린이들을 잘 키우자는것이 아마도 어머니의 좌우명인가 봅니다.

상급당조직에서 다른 중요한 직책을 맡기려고 했댔는데 어머니는 아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제기하였답니다.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는 날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어제날의 유치원졸업생들에게서 편지를 받는 때입니다.

하기에 나라에서는 어머니에게 전국교육자대회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70돐경축 대표로 참가시키였고 국기훈장 제1급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훈장과 메달을 수여해주었습니다.

삼촌, 지난 6월 고국에서는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습니다. 대회에는 전국각지에서 추천된 모범소년단원 수천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별의별 재간둥이들도 많았습니다.

소년단원들의 밝고 씩씩한 모습을 보니 정말 창창한 조국의 래일을 보는듯하더군요.

어머니도 뛰여난 재간둥이들을 많이 키우고있답니다. 지난날 어머니의 유치원에서 준비한 노래이야기는 전국 유치원예술소품경연에서 특등으로 입선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어머니가 있는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신경을 쓰군한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꽃을 가꾸는 원예사와 같다고 하면서 요즘도 원아들에게 노상 붙어있답니다.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젊어만지고있어요.

그리운 삼촌,

생활이란 리별과 해후의 끊임없는 순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상봉의 날보다 헤여져 사는 날이 수없이 길군요. 참으로 국경이란 무엇인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만나기가 힘들구만요.

고국에서 상봉할 날은 그 언제일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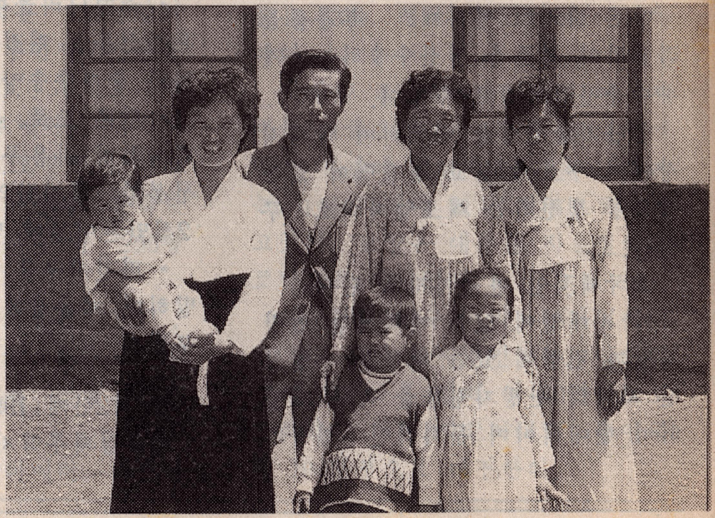
삼촌이 저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려고 고국땅을 밟은 때가 어제같은데 벌써 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이 없어 삼촌은 이 조카들이 그리워지겠지만 아버지 없는 저희들 역시 삼촌을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부디 고국을 잊지 말아주세요.

할말은 많으나 오늘은 이만하렵니다.

삼촌의 귀한몸 건강을 바랍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읍 61반
2층 2호 김 철 남 올림



《동백꽃》을 부르는 마음

지난 4월 평양에서는 해내외동포들의 민족대단결음악회가 있었다.

이 음악회에서 국립민족예술단 공훈배우 김점순은 남편인 인민예술가 신영철의 피아노반주에 맞추어 노래 《동백꽃》을 불러 조국통일의지로 불타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였다.

《동백꽃》! 그것은 가수가 30여년 세월 불러오는 노래였다.

고향의 동백꽃

김점순이 《동백꽃》노래의 곡을 처음 받아안은것은 20대의 젊은 고음독창가수로서 당시 국립예술극장의 무대에서 인기를 모으던 1957년이였다.

어느날 성악강사가 점순을 급히 찾으며 말했다.

《점순동무! 이것보오. 〈동백꽃〉이요.》

《네? 동백꽃이라니요?》

《남조선에 고향을 둔 박세영선생과 리건우선생이 시를 쓰고 작곡을 한 〈동백꽃〉노래요.

우리 극장에서는 동백꽃 피는 다도해기슭이 고향인 점순동무에게 이 노래의 첫 형상을 맡기기로 했소. 자, 이 악보를 받소.》

뒤동산에 동백꽃 피는 내 어머
　니 사시는 그곳
맑은 시내물도 정을 담아 흘
　렀네
…

새 가요의 세계를 파고드는 점순이의 눈앞에 푸른 바다우에 무수히 떠있는 크고작은 섬들을 포근히 감싸안고있는 다도해기슭의 자그마한 고향집이 떠올랐다.

점순이가 세상에 태여나 제일 처음으로 눈에 익힌 꽃은 바로 고향집 뒤산에 연분홍색, 빨간색, 하얀색으로 해마다 어김없이 피여나는 동백꽃이였다.

섭조개를 따러 바다에 나갔던 어머니가 《점순아!》하고 찾을 때면 그는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하면서도 대답대신 꽃가지사이로 살며시 얼굴만을 내밀었다.

《아유, 우리 점순이 어디 갔을가? 동백꽃이 되였나?》

까르르—점순이는 좋아라 웃어댔다. 어머니는 그러는 점순이를 꼭 껴안고 집으로 내려왔다.

《엄마, 나 배고파. 맛있는거.》

점순이를 달래며 어머니는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그 처량한 곡조들을 귀에 익히며 점순이는 애어린 소리로 곧잘 노래를 불러보군하였다.

그런데 동백꽃속에서 놀며 노래부르던 그 시절이 그만 여섯살나던 해에 동강나고말았다.

점순이와 앓다가 약한첩 써보지 못한채 급작스레 벙어리가 되여버린 네살난 태진이를 데리고 그의 부모들은 살길을 찾아 만주땅으로 갔었다. 이국살이 몇해후 일가는 조국해방소식을 듣고 귀향하던중 친척의 권고로 서울에 눌러앉아 살림을 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남조선땅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시작된것이였다.

《내 나라 땅이라고 불원천리 되찾아왔는데 이런 가슴터지는 정상을 보게 되다니. 이럴줄 알았더라면 이 땅을 다시 밟지 않는걸.》

점순이의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남먼저 의용군에 탄원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점순이도 의용군대오를 따라나섰다. 그때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 네 동생과 헤여졌다.

포화속에서 점순이의 노래를 들은 인민군용사들이 재능을 아껴주고 등을 떠밀어주어 그는 조선인민군협주단에 망라되였다.

그 잊을수 없는 추억을 못견디게 불러일으켜주는 노래 《동백꽃》!

점순은 고향의 동백꽃과 어머니를 그리고그리며 《동백꽃》을 훌륭히 형상하여 노래불렀다.

그때부터 《동백꽃》은 그의 지정곡으로 되였다.

그가 부르는 《동백꽃》은 외국의 공연무대에서도 울렸다.

그날은 오리라

…
산이 첩첩 높아서 넘지 못하나
넓은 바다 막히여 내사 못가나
가시덩굴 엉키인 고향이기에
붉게 타는 동백꽃 내 마음인줄
　아시라

뒤동산에 동백꽃 피는 내 어머니



김점순과 그의 남편

통일과 이름

천태만상을 이룬 세상만물에는 례외없이 그것의 성질과 생김새에 따르는 유일무이한 이름이 있다.

물론 그 모든것들의 이름은 그것이 생겨나면서부터 스스로가 지니고 나온것이 아니고 인류발생의 려명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유구천만한 세월이 흐르는 기간 사람들이 지어서 붙인것이다.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이름들가운데서 오늘 우리 인민이 열화같은 심정을 터치며 부르는 이름이 있다.

조국도 통일조국.

통일애국성전에 투신하였던 인사들과 통일사업에서 이룩된 력사에 기록할 사연을 기념하여 세워진 통일전선탑.

값높은 명예칭호인 《조국통일상》.

기념비적건축물들에도 통일거리, 통일역, 통일각, 통일관, 통일교…

태여나는 자식의 이름도 통일이라고 짓는다.

통일, 인류사에 통일이라는 개념이 단어로 고착되여 장구한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것이 이름으로 명명되고 그토록 시대와 민족의 절절한 념원으로부터 중시되여 퍼타는 목소리로 불리운적은 일찌기 없었다.

올해에도 가슴아픈 분단의 력사가 마흔아홉번째의 년륜을 새겼다.

예로부터 조상대대로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단일민족으로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겨레가 본의아닌 민족분렬의 비극을 겪기 시작하여 어언 근 반세기, 애국애족에 투철한 민족성을 자랑하며 동방의 강국으로 이름떨쳐온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져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어찌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누가 부르지도 바라지도 않은 흉악한 외세가 내 나라, 내 땅을 동강내고 치욕과 비운을 강요할제 겨레의 가슴은 통일로 불타고 애국으로 끓어번졌다.

통일의 물고를 터놓고저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분단장벽에 파렬구를 낸 문익환목사와 림수경, 문규현신부들의 자랑스러운 얼굴에서 우리는 더이상 갈라져 살지 않으려는 겨레의 하나된 마음과 밝은 미래를 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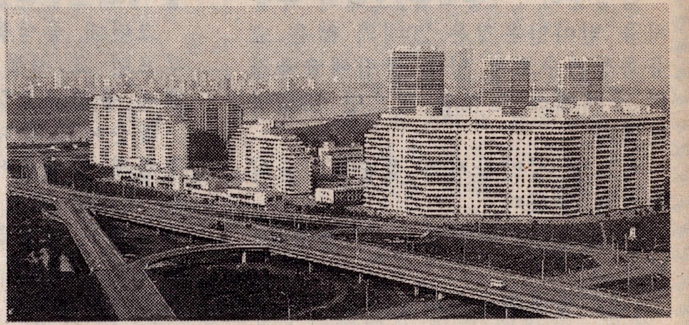
통일은 념원일수만 없다.

조국통일은 래일의 과제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는 결단코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민족으로서의 수치와 비극을 그대로 감수할수 없으며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모아 분렬의 빗장을 꺾어버리고 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껴나갈것이다.

통일이란 이름을 간직한 이 나라의 그 모든것들이 념원으로만 불리우는 이름이 아니라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의 장쾌한 해돋이를 맞이한 기념으로 불리워지게 될 그날은 미구에 다가왔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본사기자 채금옥



통일거리의 일부

사시는 그곳
고향그리운 마음 향기되여 풍기라

《동백꽃》은 부모를 그리는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이 슬프고 애달픈 정서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로 간주되여 무한히 정답게 그리고 매우 희망차게 형상된 가요였다.

하나의 지맥으로 잇닿은 조국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혈육의 상봉을 한떨기의 동백꽃에 비유하여 표현한 이 노래는 겨레의 막을수 없는 통일 지향과 의지의 메아리였다.

《동백꽃》노래를 부르며 점순이는 생사여부조차 알길 없는 어머니와의 상봉을 눈앞에 그렸다.

상봉의 그날에 어머니에게 말씀드릴 사연은 끝없이 쌓이고쌓여갔다.

재능있는 가수로 자라나 가극《밝은 태양아래에서》를 비롯하여 여러 가극의 주인공역을 맡아했던 나날의 이야기이며 대륙과 대륙을 넘어 20여개 나라에서 공연을 한 사실들…

그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진행한 여러 공연무대에도 올랐다.

국립민족예술단에서 작곡실장으로, 음악강사로 각각 활약하는 이들 음악가부부의 가정에는 남다른 사연도 많았다.

그의 남편은 우리 나라 음악계의 재능있고 로련한 작곡가이다. 《춘향전》, 《심청전》을 비롯한 민족가극창조사업에 크게 기여한 그는 오늘도 민족음악발전에 자기의 정력을 다하고있다.

그는 1989년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환갑상까지 받았다.

점순이의 아들 동윤이는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한후 의사가 되였고 딸 동희는 김형직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인민대학습당 음악자료실에 있다.

점순이는 어느덧 며느리, 사위를 맞아들였고 손자, 손녀를 보았다.

가정의 행복이 커갈수록 이제는 80고령이 다 된 어머니앞에 남편과 끌끌한 자식들을 하루빨리 내세우고싶은 마음 나날이 간절해지는 점순이다.

남녘에는 남편의 동생과 친척들도 있다.

꿈결에도 그리운 이 혈육들을 만날 날은 기어이 오리라!

점순이는 《동백꽃》이 언제까지나 만나지 못하는 혈육, 못가보는 고향을 그리는 노래로가 아니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전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7천만 겨레가 하나가 될 때 고향의 동백꽃속에서, 어머니앞에서 추억의 노래로 불리워지리라는것을 믿어마지 않고있다.

본사기자 려순옥

유구한 민족사의 갈피를 더듬다

을 파 소

고구려 고국천왕(기원 179－197)은 선왕 신대왕의 둘째아들이다. 그는 성품이 인후하고 도량이 커서 대를 이을 왕자로서의 풍모를 갖추고있었기때문에 형을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던것이다.

고국천왕이 즉위한지 12년 고구려는 안팎으로 위기에 처하였다. 궁중에는 왕후 우씨의 친족인 중외대부(왕의 령으로 일정한 지역을 다스린 벼슬자리), 패자벼슬을 하는 어비류와 평자벼슬(왕을 보좌한 대신급 관직)을 하는 좌가려의 일족들이 오래동안 둥지를 틀고앉아 왕후의 세도를 믿고 국정을 좌지우지하였다.

결과 조정에서는 벼슬아치들의 싸움질이 그칠새없었고 밖에서는 가렴잡세로 란장판이 벌어졌다.

그중에도 어비류, 좌가려 일족의 행패는 더 심했다. 그들은 아무러한 리유도 없이 백성들의 가산과 전답을 가로채였고 남의 집 녀자들을 릉욕하였다.

백성들의 불만과 원성은 높아갔다.

한편 서북국경에 있는 적들은 호시탐탐 고구려 침공의 기회를 노리고있었으며 발기(왕의 형)는 왕이 되려는 야욕으로 그들과 내통하고있었다.

왕은 고구려가 처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정치가 세도쟁이들의 손에 의해 좌우지되는 폐단을 없애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어비류, 좌가려의 무리를 벼슬에서 떼고 그들의 죄를 따지여 처형까지 하려고 하였다.

이것을 눈치챈 좌가려는 부족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궁중으로 쳐들어왔다.

그러나 반란은 곧 평정되였다.

《요즘 우리 나라의 정세가 문란하여 벼슬길이 사람의 덕망에 의해 열려질 대신 세도를 가진 사람들의 연줄을 타고 오락가락하여 그 해를 입은자가 비단 백성만이 아니라 그것이 조정에까지 미쳤으니 이는 오직 나 한사람의 잘못으로 아노라.》

왕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고나서 4부의 부족들에게 국정을 맡아볼 사람을 선발하여 제기할것과 그런 신망이 두터운 인재가 있다면 그의 가벌이나 신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백성들은 환성을 올렸다. 사람들은 론의끝에 왕에게 동부의 안류라는 사람을 추천하였다.

안류는 그때까지 조정에는 그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백성들속에서는 명망이 높은 사람이였다.

왕은 안류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내 이번에 각 부 백성들을 통하여 국정을 맡길만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니 그들은 한결같이 그대를 제기하였소. 그대도 아다싶이 자고로 백성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하였은즉 백성들이 그대를 나에게 천거한것을 어찌 우연한 일이라고 하겠는가. 그러니 이제부터 나를 도와 정사에 참견하되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 나의 기대를 저바리지 말기 바라오.》

그리고 그날부터 조정에 나와 일을 보라고 명령하였다.

하지만 안류는 처음부터 그것을 사양하였다. 그는 이윽고 이렇게 말하였다.

《대왕의 분부가 그러실진대 어찌 함부로 거역하겠소이까마는 저는 사람됨이 어리석어 도저히 그런 중임을 감당할 재목이 못되는줄로 아옵니다. 하기는 제가 각 부 백성들과 얼마간 뜻이 통하기는 하오나 감히 나라일을 함께 의논할수 있겠소이까. 그러니 적당한 인재를 찾으심이 옳을가 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는 을파소라는 사람을 천거하였다.

《듣건대 압록강가 좌물촌이란곳에 을파소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류리왕을 모시던 어진 재상으로 알려진 을소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도 자기의 지체에 대한 자랑이 없을뿐아니라 일찍부터 세상일에 뜻을 두지 않고 혼자서 밭을 갈고 곡식을 심어서 자족하고있다고 합니다.

그는 천성이 강의하고 지략이 남달라 대왕의 기대와 백성의 념원에 맞게 정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그의 말을 따랐다. 그는 곧 사람을 을파소에게 보내여 그 뜻을 말하고 왕궁으로 나와주기를 청하였다.

《상감의 분부가 그러시다면 어찌 백성으로 이를 거역하겠소. 아무튼 한번 나가보기로 하지요.》

을파소는 왕궁에서 온 사람을 따라갔다.

하건만 그의 차림은 여느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낡은 관과 흙이 묻은 옷, 거칠은 손은 어디로 보나 시골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촌사람이였다.

하지만 왕은 그를 정중하게 맞아들이였다.

《내 일찌기 선왕이 남긴 뜻을 받들어 옳은 정사를 베풀려하나 원래 덕이 박하고 재질이 부족하여 나의 힘으로써는 도저히 백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없구려. 선생이 재주를 지니고도 헛되이 산골에 숨어산다는 말을 듣고 나오라고 하였는데 다행히 그 초청을 저바리지 않으니 만백성을 위하여 즐거운 일이요. 청컨대 선생의 도움을 받고저 하니 힘을 아끼지 말아주시오.》

왕은 그에게 우의정의 벼슬을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을파소는 얼른 대답이 없었다.

그는 현재 국가가 처한 형편으로 보아 왕의 부탁을 외면할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하여 왕에게서 하사받은 중외대부의 벼슬과 직권으로써는 도저히 당면한 위기를 처리할수 있는 대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왕의 큰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한 직위가 있어야 했다.

이윽하여 을파소는 입을 열었다.

《대왕의 각별한 분부이시라 어찌 백성된 몸으로서 거역할 생각이 있겠소이까마는 소신의 부족한 힘으로써는 도저히 대왕의 엄령을 감당하기가 어렵겠사오니 대왕께서는 그런 큰일을 벌리시자면 달리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시와 그에게 부족을 느끼지 않는 높은 벼슬을 주시는것이 앞서는 일인가 하옵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기의 의도를 말하였다.

왕은 그 뜻을 짐작하고 을파소에게 훨씬 높은 벼슬을 주었다.

그리하여 을파소는 곧 정사에 참여하게 되였다. 그는 왕의 의사를 받들어 먼저 높은 관리들과 왕의 인척들이 정사를 마음대로 처리하는 폐단을 없애고 만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새로운 제도를 세우기에 힘썼다.

그러자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관리들과 왕족들에게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을파소가 나라의 정치를 개혁한다는 명색으로 조정의 위신과 종실의 존엄을 무시하고 한갖 백성들의 요구밖에 들어주는것이 없으니 이는 백성을 교만방자하게 하여 나라의 처지를 그르치게 하는줄로 아룁니다.》

왕에게 힐난을 하는 사람은 한두명이 아니였다.

하지만 왕은 그런 말을 용납하지 않았다.

《국상의 처사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비질을 하는자는 귀천에 관계없이 당자는 물론 그 일족까지 죄를 물을터이니 그리 알라.》

그는 을파소의 처사를 지지하고 밀어주었다.

을파소는 감격하여 자기의 친우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은 때를 잘 만나야 한다. 때를 만나면 날개를 펴는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시골에 은퇴하여 촌백성으로 사는것이다. 이제 상감께서 나를 그토록 신임하는데 내 어찌 그에 보답하지 않으리오!》

을파소는 더욱 힘을 내여 바른 정사를 펴나갔다. 그는 인재등용에서도 귀천을 가리지 않았으며 상벌을 적용하고 민심을 존중하였다.

나라는 안팎으로 평정되여 흥하게 되였고 백성들은 임금의 정사를 찬양하며 충의를 다했다.

그에 만족한 왕은 안류를 불렀다.

《내 그대의 말이 없었던들 어찌 을파소와 같은 훌륭한 재상을 얻을수 있었겠는가. 오늘 내가 을파소와 함께 얻은 공은 그대의 공로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노라.》

왕은 이렇게 말하면서 안류에게 대사자(정4품급)의 벼슬을 주었다.

고구려가 강성하고 흥했던것은 을파소와 같은 충신들이 왕을 도와 백성을 위한 옳은 정사를 펴나갔기 때문일것이다.

본사기자



고향소식

밤꽃 피는 계절이 오면

평안남도 성천군은 명승지인 강선루가 있고 밤, 명주 등 특산물로 유명하다.

예로부터 성천읍지구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살았다. 오늘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사람뼈화석이 발굴되고있는것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살기 좋은 이곳으로는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다. 그들을 숙박시키기 위해 성천읍 비류강기슭에는 고려시기에 337간이나 되는 동명관이란 객사(려관)가 생겨났다.

읍지구를 둘러선 열두봉우리의 아름다운 운치에 조화맞게 12루를 세웠다.

동명관에서 건물의 규모가 크고 수법이 화려한것이 강선루이다. 강선루란 이름은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비류강에서 미역을 감고 오색무지개를 타고 오르내린다는데로부터 생겨났다. 강선루에 올라서면 12봉우리와 비류강의 절경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그래서 강선루는 《관서8경》의 하나로 손꼽혀왔다.

동명관은 봉건통치배들의 유흥장으로 리용되였다.

명승지가 있고 특산물이 유명했건만 가난한 백성들은 그것이 오히려 재난으로 되였다. 피눈물나던 과거사를 말해주는 민요와 전설이 오늘에도 전해지고있다.

강선루야 강선루야 신선이 온다 강선루랬지
오라는 신선은 오지 않고 서울 량반만 오고가네
12봉을 병풍치고 기생아씨 장고소리에
사또부사 학춤만 추는데 우리 백성들은 곱새동이 된다네

량반귀족들은 《공물》이란 이름으로 성천의 질좋은 명주와 밤 등을 수많이 빼앗아갔다.

그날의 사연을 전하듯 읍지구에는 명주필로 몸을 감고 비류강에 빠져죽은 옥량이란 애인을 애타게 찾다가 바위로 굳어졌다는 《총각바위》에 대한 전설도 있다.

량반부자들은 이곳 특산물을 배불리 먹고 흥에 겨워 학춤을 추지만 가혹한 착취와 수탈에 곱새가 되는것이 이고장 가난한 백성들의 정상이였다.

그들에게는 성천의 유명한 밤, 명주가 원한의 대명사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이곳의 특산물을 수많이 강탈해갔고 12봉의 하나를 폭파시켜 성천읍을 감돌아 흐르던 비류강의 풍경을 못쓰게 만들었다.

고향의 특산물은 자랑으로가 아니라 백성들의 올가미를 조이는 화근이였다. 밤꽃이 피는 계절이 오면 닥쳐올 수탈을 예감하며 하나둘 정든 고향땅을 떠나갔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삼꽃거리에 살고있는 림정옥의 선친들도 그때에 압록강을 건너간 사람들이다. 지금 성천읍 28반에는 그의 동생 림어금이 살고있다.

해방후 이곳 명승지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려지고 명산물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부로 되였다.

곳곳에 새로운 밤나무림이 조성되고 밤가공공장이 건설되여 성천 《약밤》은 더욱 이름나게 되였다.

누에고치생산량이 늘어나 오늘도 성천의 명주는 덕천의 항라, 녕변의 비단, 안주의 댕기와 함께 평남도 지방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알곡, 축산, 과일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부문들이 고르롭게 발전하여 그 생산량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성천광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큰 역할을 놀고있다.

해방전 성천읍에는 1,000여호의 살림집이 있었는데 좋은 집이라고 해야 돌기와집이였다. 지주의 착취를 피하여 이곳에 흘러온 이주민들은 움막을 지어놓고 화전을 일쿠어 생계를 유지해왔었다.

오늘 이곳에는 세멘트공장, 벽돌공장을 비롯한 건재생산기지가 꾸려져 수많은 살림집이 일떠섰다. 단층집이 있던곳에 현대적인 다층살림집이 구획에 맞게 일떠서고 사회급양망과 편의봉사망들이 편리하게 배치되였다.

12봉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비류강을 옆에 끼고 오붓이 들어앉은 성천읍지구의 풍경은 마치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어제날 곱새춤을 추던 백성들의 후손들이 나라의 주인, 동명관의 주인이 되여 학춤을 추고있으니 우리 시대에 와서 그들이 신선이 된 셈이다.

밤꽃이 피는 계절 고향땅을 찾는 해외동포들의 감정은 어떠할가?!

고향의 특산물 맛과 질은 더욱 좋아졌다.

《언니에게 성천의 특산물을 마음껏 대접하고싶습니다.》

밤꽃 피는 계절이 오면 성천읍의 림어금은 언니의 고국방문을 더 기다리고있다.

본사기자



독자란

판문점에서

아름다운 단풍잎이 빨갛게 물들여지고있던 작년 늦가을, 나는 고국방문의 행운을 지니게 되였다.

오매에도 가고파 마음속으로 불러보던 고국의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 나의 마음은 파도마냥 설레였다. 조상들의 뼈가 묻혀있고 단군민족의 얼이 숨쉬고있는 정다운 고향—고국에 대한 방문은 나에게 평생 잊을수 없는 추억과 회포를 남겨주었다.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평양은 실로 아름다운 꽃도시, 행복의 도시, 사랑의 도시였다. 웅위로운 자태를 안고 발돋음하며 창조와 혁신의 불꽃속에서 약동하는 평양은 뭇사람들의 흠모와 동경의 대상으로 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유유히 흐르는 푸르른 대동강물결, 안개타고 구름우에 높이 솟은 주체사상탑, 개선문, 5월1일경기장을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과 거리거리에 일떠선 고층의 현대적문화주택들… 나는 정녕 이르는곳마다에서 신기한 한폭의 그림을 바라보는듯싶었다.

나라의 독립과 광복의 서광을 안아오기 위하여 또한 인민의 자유와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눈보라 휘몰아치는 만주광야에서 피를 흘리며 슬기롭게 싸워온 혁명투사들의 넋을 고이 간직한 조선혁명박물관.

조선민족의 기백과 창조와 지혜, 총명의 열매로 익은 서해갑문.

배움의 전당, 지식의 요람, 인민의 궁전으로 거연히 솟아오른 인민대학습당.

천진한 동심에 기쁨과 웃음을 피워주고 행복과 사랑을 안겨주는 어린이들의 보금자리—만경대학생소년궁전.

…

눈에 보이는것마다 나의 감탄과 찬사를 자아냈고 귀에 들려오는것마다 나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주체의 향도따라 날로 번영에로 줄달음치는 고국땅에서 인민은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있음을 깊이 느끼였다.

하지만 격동으로 충만된 나의 방문소감에 가슴아픈 상처로 되는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판문점이였다.

물론 나는 오래전부터 판문점이라는 이름을 들어왔지만 판문점루각에 올라선 순간, 반만년의 력사가 함께 흘러온 땅을 동강낸 군사분계선을 바라보는 그 순간, 칼로 뼈와 살을 여미는듯한 아픔을 느끼였고 설음과 분노에 울컥 북받치는 눈물을 참을수 없었다. 민족의 불행과 비극을 직접 목격하는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솟구치는듯했다.

반만년을 함께 살아온 단군의 민족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한오리의 선에 의하여 반세기라는 세월을 분단의 고통속에서 허덕이고 모대기는것이 아닌가.

나는 괴로움으로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형용할수 있는 적당한 말을 찾을수 없었다.

민족의 비극을 낳은 악마와 죄악의 선을 조작한 력사의 죄인은 누구인가?!

저주와 통탄과 한으로 뒤섞인 감정에 잠겨있노라니 구름도 비통에 찢어지는듯했고 바람도, 산새의 울음소리도 나의 청각을 어지럽히는듯했다.

민족분단의 비극을 끝장내고 언제면 이 땅의 사람들이 자유로이 오가며 마음껏 즐길 통일의 그날이 오겠는지…

나는 머리를 들고 통일각을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홀연 나의 귀가에 지축을 울리는 통일의 종소리 우렁차게 들려오고 통일만세 함성소리 송악산기슭에 메아리치는듯싶었다. 나의 눈앞에는 통일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 통일의 새날이 밝아오는 동녘하늘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나는 성스러운 그 시각이 서서히 다가옴을 스스로 느끼면서 우리 민족의 숭고한 념원과 공동소원이 기어코 이룩될것이라는 확신을 굳게 가지였다.

정녕 그날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것이 민족구성원으로서의 인생의 참된 보람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판문점을 나섰고 조국통일에 이 한몸을 다 바쳐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중국 연변사회과학원
최봉룡

상식

고명의 유래

우리 나라 민족음식의 하나인 국수를 먹을 때 빨간고추와 닭알 노란자위전을 실오리처럼 썰어서 장식한것을 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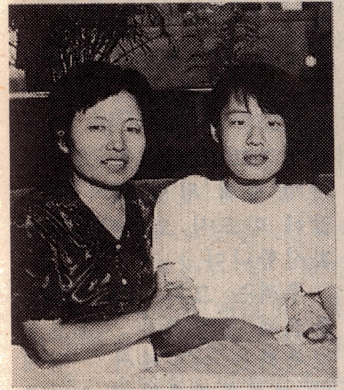
이것을 고명이라 부른다.

기록에 의하면 몇백년전부터 우리 나라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떡우에 대추로써 글자를 만들어서 썼다고 하여 그것을 고명이라 하였다고 한다. 즉 떡우에 《수》자나 《복》자를 새겨서 오래 살거나 행복하기를 바랐던 뜻이 오늘은 음식의 모양과 색갈을 보기 좋게 하며 입맛을 당기게 하기 위하여 음식우에 덧놓거나 뿌려서 아름답게 치레하는것으로 되여 고명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념원

우리 조국 삼천리금수강산이 두동강난지도 반세기를 가까이하고있다.

민족분렬의 고통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할대로 체험한 우리 인민은 그 누구라 할것없이 조국통일을 위한 일에 자기들의 깨끗한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림수경과 함께 있는 허정숙

◉《통 일 집》

평양시 서성구역 장산동 제59인민반 6층 1호실에서는 밤이 깊도록 샤르륵, 샤르륵…재봉기소리가 쉴사이없이 들려온다. 그것은 남녘의 통일애국인사들과 방북인사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성과 노력을 바치고있는 한 녀성이 돌리는 재봉기소리이다.

그가 바로 허정숙이다. 나이는 47살.

그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세 자식을 가진 평범한 가정의 주부이다.

《통일집》으로 불리우는 허정숙의 집에 가보면 《〈통일의 꽃〉 림수경에게》라는 명표가 붙은 지함과 박성희, 성용승 등 북에 왔던 남녘의 통일애국인사들을 위해 마련한 갖가지 원호물자들이 한방 가득히 차있다.

포근한 겨울외투와 산뜻한 봄외투, 계절에 따르는 여러가지 색갈의 양복과 조선치마저고리를 비롯한 80여벌의 옷들, 옷장과 이불장을 비롯한 수십종의 가정살림도구들, 진귀한 고려자기와 보약들, 통일념원이 맥맥히 흐르는 각종 축기들…

그 하나하나의 위문품들마다에는 조국통일을 위해 떨쳐나선 애국인사들에게 바치는 허정숙녀성의 정성과 인정이 담겨져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준다.

그가 이런 위문품을 마련하기 시작한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전인 1989년 6월 30일이였다.

그날 허녀성은 온 가족과 함께 흥분된 심정으로 《전대협》대표 림수경의 평양도착장면을 텔레비죤화면으로 보았다.

온 겨레앞에 우리 조국은 하나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목청껏 노래하며 이 나라 청년학생들모두가 조국통일성전에 떨쳐나서야 한다는 피타는 호소를 안고 머나먼 길을 에돌아온 수경이, 그가 단벌옷차림이라는것을 알게 된 허정숙녀성은 수경의 옷을 만들어주리라 결심했다.

제일 좋은 천으로 낮에 밤을 이어 정성껏 만든 옷을 포개여들고 그는 고려호텔로 달려갔다.

허정숙녀성과 림수경대표, 그들은 헤여졌던 모녀가 만날 때처럼 부둥켜안고 혈육의 정을 나누며 사진도 찍고 조국통일을 위해 서로 억세게 싸우자는 속깊은 약속을 하고 헤여졌다.

그후 분계선을 넘어 남조선으로 간 수경이가 죄아닌 《죄》를 쓰고 철창속에 갇히였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허정숙녀성은 반통일세력에 대한 치솟는 분노의 마음을 누를길 없어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때로부터 수경이는 허녀성의 마음속깊이에 끝없이 사랑스러운 딸로 자리잡게 되였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는 철창속에 있는 수경이를 생각하며 더 좋은 옷, 더 좋은 보약들을 마련하군하였으며 수경이의 시집가는 날을 생각하여 례장감은 물론 이부자리와 갖가지 살림도구들도 일식으로 마련해두었다.

지난해 1월 수경이가 석방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듣고 흥분에 휩싸여있었던 그는 조국을 방문한 해외동포들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자기가 정성껏 마련한 위문품들을 안고 하루빨리 수경이에게로 달려가고싶다고 절절하게 말하였다.

수경이에게로 달리는 이 평범한 녀성의 마음, 그것은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북녘어머니들의 마음 그대로이다.



통일의 그날을 그리는 허정숙의 가정

◉베를린에서 온 편지

1992년 2월 14일이였다.

허정숙녀인의 집으로는 뜻밖에도 반가운 두장의 편지가 날아왔다.

편지를 개봉해보니 베를린에서 보내온 박성희, 성용승의 편지였다.

…조국으로부터 이역만리 이곳에서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털옷을 받아드니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이곳의 날씨는 조국과 다르게 습기찬 랭기가 온몸에 파고들지만 어머님의 그 사랑에 저는 이번 겨울을 춥지 않게 보내고있습니다.

림수경대표를 위해 사계절 옷들을 만들며 통일의 그날을 념원하고계신다는 허정숙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우리모두를 친혈육과 같이 사랑해주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며 얼마나 감동되였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가 《전대협》대표로 북녘에 머문 85일동안 뜨겁게 저를 사랑해주신 모든 어머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기도 하겠지요. 미제가 남녘땅에서 물러나고 희망찬 통일의 새날을 안아오는 날, 북녘의 모든 어머님들과 더불어 죄없는 아들딸들을 철창안으로 보내야 했던 남녘의 모든 어머님들이 함께 얼싸안고 기뻐하실 모습을 그리며 어머님의 기대와 사랑에 어긋나지

않는 장한 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조국실현 4년전
2월 4일 박성희

우리에게 성희의 편지를 읽어주는 허녀성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일에 자기의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나선 박성희와 성용승, 아니 남녘의 청년학도들을 위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된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새로 류행되는 옷감이 나올 때마다 또 해주고싶은것이 자식을 가진 어머니의 심정이다.

허정숙은 이런 심정으로 1991년 8월 박성희와 성용승이 평양에 왔을 때에도 알맞춤한 천을 골라 한올한올 정성을 담아 그들의 옷을 지어주었으며 그들이 독일에 간 이후에는 그곳으로 가는 범민련 구라파지역본부대표단 인편으로 따뜻한 털옷을 만들어 보냈던것이다.

그는 문익환, 유원호, 문규현 선생들의 옷도 만들었으며 그들에게 보내줄 갖가지 보약들과 원호품들을 장만하고 또 장만하였다. 그래도 그는 자기의 성의가 부족되는것만 같아 안타까왔다.

방북애국인사들에 대한 허녀인의 극성스러운 정성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의 7형제 자매들과 남편의 형제들도 떨쳐나섰다. 소문이 퍼져 이웃과 먼곳의 평범한 많은 사람들까지도 떨쳐나섰다.

평양시는 물론 평안북도 룡천군, 평안남도 평성시, 덕천시에 사는 사람들도 좋은 옷감을 보내오고 돈도 부쳐왔으며 옷장과 책장, 이불, 포단, 도자기류들도 보내여왔다.

그렇게 마련된 정성품들에는 방북애국인사들에게 쏟아붓는 북반부인민들의 뜨거운 열과 정이 출렁이고있었다. 그것은 돈으로도 계산할수 없는 더없이 귀중한것이였다.

◉지현이도 내 딸

남조선잡지 《말》 4월호에는 이 잡지의 객원기자(명예기자)로 있는 《통일의 꽃》 림수경이 쓴 《빨찌산의 딸 김지현의 외로운 투병》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김지현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리인모동지와 함께 지리산에서 싸웠던 옛 조선인민군 병사의 딸이다. 지현이는 리인모동지가 뇌출혈을 일으켜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사경에 처해있을 때 직장까지 휴직하고 두달동안이나 그의 곁에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병구완을 하였던 처녀이다. 그런데 연약한 몸인 29살나이의 지현이가 지금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10층 22호실에서 결핵성농양으로 사경에 처해있다니 웬말인가?

당장 수술을 받아야 했으나 돈이 없어 수술도 못받고있다는 김지현의 불행한 소식을 읽은 허정숙의 가슴은 쓰리고 아팠다. 그는 온밤 잠들수가 없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족이 그의 부모가 되여 돌봐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리하여 허정숙녀성의 온 가족은 한자리에 모여앉아 지현이의 친부모가 되고 친형제가 되여 그들을 돌봐주기로 하였다. 지현이가 입을 치마저고리며 동생들이 입을 외출복까지 제일 좋은 천으로 만들었으며 이부자리 4채와 침대베개, 속옷, 잠옷, 방석 그리고 갖가지 약품과 보약들, 가정살림도구들을 이제는 한방 가득히 차고넘치게 장만해놓았다.

허정숙은 정성껏 준비한 위문품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통일의 꽃 림수경에게 전해줄 저 많은 옷가지들과 위문품들, 지현이와 그 동생들에게 안겨줄 정성품들, 방북애국인사들에게 전해줄 저 귀중한 물품들을 한가득 싣고 이제라도 당장 남쪽으로 달려가 안겨주고싶은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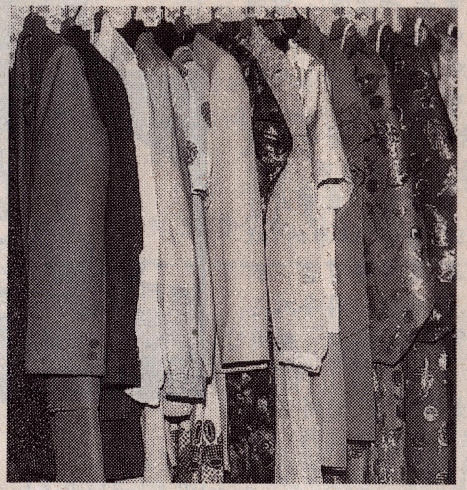
저는 조국통일의 광장에서 우리 수경이랑, 지현이와 그의 동생들이랑 함께 어깨겯고 통일춤을 흐드러지게 추게 될 그날이 머지 않아 반드시 오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의 이런 말을 들으며 수경이가 통일을 경축하는 야회에서 입게 될 연분홍색갈의 무도회복이며 지현이네 네형제가 베게 될 통일베개들, 《통일된 우리 조국 만세!》라고 금실로 수놓은 두폭의 축기를 다시금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본사기자 김경희

❋

❋ ❋


통일사절들을 그리며 성의껏 마련한 위문품들

1995년과 조국통일

미국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 《신한민보》에 의하면 제15차 민족통일을 위한 범해외동포학자들의 토론회가 《1995년과 조국통일》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에 미국의 수도 워싱톤에 있는 메릴랜드대학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민족통일연구소 최경태소장과 이 연구소 북미대표리사이며 범민련 미국본부 및 북미주조선친선협회 고문인 선우학원박사, 범민련 미국본부 및 북미주조선친선협회 고문인 최정렬, 북미주조선친선협회 공동의장들인 김운하, 김태정, 조대성, 미주민족운동련합공동의장 리행우, 뉴욕자주평화통일운동련합 회장 지창보를 비롯하여 일본, 스위스, 카나다, 미국 각지에서 온 동포학자들과 통일운동인사들, 애국적교포들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여기에는 또한 남조선의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민족회의) 공동의장 박순경과 서울 향린교회 담임목사 홍근수 등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는 조선문제에 관한 미국위원회소속 의원들인 전 미법무장관 램지 클라크, 워싱톤국방정보쎈터 부소장이며 해군예비역제독 유진 캐롤, 조선문제에 관한 미국위원회 사무국장 죤 스웜리박사 등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참가자들은 먼저 민족통일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개막식에서는 민족통일연구소 최경태소장이 개막사를 하고 범민련 구라파지역본부 의장이며 민족통일연구소 구라파대표리사인 박사 최기완이 《8. 15 50주년을 앞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결정적국면을 열자》라는 제목의 기조보고를 하였다.

그는 조국을 멀리 떠나 살고있는 동포지성인들이 날로 분단의 강이 깊어만가는 조국의 현실을 더는 앉아 보고만 있을수 없어 통일운동의 앞장에 설 애국의 뜻을 품고 민족통일을 위한 토론회의 첫 막을 올린 때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면서 모두가 조국통일의 민족적여망을 성취하고 토론회를 평양과 서울에서 통일경축의 큰 마당으로 열수 있게 될 그날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것을 호소하였다.

개막식에서는 해외동포음악가들의 음악회가 있었다.

토론회는 분과별토의를 진행하였다.

제1분과 토의에서는 《북조선방문에서 배운 교훈》 등의 제목으로, 제2분과 토의에서는 《**김일성**주석서거후의 〈한〉반도정세와 통일운동에 대하여》 등의 제목으로 된 강연들이 있었다.

3일째되는 날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1995년 통일원년 향한 워싱톤선언》이 채택되였다.

토론회는 선우학원박사의 페회사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합창으로 막을 내렸다.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 진행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소년단창립(1946. 6. 6)기념일을 맞으며 온 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축복속에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1994. 6)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축하문에서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이번 대회는 당의 품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씩씩하게 자라고있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미더운 모습을 널리 시위하고 소년단원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자랑스러운 대회로 될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조선소년단은 지난 기간 언제나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고 오늘 우리 소년단원들이 훌륭히 교양되고 혁명의 후비대로 믿음직하게 자라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소년단원들이 조선로동당에 끝없이 충직한 소년근위대로 튼튼히 준비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축하문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대회에서는 소년단원들을 조선로동당의 참된 소년근위대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과업을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월 7일 대회참가자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시였으며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회기간에 생일을 맞은 80명의 대표들에게 생일상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대를 이어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계승자들의 불타는 결의와 굳센 의지를 과시한 뜻깊은 대회로 되였다.

1995년 통일원년 향한 워싱톤선언

우리는 분단 50년이라는 쓰라린 20세기의 종말을 눈앞에 두고 바야흐로 하나로 된 큰 조국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할 력사적시점에 당도하고있다. 다행히도 민족의 광휘로운 장래를 기약하듯이 다가오는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변정세는 자못 희망적인 발전을 보이고있다.

그동안 험난한 대결관계에 있던 북조선과 미국사이에 정부급회담이 개최되여 량국간의 완전한 정상화를 지향하는 무게있고 의의깊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세추이와 시대의 부름에 화답하여 통일구국대책을 론의할 목적으로 미국의 수도 워싱톤에 모인 우리 해외동포지성인들은 1995년을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되게 하려는 온 겨레의 념원을 재확인하고 당면한 통일운동 방향과 과제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우리는 이 실천에서 앞장설것을 결심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오늘의 조국통일의 력사적인 새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자주적원칙을 보다 철저하게 내세워야 한다.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통일애국운동은 자주, 민주, 통일의 옳바른 운동로선이 정립됨으로써 크게 고양되여왔다. 그러나 민족자주권의 수복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절박하고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력사의 정로는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1980년 광주의 민중봉기를 기점으로 《한국》민중들의 대미관계에서는 일대 전환이 일어났으며 민주민족운동에서는 반미자주화의 격랑이 크게 일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우리 민족과 국토를 량단하고 통일을 가로막아온 주되는 외세임은 아무도 부정할수 없다. 그러나 반미를 투철하게 내세워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참다운 조국통일이 실현될수 없는것이다.

우리의 반미는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을 비판배격하고 주종적인 《한》미관계를 대등한 동반자관계로 재정립하려는 극히 보편적인 주장이다.

미국과 함께 최근 아세아지역에서의 패권을 노려 군사대국화, 핵대국화에로 질주하며 《한》반도에 대한 재침을 획책하는 일본의 동향을 강력히 배격하여야 한다.

우라 민족의 민주통일운동은 자주적로선을 계속 강화할 때에만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고 응당한 새 지평에 올라설수 있다.

2. 통일을 위해서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단결은 힘이다. 국민이 하나로 뭉치고 온 겨레가 크게 하나로 뭉치면 그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자주화도 촉진되고 진정한 민주정치도 실현될수 있으며 통일의 길도 열린다.

통일의 주체는 민족이다. 1995통일원년을 눈앞에 둔 이 시각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굳게 하나로 뭉쳐야 한다.

지난 8월 서울과 평양, 도꾜에서 개최된 범민족적인 통일운동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내외에 크게 과시하였으며 또한 외세의존, 반민주, 반통일의 김영삼《정권》의 실상을 적라라하게 부상시켰다. 그것은 부단한 운동을 전개하면 그 과정에서 투쟁해야 할 대상이 더욱 분명해지고 승리를 위한 단결이 한층 강화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이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견해차는 뒤로 미루고 운동을 통해 단결을 강화하며 다시 운동으로 비약시키는 립장에서 해내외의 모든 통일운동단체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련대하여 하나의 보조로 나가야 할것이라고 주장한다.

3. 조국통일방안에 대한 전민족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것이다.

공동의 목표설정은 공동행동의 전제이며 단결의 기초로 된다.

지금까지의 모든 방안들을 비교연구해볼 때 하나의 공통된 흐름으로 론의가 발전하고있음을 알수 있다.

그것은 남과 북의 상이한 두 체제를 병존시키는 기초우에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한다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련방제방식의 통일은 누구도 공감하고 지지할수 있는 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민족운동권의 김영삼《정권》에 대한 옳바른 평가문제가 제기된다.

《문민정권》이 출현한 당초 운동권의 일부 인사들이 그에 참가하였고 민중들이 일정한 기대를 가진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중들은 시대의 흐름을 옳바르게 지켜보았으며 《신공안정국》의 조성과 험악한 탄압공세에서 김영삼《정권》이 선행한 군사독재《정권》이상의 파쑈통치《정권》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전쟁으로 련결되는 《흡수통일론》을 제창하며 반통일, 반민족, 반민중의 가도를 질주하고있는 김영삼《정권》에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시정되여야 한다.

랭전이 종식되였다 하나 강대국들의 전횡이 여전하여 랭전의 후유증은 계속 남아있다. 1993년 한해에만도 세계 42개국에서 52회의 군사분쟁이 일어났다. 이 분쟁들은 례외없이 강대국으로부터의 민족의 자주화 또는 민족적, 종족적, 종교적 리권의 회복을 요구하여 발생한것이며 그 모든것이 화해와 대화로써만 해결될수 있는것이다. 지금은 힘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며 더우기 미국 일국에 의한 세계지배는 이미 과거지사로 된지 오래다.

미국은 시대의 추세를 깊이 명심하고 완화와 자주의 흐름에 상응하게 대《한》반도정책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에 도움이 되도록 전환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은 대결일변도의 북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불안정한 휴전체제를 완전한 평화체제로 교체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혁을 공약으로 권좌에 오른 클린톤대통령은 침략적인 대북《신작전계획》등을 추진하면서도 조선과의 정부급회담을 개최하고 이미 고차원의 합의도 이룩하고있다. 우리는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선과의 대화에 보다 진취적으로 림하여 최후의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해외동포들의 운명은 조국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되여있다. 우리 해외동포학자들은 민족의 량심, 민족지성의 체현자로서 지난 15년간 조국통일운동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자부하면서 앞으로도 통일원년의 실현을 위하여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다할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15차 민족통일을 위한 범해외
동포학자들의 토론회
1994년 9월 3일 미국 워싱톤

유훈이 꽃핀 연백벌

올해 우리 나라의 손꼽히는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연백벌에 전례없는 대풍이 들었다. 연백벌의 연안, 배천, 청단 3개 군들의 올해 농사작황을 돌아본데 의하면 강냉이도 그렇지만 부침땅의 대부분을 이루고있는 벼농사가 특히 잘되였다. 예상수확고는 지난해보다 정보당 평균 벼는 1톤 400키로그람정도 더 날것이 확고하게 내다보이고있다. 하여 연백벌에서는 지난해보다 근 8만톤의 알곡을 증수할것을 예견하고있다.

남조선의 강화도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분계연선표식물밑에까지 황금파도가 설레이는 배천군의 역구도협동농장, 봉화협동농장, 금산협동농장과 연안군의 해남협동농장들의 일부 작업반들에서는 지난해보다 논벼 정당 2톤 500키로그람이상 더 날것을 바라보고있다.

연안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기사장 오인석의 말에 의하면 갈대처럼 실한 벼대들에는 알찬 벼이삭들이 무겁게 실리였는데 정보당 논벼수확고를 결정하는 평당이삭수, 이삭당알수, 천알당무게가 농사를 짓던중 가장 리상적인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조옥희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박춘철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농장의 7반 2분조포전에서는 정당 논벼소출이 12톤이상 날것을 장담한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연안군, 청단군의 여러 협동농장들에서도 들을수 있었다.

가을하는족족 신바람나서 털어내는 탈곡장마다에서 울려나오는 대답은 또 얼마나 흐뭇한가.

《벼탈곡을 해보니 수확고가 쑥 올라갑디다.》

무연한 연백벌 그 어디가나 알찬 벼이삭들이 땅이 꺼지게 실리여 풍년장훈을 불렀다.

《농사를 잘 지어놓고보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더욱 간절해집니다. 그이께서는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는 마지막시각에조차 여기 연백벌의 농사작황을 료해하시고 만족을 표시하시였습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뗀 연안군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정섭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이곳 연백벌농사에 얼마나 큰 관심을 돌려오시였는가에 대하여 들려주었다.

지난해 8월 31일 수령님께서는 함경북도의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신데 이어 잠시의 휴식도 미루시고 이날 이른새벽 안개를 헤치시며 연백벌을 찾아주시였다.

먼저 배천군 수원협동농장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이어 금성협동농장, 연안군 오현협동농장, 청단군의 천태협동농장, 청정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이제는 수령님께서 험한 농촌길을 더는 걷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천태협동농장의 한 관리일군의 소원을 받으시고 그이께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고 일을 잘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자신께서는 이렇게 농장의 포전에 나오지 않으면 빨리 늙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날 연안군 오현협동농장의 한 포전에서 논벼 정보당 10톤 600키로그람 낼것이 예견된다는 작황상태를 료해하신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의 모든 포전에서 정당 알곡을 10톤 내는것이 자신의 구상이고 희망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30돐이 되는 올해에도 연백벌에 또다시 대풍을 마련하시기 위해 영농사업에 필요한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화학비료, 농약, 비닐박막 등 영농물자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시였으며 그들의 영농사업을 돕도록 농업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을 비롯한 일군들을 현지에 파견하시였다. 그리고 연백벌에서 농사를 잘 지으면 다시한번 꼭 오시겠다고 약속하시였다.

(농사를 더 잘 지어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만을 드리자.)

연백벌사람들은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뵈옵고싶어 새해벽두부터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농업일군들과 농업기술자들은 연백지방의 기후풍토에 알맞게 품종배치, 씨뿌리기, 비료시비체계, 물관리체계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왔다. 지원로력이 없이 농사를 자체로 지을것을 결의했던 그들은 모든 영농작업을 기계화하기 위해 힘썼다. 단 며칠사이에 자체로 살통식제초기를 만들어 김을 잡은것은 그 실례의 하나이다.

올해 농사를 본때있게 지어놓고 풍년든 포전에 또다시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연백벌사람들.

그런데 수령님께서 뜻밖에도 서거하시였다는 비보를 받아안은 그들의 상실의 아픔이 어떠했으랴.

하지만 그들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더 억척스럽게 일떠섰다.

혹심한 가물과 35도를 오르내리는 고온, 계속 퍼붓는 무더기비 등 올해 여름날씨는 이제껏 농사를 짓던중 제일 변덕스러웠다.

포전에서 늘 살다싶이하며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써온 그 나날들을 다 말하자면 끝이 없다.

이렇듯 연백벌농장원들의 그 마음 뜨거워 포전마다에는 대풍이 마련된것이다.

《이 풍년작황을 우리 수령님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좋으랴?!》 이것은 연백벌사람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연백벌농사를 료해하시고 그처럼 기뻐하시였다.

연백벌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생각했다.

수령님께서 이곳의 작황을 보지 못하셨지만 그이의 생전의 숭고한 뜻은 활짝 꽃피고있다고.

연백벌사람들은 말한다.

수령님께서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연백벌에 서계신다. 그리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여기 연백벌에 계신다고.…

본사기자 로 준

—연백벌사람들의 심장의 목소리—

후회없도록 살련다

지난해 8월말, 저는 우리 배천군에 오신 경애하는 수령님께 군의 농사실태를 보고드리는 무상의 영광을 지니였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저의 보고를 받으시고 군의 알곡수확고를 높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올해 우리는 수령님께서 하라는대로만 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은것이다.

하지만 최전연지대이며 교통조건이 불비한 배천땅에 수령님을 모셨던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죄송스럽기 그지없다. 군의 농사를 책임진 제가 일을 잘했더라면 80고령의 나이에 이런 험한 포전길을 걷지 않으시였을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후에야 그이의 만수무강을 진심으로 보장해드리지 못한 자책감으로 몸부림치며 후회하고있으니 그게 무슨 자식이란말인가.

수령님께서 연백벌의 농사에 대해 그처럼 심려하시였는데 이 풍년결실을 다시는 보실수 없다고 생각하니 비통한 심정 이를데 없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였으니 마음이 좀 놓인다.

이번에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우리 군의 협동농장들을 참관하고 갔지만 풍년작황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보여드리고싶었던 심정은 숨길수 없다.

허나 나는 고쳐생각하였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만은 더는 험한 농촌길을 걸으시게 해서는 안된다고…

그러자면 주인인 우리가 농사를 더 잘 지어야 한다.

나는 지금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일군, 후회없는 농사군이 되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배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림광희

이대로는 못살아

우리 농장은 남조선의 경기도 강화군의 섬 교동도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분계연선농장이다.

리승만괴뢰통치시기(조국해방전쟁전) 이곳은 갈대만이 자라던 한적한 고장이였다. 아무러한 수리화시설도 없어 밭에 심은 조나 피는 가물에 타죽고 얼마 안되는 뙈기논도 거부기등처럼 갈라터졌다. 그래서 흰쌀과 감 한알도 멀리 이남에서 사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등불조차 없는 마을은 암흑천지나 다름없었다.

이고장 인민들은 그때 물과 전기를 보내달라는 진정서를 가지고 공화국북반부에 찾아왔다. 남녘인민들의 소원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의 생명수를 보내주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해방되여 공화국의 품에 안긴 이고장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어제날 갈매기소리만 처량하던 갈대밭이 황금평으로 전변되여 올해에는 논벼 정당 9톤이상의 소출을 냈다. 산등성이마다에는 과일이 무르익고 초가집이 몇채 있던곳에 현대적인 아빠트와 기와집이 몇백채나 들어앉았다.

예로부터 우리 고장 앞바다에는 수산물자원이 풍부하기로 소문났다. 바다에는 숭어, 조개, 굴이 많다.

기와집에서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고



있지만 오늘 우리 농장원들은 원한의 분계선이 가로막혀 제고장 앞바다의 풍부한 수산물도 마음껏 잡아먹지 못하고있다. 얼마 잡는다고해도 남조선의 공해산업후과로 먹을수 없는 형편이다.

통일의 문이 열려 밥상우에 해남리 앞바다의 숭어까지 오른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날은 밝아오고있다.

연안군 해남리 초급당위원회 비서

리봉호

참 좋은 세월이지요

일제식민지통치시기부터 농촌에서 소작농으로 살아온 나는 고향이 이남인 까닭에 해방이 된후에도 리승만통치하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나는 다시는 그렇게 살수 없어 손에 총을 잡고 싸웠다.

원쑤놈들은 나의 부모와 형제들, 처, 자식 14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그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한두마디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나의 가슴에는 원쑤들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있다. 인민을 해하는 원쑤들과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

전후에 나는 농업간부학교를 졸업하고 협동농장에서 기사장 24년, 관리위원장 10년을 해왔다. 그 나날에 조, 피를 정당 한두톤밖에 내지 못하던 밭을 논으로 풀어 해마다 대풍을 마련하였고 올해에는 내가 일하는 작업반에서 정당 12톤의 벼를 거두어들이게 되였다.

이것은 고마운 제도를 위해서 응당한 일이였다.

허지만 나라에서는 나를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여러 대회들에 참가시켜주었고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었다. 어느해의 전국농업대회에서 토론할 때에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우리 공화국의 품은 내 운명을 지켜주는 어머니품이다. 이 사회주의제도를 떠나서 나는 못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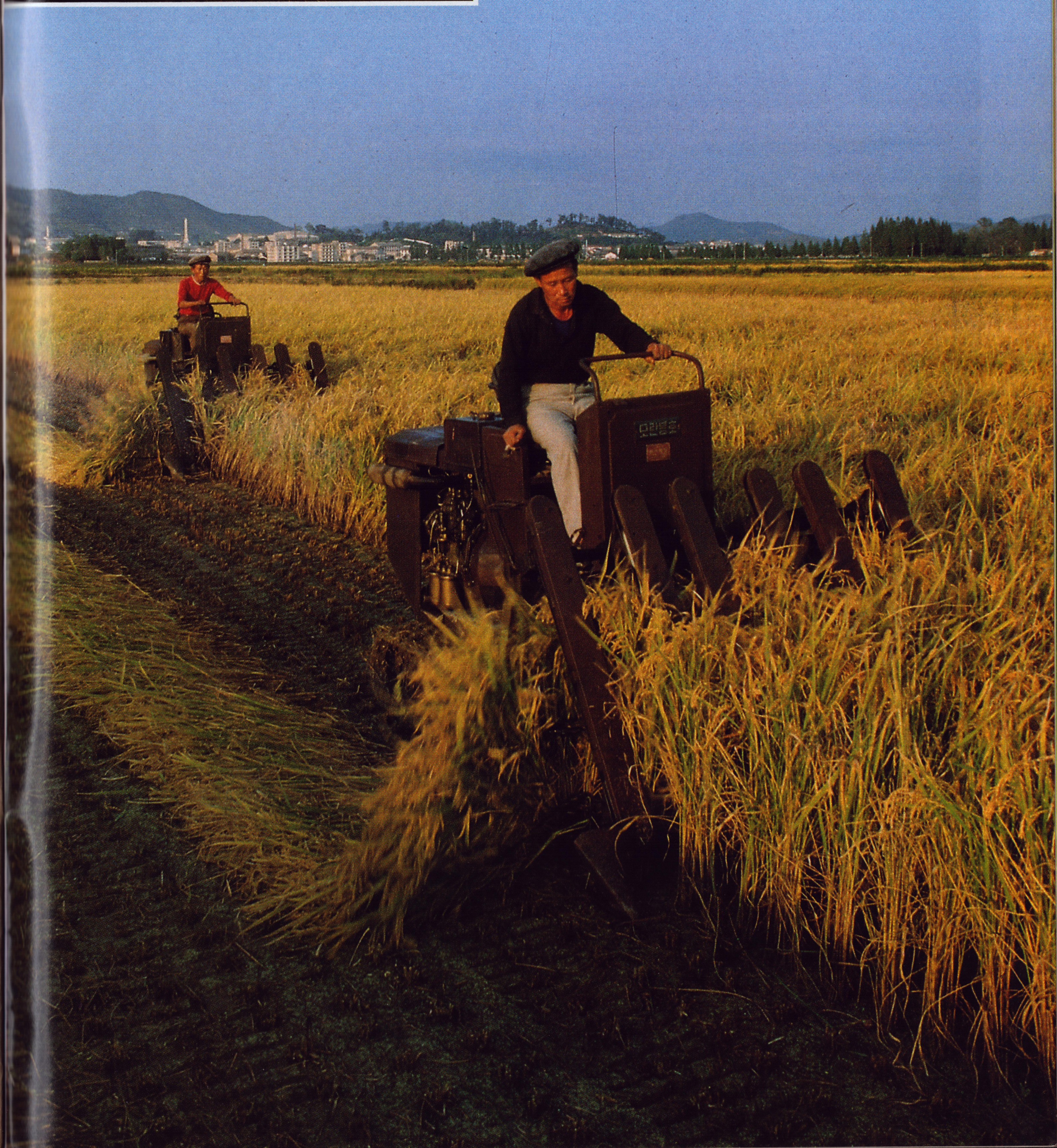
올해 내 나이 70살이다. 세월은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데 늙어가는것이 한스럽다.

기력은 점차 쇠진해지지만 오랜 기간의 농사과정에 얻은 기술과 경험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농사를 더 잘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전세대의 의무이고 도리라고 생각한다.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 박두선









벼이삭 설레이는 연백벌



《벌이 생겨서 처음보는 대풍일세.》



낟알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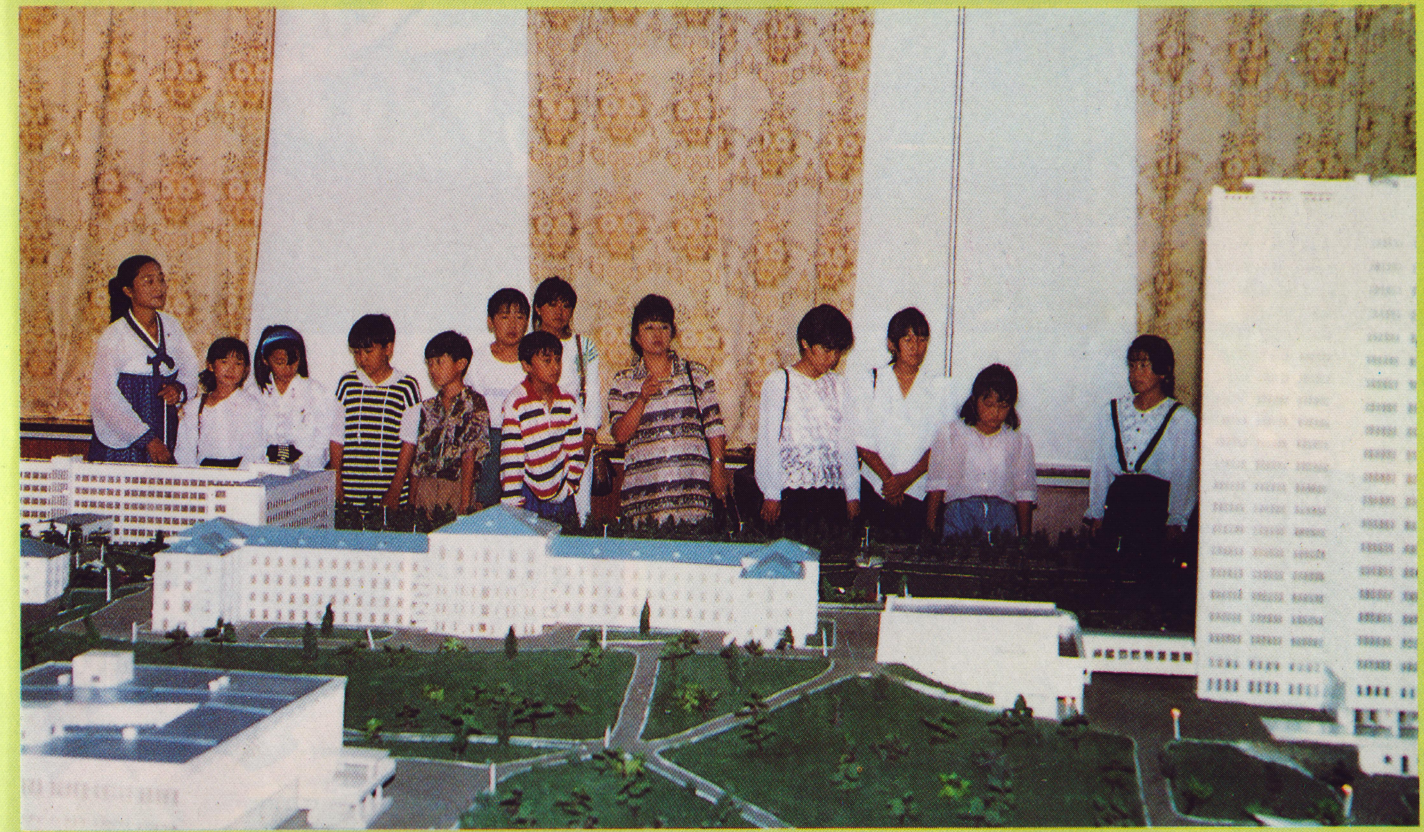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사진 남용일

고국 방문



빠스를 타고… (재중동포어린이들)





김일성종합대학사적관을 찾은

재로씨야동포어린이들

—대학 모형사판앞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조선범》을 보며—



고국의 현실을 잘 알기 위해… (재중동포어린이들)

사진 리히철



고국방문기념으로 한장 (재로씨야동포어린이들)



유희장에서 (재로씨야동포어린이들)

고국에서 야영생활

(중국 길림성 연길현
중앙소학교)



고국 소년단동무들과 함께



바다가에서



사진 박장철



오늘은 뽀트장으로 가는 날



고국의 바다를 잊을수 없어

고국의 참모습을 가슴에 안고 가기 위해



김정희와 고화 《란》



고화 《란》은 19세기전반기 이름있는 실학자의 한사람이며 서예계에서 특출한 글씨체를 이루어놓은 재능있는 명필가 김정희(1786 — 1856)의 작품이다. 그의 자는 원춘, 호는 추사이다.

김정희는 경상도 경주의 량반가정에서 태여나 성균관 대사성, 병조참판에 이르기까지의 높은 벼슬을 하였다.

그는 력사와 지리 등에 조예가 깊은 학자였으며 미술리론가, 화가로서 다방면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붓글쓰기를 정열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나라 력대 일류급의 서예가로서뿐아니라 《추사체》라는 고유한 글씨체를 창조하여 동방의 명필대가로 단연 이름을 날리였다. 그가 서예가로서 기울인 노력은 《일생동안 10여개의 벼루돌을 밑창내고 1,000여자루의 붓도 모자랐다.》고 한 자기의 소박한 말에서도 능히 가늠할수 있다.

그는 글씨뿐아니라 그림도 재치있게 잘 그렸다.

《란》은 추사의 란그리는 기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원숙한 갈필로 란초잎 하나하나를 깊은 심혈을 기울여 그린 이 그림은 화법가운데서 란을 그리는것을 제일 어려운것으로 보고 서예에서의 예법과 비교한 그의 심중을 충분히 리해할수 있게 한다.

그의 그림은 모두 먹으로 그린것이 특징이며 그림마다에 반드시 글씨가 안받침되여있다.

고화 《란》은 조선미술박물관에 전시되여있다.

